

토의·토론교육 자료



민주시민과 토의·토론

토의·토론교육 자료



민주시민과 토의·토론

Contents

I

민주시민과 토의 · 토론의 이해

1. 민주시민과 민주주의	5
2.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	11
3. 토의 · 토론의 의미와 필요성	14
4. 민주시민교육과 토의 · 토론의 원칙	17

II

개발 자료 안내 및 활용법

1. 교육 내용 체계화	22
2. 교수 · 학습 자료	25

III

교육 내용 체계화

1. 성격	29
2. 교육 목표	31
3. 교육 내용의 조직과 구성	32
4. 교수 · 학습 방법과 평가	40

IV

교수 · 학습 자료

1. 민주시민으로서 토의 · 토론의 필요	45
2. 민주 사회의 가치와 토의 · 토론 태도	91
3. 민주시민교육과 토의 · 토론 실천	175
4. 토의 · 토론 실천을 통한 시민 참여	198

I. 민주시민과 토의 · 토론의 이해



민주시민과 민주주의

1) 민주시민의 의미

시민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자유민을 지칭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고대 아테네의 자유민이었던 시민의 주요 역할은 폴리스 내의 공적인 일에 참여하여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시민은 자신과 관련한 공적인 일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시민 개념은 18세기 유럽에서 왕정 통치에 저항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던 부르주아 등의 도시민도 부여받았다(양해림, 2013: 379). 특히 이들이 왕정 통치에 대항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였던 혁명을 시민 혁명이라고 부른다. 이후 시민이라는 개념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을 부르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 볼 때, 시민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이나 국민과는 구별하여 그 의미를 논의한다. 기본적으로 시민은 사회 계약론과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사회 계약설에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보이지 않는 사회 계약을 통해 구성한 것이 바로 사회 공동체라고 설명하는데(Giddens, 1998), 사회 공동체의 대표적 모습이 국가이며 사회 계약의 당사자 개인들이 바로 시민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집단으로 총칭하여 부르는 국민(people, 종종 ‘인민’ 혹은 ‘대중’으로 표현되기도 함)과 달리, 사회 계약의 당사자 이면서 각각의 공동체 구성원인 시민은 개별적으로 주권적 참여자가 된다(오수웅, 2015: 281–282). 바로 이 지점에서 시민은 단순히 민주주의라는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조건에서만이 아니라, 루소(Rousseau, 1947/1961)가 말했듯이 공동체의 공적 일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 행사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부여받는 개념이다(박의경, 2011에서 재인용).

이렇게 보면 단순히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리고 공동체에서 참정권을 갖는 지위를 가졌다는 그 상황만으로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시민은 재산의 소유 여

부 등과 같은 자격이나 지위,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인식하는 소속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주권 행사라는 역할 수행이 중요한 특징이 된다. 즉 시민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특징 만이 아니라 주권적 참여를 실제로 수행하는 특징이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단순히 시민이라고 하지 않고 민주시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표현하는 것이다(옥일남, 2019: 171). 사실 민주주의가 대중이 통치하는 정치 형태를 말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의 주권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기에, 시민 앞에 따로 민주주의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민주’를 붙이는 것은 의미의 반복이다. 그럼에도 민주시민이라는 표현은 민주주의 국가의 혹은 민주주의 정신을 고려한 시민이라는 의미로서, 시민의 주도적 권력 행사를 위한 주체적 참여라는 특징을 더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민주시민은 시민과 같은 표현이면서, 능동적 측면의 시민 특성을 더 강조하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민주시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이라는 의미로 인해 민주시민의 논의를 국가 경계 내로만 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 계약설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국가였기에, 전통적인 시민 논의에서도 공동체 영역을 주로 국가에 한정하여 다루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개인들은 다양한 관심 영역에서도 공동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정도로 공동체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더구나 현대 사회의 특징인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지역화 및 세계화의 확산,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강조 양상 등을 고려하면, 민주시민이 활동하는 공동체의 해당 영역을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소속 국가로만 한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정치적 작동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정치의 의미에는 단순 통치 행위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민주시민의 삶은 국가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이 일어나는 지역적 차원에서부터 세계적 차원(옥일남 외, 2018: 172)까지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2) 민주주의의 특징과 변화

민주주의는 다수의 대중이 통치하는 정치 형태를 이르는 말이다. 민주주의에서는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위해 대중인 개인의 자유와 다양한 권리의 실현을 강조한다. 민주주의에서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이념인 인간 존엄성 존중 및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고 한다.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인간 존엄성과 개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국가권력이 노력해야 함을 선언한 헌법, 그러한 헌법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를 위한 삼권 분립, 국민주권과 자치의 원리를 적용한 다양한 제도 등이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은 공적 영역의 활동에 주권자로서 참여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삶을 살아간다. 이에 따라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단순히 정치 체제나 제도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삶의 방식에도 적용(Dewey, 1944: 44)할 정도이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정치 제도에 담긴 민주주의의 가치와 작동 방식은 시민의 일상 삶의 방식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되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가치가 일상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특정한 하나의 형태로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변화해 왔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의 변화는 제도적 측면에서 시민들이 주권자 역할을 하기 위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와 관련이 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향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공동체의 공적 영역과 시민 개인의 사적 영역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느냐와 관련하여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로 나뉘기도 한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를 더 중시하는지 아니면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공공선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나 평등 등을 더 중시하는지에 대한 논의로도 볼 수 있다. 이 논의는 제도로서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시민의 선택과 관련된 것인데,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이 논의는 한 방향으로 정리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여러 주장이 제시되었다. 과거와 비교하여 현대 사회의 민주주의 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 그 자체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이 공존하는 삶을 위한 공공선을 찾으려는 논의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또한 민주주의 제도의 작동 방식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양상은 주권적 행위자로서 시민들이 어떻게 정치적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발달 과정과 관련이 있다. 우선 고대 그리스 아테네라는 초기 민주주의 제도의 작동 방식을 살펴보자. 이 시기에는 직접 민주주의 형태였는데, 경제적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인 당시의 시민은 직접 자신의 삶과 관련한 공적 영역의 논의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했고, 이것이 당시 시민으로서 중요한 역할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도편 추방제 등의 우민정치 양상이 나타났고 이에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반면에 유럽의 근대사회 이후 강조되었던 제도적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 혹은 대의 민주주의 형태로 나타났다. 아테네 시민과 달리 일상에서 경제적 노동을 해야 했던 이 시기의 시민들은 선거 제도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대신해 줄 전문적 정치인을 뽑고 이들에게 시민으로서 역할을 일정 부분 대리하도록 위임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간접 민주주의가 형성되었다. 간접 민주주의하에서 시민들 대다수는 자신의 정치적 대표를 선거하는 정도에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런 간접 민주주의는 대중에 의한 정치라는 민주주의의 정신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제

도여서, 시민들이 주권자라기보다는 신민으로서 존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이황직, 2005: 73). 더불어 간접 민주주의에서 뽑힌 대표의 실패로 인한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김주성, 2008: 22–23). 이런 점들로 인해 간접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오는 제도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간접 민주주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제도적 문제로 인해 새로운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 민주주의가 논의되었다(이관후, 2018: 194). 여기서 말하는 참여는 간접 민주주의 제도로 인해 나타나는 국가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공적 영역에 시민들이 관여하는 양상을 말한다. 직접 민주주의 제도에서처럼 시민이 공동체 내 공적 영역의 모든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양상으로 관여하여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의 참여는 대체로 개인적 참여보다는 시민들 간의 연대와 협력 형태로 이루어진다(Barber, 1984: 118–119). 참여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주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과 그에 따른 시민행동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이 점에서 참여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보다는 공동체의 선 또는 평등이나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게 된다. 이를 고려하면 참여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측면을 보이는 고대의 직접 민주주의와는 그 결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다(서용선, 2013: 400–401).

그런데 참여 민주주의가 심화하면서 참여 과정으로 인한 시민 간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참여에 따른 피로감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더불어 참여 민주주의 과정에서 깊이 있는 공적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김주성, 2008: 24–25). 이에 따라 새롭게 제시된 것이 숙의 민주주의이다. 숙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대화와 토론, 의사소통과 숙의 과정을 통해 합의된 집단적 의사를 형성해 나가는 절차적 측면의 민주주의 원리를 추구하려는 것을 말한다 (임혁백¹⁾, 2000: 164–168). 숙의 민주주의에서는 집단적 의사소통 과정이라는 절차를 강조하는데, 이는 이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폭넓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민주주의 원리의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이다(이관후, 2018: 194).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숙의 민주주의를 심의 민주주의나 토의 민주주의라고도 표현한다. 이는 숙의 민주주의에서 강조하는 집단적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구성원들이 토의·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파악하고 서로 설득하며 조정, 합의 등의 절차를 경험하면서 공적 영역에 대하여 깊이 있는 성찰을 하게 되는 데(서용선, 2013: 404), 이 과정을 보고 학자들에 따라 심의나 토의라고 번역하였기 때문이다.

1) 임혁백(2000)은 논문에서 숙의 민주주의 대신 심의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여기에서는 이를 모두 숙의 민주주의로 표기하였다.

숙의 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이 공동체에 대하여 주체적 참여를 통해 공적 영역에 대하여 시민적 의사소통을 하는 그 공간이 시민사회가 된다고 본다. 하버마스(Habermas, 1997/2007: 486)에 따르면 시민사회는 시민의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비국가적이고 비경제적인 연결망을 통해 작동하는 자발적 결사체이며, 생활세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응집시켜 증폭시키고 이를 공론의 장 속에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홍성구, 2011: 160에서 재인용). 공론의 장은 시민들이 공적인 것에 대하여 집단적 의사소통을 통해 공적 합의, 즉 공론을 형성하는 장이다.

숙의 민주주의가 강조하는 집단적 의사소통 과정이 일어나는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토의·토론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토의·토론이 일어나는 공론의 장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공정한 합의의 길을 찾을 수 있어야(장동진, 2012: 52) 시민사회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아렌트(Arendt, 1958: 56)는 이러한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경험을 ‘콘서트 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 특징을 설명한다. 아렌트에 따르면 콘서트에서 모든 악기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공론의 장에서도 참여하는 시민들이 각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그 가운데서 언어에 의한 설득과 동의, 그리고 인정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 유익한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민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론의 장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각자가 자신이 가진 의견을 수정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합의해 나가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에만 기대지 않고 그 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정보를 탐색하여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전문가에 준하는 이해와 분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논의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이 바로 공적 이성(public reason)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의 과정(장동진, 2012: 26)이며, 숙의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숙의 민주주의는 투표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대화 중심의 민주주의로 민주주의의 패러다임을 전환”(이관후, 2018: 213)하자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숙의 민주주의는 참여 민주주의와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특성을 갖는 측면이 있다(정원규, 2005: 295).

그러나 숙의 민주주의에서 구성원인 시민이 공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토의·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지 못하면 숙의 혹은 심의나 토의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간의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는 참여 민주주의와 대립하는 양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정원규, 2005: 297). 그래서 일부에서는 숙의 과정에 대하여 “시민들 또는 시민 대표들의 의견이 도덕적으로 불일치할 때 상호 수긍할 만한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궁리하는 것”으로 표현하여(장동진, 2012: 70–72), 참여하는 시민들의 전문가적 식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련 시민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유를 제시하면서 ‘지속적으로’ 합의해 가는 숙의 과정 자체를 강조

하기도 한다(이관후, 2018: 196).

이런 점을 고려하면 숙의 민주주의는 그 어느 민주주의 작동 방식보다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공선을 고려하는 시민으로서의 자각과 역할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숙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스스로 시민이라는 자기 존중과 다른 시민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시민이라는 타인 존중이 필요하다. 더불어 시민으로서 스스로 중요한 공적 결정에 참여하여 논의하려는 자율도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들의 개인적 의견들을 모아서 공적으로 합의한 것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시민적 연대도 요구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간접 민주주의 제도에서 숙의 민주주의에서 강조하는 절차적 측면의 민주주의 원리의 실행을 위해서 시민 개인들은 주권적 행위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까지 살펴본 숙의 민주주의의 논의를 고려하면, 우선 시민들이 공적 영역에 대하여 논의하는 목적이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갈등과 대립 상황을 합의를 통해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시민들은 자신이 관여하여 의사소통하는 사안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파악하여 이해해야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숙의 민주주의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전문가가 가진 지식에 필적할 정도의 지식을 가진 전문가적 대중의 등장 덕분(이황직, 2005 : 72-73)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숙의 민주주의를 위해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자기 의견의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는 시민의 존재이다. 개인의 가치와 의견만 강조하는 적대적 갈등은 사회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사회의 해체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높이는 다양한 절차를 인정할 때에 진정한 숙의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숙의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준에서 집단적 의사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이황직, 2005: 72). 더불어 개인들도 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숙의 민주주의와 관련한 태도와 행동을 일상에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숙의 민주주의를 일상화하기 위하여 시민은 자신이 관여하고자 하는 공적 영역에 대하여 최소한의 식견과 그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합의적 의사소통을 위해 참여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이에 따라 시민 개개인은 타인의 의견이나 주장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갈등과 대립 하기보다 동등한 시민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상호 간의 공감과 합의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배워서 실천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

지금까지의 논의를 고려하면 개인들은 주권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노력은 민주시민이라는 지위를 갖기 위해 일정한 신분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제대로 된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강조하는 교육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이다. 그런데 이를 시민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우리 사회에서 시민교육이라는 이름을 달고 행해진 교육이 주로 수동적인 국민교육이나 공민교육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았기에 그러한 시민교육과는 다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심성보, 2011: 182–183).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다수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전득주(2004: 46)는 민주시민 교육에 대하여 “국가의 주권자로서 정치 현상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을 갖추고 비판 의식을 갖고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정치 행위를 습득하는 모든 내용과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는 ‘주권자’ 개념을 사용하여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였지만, 민주시민교육을 정치 행위에 한정하여 논의하는 측면이 강하다. 심성보(2011: 192)의 경우는 정치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는 것에서 조금 나아가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수행하고 사회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 가치관과 태도 등 민주적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적 · 학습적 노력”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민주시민의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 영역 이외에 일상적인 삶의 영역까지 고려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교육부에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다양한 정책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이들 연구에서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원규 외(2019: 15–16)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은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를 이상적, 현실적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을 최대한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정문성 외(2018: 20)에서는 “사회의 각 분야에서 자신의 권리를 합리적, 반성적으로 행사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미를 성실히 이행하는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지식, 기능, 사고, 가치 태도 등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설명하여 시민의 자질 함양을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사항으로 강조한다.

민주시민교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부(2018: 8)에서는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 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면서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강조해야 할 민주시민의 역량을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핵심가치에 대한 지식과 이해’,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다원성을 인정하는 시민적 관용’, ‘공공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적 효능감’, ‘사회·정치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력’,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와 상생의 원칙에 따른 협력과 연대’라는 6가지로 제시하였다(교육부, 2018: 8).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할 때 지향해야 할 교육 목표와 내용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이소연 외(2019)에서는 최근 이루어진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육부의 정책 연구 보고서에 나타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 관련 논의를 정리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의 <표 I-1>과 같다.

<표 I-1>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

구분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
옥일남 외 (2017: 171, 1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4개 영역): 민주주의에 관한 지식 영역, 기능 영역, 가치 및 태도 영역, 참여와 실천 영역으로 제시 – 내용 요소: 인권교육, 인성교육, 참여교육, 성평등교육, 다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 환경교육, 평화교육 –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활용, 기능이나 가치 태도 함양 및 실천 자세 강조
정문성 외 (2018: 145, 161-1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목의 통합적 운영(통합사회 내용 및 사회과와 도덕과 민주시민교육 내용 강화/ 현행 교과 개편 및 별도 교과 개설) – 쟁점 중심 시민 과목 내용 체계(안): 성·결혼·가족생활·친구·학교·이웃들·일상·과 진로·취미와 여가·대중매체와 대중문화·소비·경제생활과 신용·불평등·다양성·소수자·민주주의·권력·돈·지구촌과 환경 문제·국제 사회와 평가
정원규 외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구하는 시민상: 주권자(존중, 배려, 신뢰) – 시민적 가치: 존중, 자율, 연대(절차적 가치 강조) – 시민적 역량: 사회적 의사결정 역량, 사회적 공감 역량, 사회 참여 역량, 성찰 역량 – 교수·학습 원칙: 학습자 가치 평가 금지, 주입 금지, 학습자 배제 금지 – 학습 주제: 민주주의, 인권, 다문화, 경제·금융, 평화·지구촌, 미디어, 노동
이소연 외(2019: 1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조사에 나타난 교사들의 선택): 시민의 권리와 책임 의식 함양(68.2%), 가치 갈등 해결 기술 등 시민의 기본 역량 개발(43.1%), 공적 가치에 대한 존중 의식 함양(40.8%) – 내용: 민주주의, 인권, 다문화, 경제·금융, 평화·지구촌, 노동, 양성평등, 책임감 있는 인터넷 사용(미디어 리터러시), 공감 능력, 합리적 판단 능력, 사회 참여 능력

출처: 이소연 외(2019: 147)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고찰한 관련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을 고려하면, 민주시민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제안하는 것은 주로 민주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된 주제이다. 이는 민주시민으로서 삶의 과정에서 민주적인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다양한 상황이나 문제들을 주제 영역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관련한 논의 중에서 이소연 외(2019)의 연구에서는 ‘공감 능력, 합리적 판단 능력, 사회 참여 능력’과 같이 민주주의의 절차 또는 가치 지향을 실천하는 능력을 교육 내용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소연 외(2019)의 이러한 제안과 교육부(2018)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민주시민 역량 여섯 가지는 숙의 민주주의를 위해 요구되는 시민 개인들의 역량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이를 고려하면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현재의 다원화된 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서 고려해야 할 주제와 관련한 지식 이외에 그러한 주제에 대하여 민주시민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공동체 내 다른 시민과 의사소통하는 과정도 학습하게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에서는 민주시민의 삶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적 지식을 학습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 이외에도, 의사소통 과정 등 민주주의의 절차적 측면을 배울 수 있는 학습 내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토의 · 토론의 의미와 필요성

앞에서 살펴본 민주주의의 변화 양상과 민주시민의 역할 등을 고려하면 현대 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민주시민이 학습해야 할 부분은 다양하다. 특히 과거의 민주주의 사회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구성원의 가치 다원화 및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구정화, 2012), 노동 시장의 변화와 사회 불평등 심화(박영석, 2017; 장원순, 2017) 등의 양상이 나타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민주시민은 자신의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간의 차이와 불평등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심층적인 고민과 성찰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과거와 달리 현대의 시민은, 나와 동일한 공동체의 소속원이면서 동일한 시민이라는 지위를 가진 타인들과 의사소통을 통해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선을 위한 합의점을 찾으려는 인식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점을 찾으려는 활동은 이황직(2005)이 말하는 의사소통적 참여의 개념과 유사하다. 그는 “나날의 삶의 현장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공공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행위를 변화시켜 가는 것”을 의사소통적 참여(이황직, 2005: 83)라고 설명하면서, 민주시민들이 참여하는 일상에서의 대화와 토론 과정을 중요하게 다룬다.

일반적으로 교육에서 말하는 토의 · 토론은 언어적 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수업 방법(구정화, 2019)인 토의와 토론 수업 방법을 함께 지칭하는 것이다. 수업 방법으로서 토의(discussion)는 어떤 주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여 그 주제에 대해 학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어적 상호 작용을 행하는 수업 활동이며, 토론(debate)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각기 다른 의견이나 찬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이 옳음을 상대방에서 주장하고 설득하기 위해 언어적 상호 작용을 행하는 수업 활동(정문성 · 구정화 · 설규주, 2008: 326)이다.

토의 · 토론 수업 방법이 갖는 이러한 양상으로 인해, 민주시민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수업에서 토의 · 토론 수업 방법을 강조한다. 이는 토의 · 토론이 학생 중심의 수업방법이면서, 학생들의 사고력 및 참여 등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수업 방법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토의 · 토론 수업 방법은 기본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역량 혹은 자질을 기르기 위해 민주주의에서 강조하는 가치와 민주주의의 특징을 학생들이 수업 활동을 통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토의 · 토론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민주적 토의 · 토론 문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된다(이황직, 2005: 89). 대표적으로 토의·토론 수업에서 학생들이 의견 차이를 다양성 차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 간에 의견 차이가 날 때 의견을 조정하거나 합의적 소통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토의·토론을 하거나 주어진 자료 이외의 새로운 사실 자료에 대한 탐색과 수용 노력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나타난다고 한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민주주의와 민주시민의 개념을 고려하면, 민주시민으로서의 대화와 토론 과정은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여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복종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상대방과 의사소통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활동이다. 즉 민주시민으로서 논의나 토의·토론을 하는 경험은 차이를 존중하는 집단적 의사소통의 과정이지 대결이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자신의 존재를 권력 측면에서 강조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다. 민주시민들이 토의·토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민주주의 가치로 강조되는 즉 주권자로서 다른 시민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시민들 서로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시민들 간의 차이와 다름,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의 다원화는 대화와 토론을 시작해야 하는 기본적인 이유이면서 출발점이라는 점(Young, 1996: 10)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학교교육에서 토의·토론 수업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는 민주시민으로서 토의·토론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들이 학습되지 않은 채 토의·토론 수업 방법 자체의 적용만 강조한 결과일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과 우리 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하는 것에 위험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명백히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불어 토의·토론의 수업 적용과 관련한 교육적 개선도 필요하다. 즉 민주시민을 위한 의사소통 전략으로서 제대된 토의·토론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시민 간에 이루어지는 토의·토론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시민적 가치를 고려한 토의·토론 전략을 제대로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 의사소통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배워야 할까? 우선 토의·토론에 참여하는 구성원 서로가 동일한 공동체 내에서 시민이라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지향하는 가치에 공감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 각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연대를 통한 사회 통합 가능성을 경험해야 한다(강대현, 2003).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승훈(2002)에 따르면 시민 단체에서 시민들은 사적 관심에서 시민 참여를 하는 이들이 시민운동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공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주체적인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수업에서 참여 혹은 숙의 민주주의와 관련한 시민의 삶을 직접 배우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식·이해 교육을 충실히 해주기를 기대하는 사회적 요구, 그

리고 학생의 시민적 활동을 지원하는 수업을 전개하기 위한 학교의 준비 부족 등의 한계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민적 참여나 시민적 숙의 과정을 배우는 수업을 제대로 경험하기가 어렵다. 그나마 학교에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식이나 역량에 관한 학습이나 체험은 몇몇의 교과 교육이나 자치활동 등의 일부 비교과 활동에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학교 교과교육에서 진행되는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분석한 박상준(2019)의 연구에서는 사회과에서 강조하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 ‘민주적 가치와 태도’, ‘시민의 사고 역량’이라는 큰 영역으로 분류하였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 학생들은 주로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과 가치’ 위주의 수업을 받고 있었다. 또한 옥일남 외(2017)가 교육과정 성취기준 분석을 통해 학교의 민주시민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민주시민교육 내용으로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 해결 능력 등의 기능적 측면이나 관용과 공감 등의 태도 측면을 다루는 성취기준이 상대적으로 적게 제시되어서, 지식적 측면을 강조하는 민주시민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까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과 내용만으로는 학생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숙의하고 참여하는 경험, 특히 민주시민으로서 시민 간의 합의적 의사소통 경험 등을 제대로 배우기는 어렵다. 그런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교과서가 개정되어 적용된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합의적 의사소통 경험을 강조하는 이러한 방향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교과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개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럼에도 교과나 비교과 수업에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다른 시민들인 학생들과 공감하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합의적 의사소통 방식을 학습하는 토의·토론 자체를 배우는 경험을 할 필요성은 더 커졌다. 특히 2020년부터 만 18세인 고등학교 3학년 연령의 학생들이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학습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합의적 의사소통 경험을 배울 수업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 왜 다른 민주시민들과 숙의 혹은 토의·토론과 같은 의사소통이 필요한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공감과 협력, 그리고 갈등 조정을 위한 토의·토론의 절차를 익힐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시민적 삶과 관련한 다양한 토의·토론 의제에 대하여 실제로 공감하고 합의하는 토의·토론을 경험해야 한다. 더 나아가 시민적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시민 참여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여러 교과에서 나누어 배우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로 연결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통합적으로 배우는 수업 활동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민주시민교육과 토의 · 토론의 원칙

학생들은 미래의 민주시민의 역할을 학습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학습 공동체에서도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수업 방법으로 토론을 하거나, 민주시민으로서 공론의 장에서 토의 · 토론을 하는 과정 모두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지향, 그리고 민주시민이 가져야 할 태도를 배우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시민으로서 토의 · 토론을 할 때 적용해야 할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의 · 토론의 목적이 대립이나 경쟁이 아니라 공감과 합의를 위한 의사소통 과정임을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른 구성원에 대해 공격 혹은 경쟁하는 토의 · 토론이나 굴복 또는 강요를 강조하는 토의 · 토론은 민주주의의 가치에 어긋나며, 공감하고 설득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토의 · 토론이나 공공선을 고려한 합의적 토의 · 토론이 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한다. 공감과 설득은 시민들이 서로를 시민으로서 인정하고 지지하는 환경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토의 ·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민주사회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한 민주적 의사소통 전략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단계나 절차를 경험해야 한다. 더불어 공감과 합의를 위한 토의 · 토론의 세부 규칙 등을 구성원들이 논의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경험도 필요하다.

둘째, 토의 · 토론 의제와 관련한 양질의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토의 · 토론에서 양질의 정보는 민주시민이 의사소통을 통해 공적 이성을 형성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기 때문이다. 토의 · 토론에서 다루는 의제와 관련한 양질의 정보는 사실적으로 정확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하며, 특히 찬반 쟁점을 다루는 토론인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의 논리 모두를 균형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양질의 정보는 출처가 명확해야 하며, 해당 정보와 관련하여 신뢰할 만한 기관이나 전문가가 제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토의 · 토론에서 특정한 관점이나 주장을 채택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이해하고 각각의 관점이나 주장의 의미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개인이 가진 선입견이나 고정 관념 등은 의사소통에서 공감과 합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학생 개개인이 가진 선입견이나 고정 관념이 공감이나 설득적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제와 관련한 자료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자료를 찾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협동적 모둠 설계를 적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게 하면, 향후 토의 · 토론을 직접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공감과 합의적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토의·토론 과정에서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실제로 ‘입장 바꾸기’ 혹은 ‘관점 바꾸기’, ‘역할 바꾸기’ 등으로 표현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토의·토론 과정에서 상대방의 관점이나 입장에 서 보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이 하나의 주장이나 관점을 채택할 때에는 무작위 추첨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토의·토론 진행 과정에서도 자신의 주장이나 관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 보는 경험이 일어나는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자신이 취하지 않은 다른 주장이나 관점의 내용에 대해 장점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게 하는 활동, 자신의 주장이나 관점에 대해 그것의 문제점을 표현해 보게 하는 활동도 적용할 수 있다.

다섯째, 토의·토론 과정에서 다수에 의한 힘의 지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힘에 의한 다수결의 원리 주장이나, 다수의 횡포가 이루어지는 논의의 공간에서 토의·토론은 이성적이지도 공감적이지도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한 원리이기는 하지만, 논의 없는 다수결의 원리나 힘에 의한 의견의 조정은 민주주의의 적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집단의 구성 방식과 관계없이 구성원 모두가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토의·토론에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발언 기회를 가지고, 서로의 주장에 대하여 유의미하게 성찰할 수 있는 토의·토론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수결에 의하거나 개인 이익을 위한 협상에 의한 의사 결정보다는 공감과 설득을 바탕으로 하면서 공공선을 고려한 합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의사 결정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여섯째,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의제 자체에 대하여 지속하여 깊이 있게 성찰하는 의사소통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 번의 의사소통보다는 여러 차례의 의사소통을 통해 의제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하나의 의제를 설정한 후 짧은 시간에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여러 차시의 수업을 통해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공론의 장에서 학생들이 직접 의사소통을 경험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일곱째, 토의·토론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누려야 하며, 다만 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 등과 같이 공공선을 위협하는 표현이나 발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하나의 의견만이 정답임을 강조하거나 논의 없이 특정한 의견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더불어 민주주의 가치를 고려할 때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이 문제가 된다는 점도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 관념, 그리고 혐오 표현 등에 대해서는 그것이 민주주의 가치와 시민사회에서 살아가는 민주시민의 태도에 비추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참고 문헌

- 강대현(2003). 전환기 시민사회와 시민교육. 손봉호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편), 시민사회와 시민교육: 손봉호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pp. 93–115). 경기: 교육과학사.
- 교육부(2018).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미발간 자료). 세종: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 구정화(2012). 다문화시민성을 위한 초등 다문화교육 프로그램개발 연구. 사회과교육, 51(1), 1–18.
- 구정화(2018). 사회과교육에서 혐오표현 관련 교육에 관한 시론. 시민교육연구, 50(3), 1–22.
- 구정화(2019).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토의 · 토론법의 과정중심평가 실행방안 논의. 시민교육연구, 51(3), 1–24.
- 김수원(2009). 사회적 차별, 혐오 범죄 그리고 인권. 원광법학, 25(3), 261–296.
- 김정인(2019). 공론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적용: 일본의 에너지 · 환경 공론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1), 65–93.
- 김주성(2008). 심의민주주의인가, 참여민주주의인가?. 한국정치학회보, 42(4), 50–32.
- 김현경 · 박보람 · 박승환(2012).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그 옹호의 논의를 넘어서: 표현의 자유론 비판과 시민권의 재구성. 공익과 인권, 12, 215–249.
- 박상준(2019).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분석. 한국일본교육학회 2019년 연차학술대회자료집, 93–100.
- 박영석(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합의와 시민교육의 과제. 시민교육연구, 49(4), 43–62.
- 박의경(2011). 대중에서 시민으로: 참여적 시민의 형성을 위하여. 한국정치학회보, 45(5), 81–100.
- 박재현(2019). 인지적 공감을 촉진하는 교육토론의 기제. 새국어교육, 121, 37–66.
- 서용선(2013). 사회과교육에서 시민성과 민주주의의 연관성: 교육적 맥락, 의미, 방향. 교원 교육, 29(3), 393–417.
- 심성보(2011). 인간과 사회의 진보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서울: 동문사.
- 양해림(2013). 시민사회와 공공성. 동서철학연구, 70, 375–404.
- 오수웅(2015). 루소의 시민교육: 개념, 역량 그리고 교육. 한국정치연구, 24(1), 271–302.
- 옥일남 · 장원순 · 이정우 · 송선영 · 이윤주 · 정은식 · 길현주(2017). 학교교육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 교육부.
- 옥일남 · 조대훈 · 장은주 · 이지향(2018). 다문화시대 평생교육 관점에서의 세계 · 민주시민 교육 과제 및 실천 방향. 서울: 국가교육회의.
- 옥일남(2019). 글로벌 시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정치적 쟁점 주제의 적용 원칙과 교사 유형 탐색. 시민교육연구, 51(2), 167–197.
- 이관후(2018). Deliberative Democracy의 한국적 수용과 시민의회: 숙의, 심의, 토의라는 번역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11(1), 189–219.
- 이소연 · 박은아 · 이인화 · 손병일 · 노유리 · 김지혜(2019). 학교 민주시민교육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진천,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승훈(2002). 한국 사회의 ‘시민됨’ 형성과정–자발적결사체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연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황직(2005). 의사소통적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습속화. 사회이론, 28(가을/겨울), 70–96.

- 임혁백(2000).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현상 · 이론 · 성찰. 서울: 나남.
- 장동진(2012). 심의민주주의. 서울: 박영사.
- 장원순(2017). 자본주의 시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시민 형성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공주교육대학교), 54(4), 1–21.
- 전득주 외(2004). 정치 문화와 민주시민교육론: 한국, 대만, 독일, 일본, 미국의 비교 분석. 서울: 유풍.
- 정문성 · 강대현 · 설규주 · 전영은(2018).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세종: 교육부.
- 정문성 · 구정화 · 설규주(2008). 사회과 교수 · 학습론. 서울: 교육과학사.
- 정원규 외(2019).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기본개념 및 추진 원칙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
- 정원규(2005). 민주주의의 두 얼굴: 참여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 *사회와 철학*, 10, 281–329.
- 허수미(2010). 시민사회의 특성과 시민교육의 방향. *사회과교육연구*, 17(4), 183–198.
- 홍성구(2011). 숙의민주주의의 이론적 보완: 공화주의적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9(2), 152–184.
- Arendt, H.(195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arber, R.(1984). *Strong democra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ewey, J.(1916/1944). *Democracy and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 Fishkin, J. S.(2009). *When the people speak: Deliberation democracy & public consul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iddens, A.(1998). *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한상진 · 박찬욱 (역)(2010). 제3의길. 서울: 생각의나무.
- Habermas, J.(1992). *Faktizität und geltung: Beiträge zur diskurstheorie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s*. 한상진 · 박영도(역)(2007). *사실성과 타당성: 담론적 법 이론과 민주주의적 법치국가 이론*. 서울: 나남.
- Lord, C. G., Ross, L., & Lepper, M. R.(1979). Biased assimilation and attitude polarization: The effects of prior theories on subsequently considered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11), 2098–2109.
- Rousseau, J. J.(1947/1961). *The Social contract*, New York: Hafner Publishing Co.
- Young, I. M.(1996). Communication and the other: beyond deliberative democracy. S. Benhabib(ed). *Democracy and difference: Contesting the boundaries of the political*(pp. 120–135).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I. 개발 자료 안내 및 활용법



교육 내용 체계화

본 자료집에서는 토의 · 토론 관련하여 ‘교육 내용 체계화’와 ‘교수 · 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교육 내용 체계화’는 토의 · 토론 학습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개발한 것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시한 과목을 위해 개발한 것이 아니다. ‘교육 내용 체계화’의 개발 틀은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문서 양식을 참고하였으며 특히 통합사회 교육과정 문서 양식을 차용하여 성격, 교육 목표, 교육 내용의 조직과 구성, 교수 · 학습방법과 평가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Ⅲ장에서 ‘교육 내용 체계화’ 자료를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단원 구성의 특성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대단원 1. 민주시민으로서 토의 · 토론의 필요’에서는 민주주의의 의미와 기본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특징을 고려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토의 · 토론이 필요한 이유를 학습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대단원 2. 민주 사회의 가치와 토의 · 토론 태도’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 토의 · 토론에 임할 때에 가져야 하는 가치와 태도를 토의 · 토론 절차와 연관하여 학습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대단원 3. 민주시민과 토의 · 토론 실천’에서는 시민으로서 다양한 의제에 대하여 실제로 토의 · 토론을 실천해 보는 것에 초점을 두고 ‘대단원 4. 토의 · 토론을 통한 시민 참여’에서는 사회 변화를 위해 토의 · 토론을 바탕으로 사회 참여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과정을 체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표 II-1〉 교육 내용 체계화

대단원명	핵심 질문	소단원명	성취기준	주요 학습 요소
1. 민주시민으로서 토의 · 토론의 필요	왜? 공동체 구성원인 민주시민에게 토의 · 토론은 중요한가?	(1) 민주시민의 의미와 토의 · 토론	<p>[12시토01-01] 역사적 사례, 문학 및 예술 작품 등을 통해 민주시민의 의미와 특성을 분석하고,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탐색한다.</p> <p>[12시토01-02]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주권자민과 자치 원리를 조사하여, 주권자로서 민주시민이 가져야 하는 가치와 태도를 바탕으로 한 토의 · 토론이 민주시민에게 중요한 이유를 주장한다.</p>	민주 사회, 민주시민, 주권자, 토의 · 토론, 주권재민, 자치, 민주시민의 가치와 태도
		(2) 현대 민주 사회와 토의 · 토론	<p>[12시토01-03] 다양성의 확산, 개인 및 집단 갈등 증가, 정치적 무관심의 증가 등 현대 민주社会의 특징을 다양한 사례와 통계 자료 등을 통해 분석한다.</p> <p>[12시토01-04] 우리 사회에서 토의 · 토론이 중요한 이유를 현대 민주社会의 특징과 관련지어 주장한다.</p>	다양성 존중, 갈등, 정치적 무관심, 현대 민주 사회

2 민주 사회의 가치와 토의·토론 태도	민주시민은 토의·토론에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1) 민주 사회의 가치를 고려한 토의·토론 태도	<p>[12시토02-01] 민주 사회의 가치인 존중, 자율, 연대의 의미를 일상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p> <p>[12시토02-02] 민주시민의 의미와 민주 사회의 가치를 고려하여, 차이와 다양성 인정 및 공감과 상호존중을 위한 토의·토론 태도와 규칙을 결정한다.</p>	민주 사회의 가치, 존중, 자율, 연대, 공감과 상호 존중, 경청, 설득, 차이와 다양성 인정, 합의, 토의·토론 태도와 규칙
		(2) 토의·토론 의제 선정과 자료 구성	<p>[12시토02-03] 민주 사회의 삶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토의·토론의 목적(공감과 이해, 의견 나눔, 합의, 논쟁 등)을 고려하여 토의·토론 의제를 선정한다.</p> <p>[12시토02-04] 민주 사회의 가치를 고려하여 토의·토론 의제에 맞는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토의·토론 절차에 맞게 정리한다.</p>	토의·토론 의제 선정, 공감과 이해를 위한 의제, 의견 나눔을 위한 의제, 합의를 위한 의제, 논쟁을 위한 의제, 토의·토론 자료, 신뢰성 있는 자료, 자료 조사, 자료 분석, 자료 정리
		(3) 토의·토론을 통한 민주적 문제 해결	<p>[12시토02-05] 토의·토론에서 나의 말하기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토의·토론 의제와 관련하여 타인이 공감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p> <p>[12시토02-06] 토의·토론에서 타인의 주장을 경청하는 나의 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토의·토론 의제와 관련하여 타인의 주장을 공감하면서 듣는다.</p>	주장 표현, 주장 분석, 주장 반박, 주장 공감, 경청, 합의, 협상, 조정, 중재, 의사 결정
			<p>[12시토02-07] 민주 사회의 가치를 고려하여 논리적 타당성 및 공감적 태도를 바탕으로 협상, 조정, 중재, 합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사소통한다.</p>	

		(1) 민주시민으로서 일상적 삶 관련 의제에 대해 토의 · 토론하기	[12시토03-01] 일상적 삶에 관한 토의 · 토론 의제를 선정하여, 관련 지식을 활용하고 민주사회의 가치와 토의 · 토론 태도를 적용하여 토의 · 토론한다.	일상적 삶과 관련한 의제
		(2) 민주시민으로서 학교 공동체 관련 의제에 대해 토의 · 토론하기	[12시토03-02] 학교에서의 삶과 관련한 토의 · 토론 의제를 선정하여, 관련 지식을 활용하고 민주사회의 가치와 토의 · 토론 태도를 적용하여 토의 · 토론한다.	학교 공동체, 학교 공동체 관련 의제, 학교 공동체 관련 토의 · 토론
3. 민주시민과 토의 · 토론 실천	민주시민은 무엇에 대하여 어떻게 토의 · 토론 하는가?	(3) 민주시민으로서 지역 사회 및 국가 관련 의제에 대해 토의 · 토론하기	[12시토03-03] 지역사회에서의 삶과 관련한 토의 · 토론 의제를 선정하여, 관련 지식을 활용하고 민주사회의 가치와 토의 · 토론 태도를 적용하여 토의 · 토론한다.	지역 사회 관련 주제로 토의 · 토론, 국가 관련 주제로 토의 · 토론
		(4) 민주시민으로서 세계 관련 의제에 대하여 토의 · 토론하기	[12시토03-05] 세계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토의 · 토론 의제를 선정하여, 관련 지식을 활용하고 민주사회의 가치와 토의 · 토론 태도를 적용하여 토의 · 토론한다.	세계적 측면의 주제, 세계적 측면의 주제와 관련한 토의 · 토론
4. 토의 · 토론을 통한 시민 참여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를 위해서 민주시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2시토04-01] 사회문제에 대하여 시민이 연대하여 시민참여로 사회를 변화시킨 사례를 분석하여, 구성원 간의 토의 · 토론을 바탕으로 하는 시민 참여의 의의와 필요성을 제시 한다. [12시토04-02] 우리 사회에서 개선해야 할 사회 문제를 정하여 토의 ·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행동 실천 방안을 결정하여 시민 참여를 실천하는 프로젝트를 행한다.	사회 문제 개선, 시민 참여, 시민 참여 프로젝트

2

교수·학습 자료

‘교수·학습자료’는 ‘교육 내용 체계화’에 기반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총 18개 성취기준 중에서 12개 성취기준에 대한 자료를 개발하였으며, 성취기준 1개 당 2차시 분량으로 총 24차시를 개발하였다. 각 자료는 차시 제목, 성취기준, 관련 교과 성취기준, 원격수업 활용 Tip, 생각 열기, 활동, 생각 정리하기, 평가기준, 참고 자료, 참고 문헌 순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시 제목’을 구성하였다. 차시 제목은 성취기준과 개발 자료를 집약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문장형, 질문형 등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둘째,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 해당 성취기준과 함께 기존 교과목의 성취기준을 1개 이상 제시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연계하여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원격수업 활용 Tip’이다. 본 자료가 대면수업 뿐 아니라 비대면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원격수업에서의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였다.

넷째, ‘생각 열기’이다. 수업 도입에 활용하는 활동으로 수업 주제와 연계하여 간단한 자료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활동’을 제시하였다. 2개 정도로 소제목을 제시하여 활동 1, 활동 2 자료로 구성하였다. 학습 내용으로 토의·토론방법을 익히는 경우에는 방법과 절차 등을 자세하게 다루었으며 예시 정답을 기입하여 활동 자료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여섯째, ‘생각 정리하기’이다. 학습한 내용에 대해 학생의 생각과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교사가 학생 활동을 평가할 때 활용하도록 하였다. 학생의 도달 정도를 상, 중, 하로 구분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루브릭 등의 평가도구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여덟째, ‘참고 자료’는 활동자료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교사들이 수업에서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제시하였다.

〈표 II-2〉 교수·학습 자료 개발 현황

대단원명	소단원명	성취기준	주요 학습 요소
1. 민주시민으로서 토의·토론의 필요	(1) 민주시민의 의미와 토의·토론	[12시토01-01] 역사적 사례, 문학 및 예술 작품 등을 통해 민주시민의 의미와 특성을 분석하고,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탐색한다.	2차시
		[12시토01-02]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주권재민과 자치 원리를 조사하여, 주권자로서 민주시민이 가져야 하는 가치와 태도를 바탕으로 한 토의·토론이 민주시민에게 중요한 이유를 주장한다.	2차시
	(2) 현대 민주 사회와 토의·토론	[12시토01-03] 다양성의 확산, 개인 및 집단 갈등 증가, 정치적 무관심의 증가 등 현대 민주사회의 특징을 다양한 사례와 통계 자료 등을 통해 분석한다.	2차시
		[12시토01-04] 우리 사회에서 토의·토론이 중요한 이유를 현대 민주사회의 특징과 관련지어 주장한다.	개발 안 함
2. 민주 사회의 가치와 토의·토론 태도	(1) 민주 사회의 가치를 고려한 토의·토론 태도	[12시토02-01] 민주 사회의 가치인 존중, 자율, 연대의 의미를 일상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개발 안 함
		[12시토02-02] 민주시민의 의미와 민주社会의 가치를 고려하여, 차이와 다양성 인정 및 공감과 상호 존중을 위한 토의·토론 태도와 규칙을 결정한다.	2차시
	(2) 토의·토론 의제 선정과 자료 구성	[12시토02-03] 민주 사회의 삶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토의·토론의 목적(공감과 이해, 의견 나눔, 합의, 논쟁 등)을 고려하여 토의·토론 의제를 선정한다.	2차시
		[12시토02-04] 민주 사회의 가치를 고려하여 토의·토론 의제에 맞는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토의·토론 절차에 맞게 정리한다.	2차시
	(3) 토의·토론을 통한 민주적 문제해결	[12시토02-05] 토의·토론에서 나의 말하기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토의·토론 의제와 관련하여 타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	2차시
		[12시토02-06] 토의·토론에서 타인의 주장을 경청하는 나의 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토의·토론 의제와 관련하여 타인의 주장을 공감하면서 듣는다.	2차시
		[12시토02-07] 민주 사회의 가치를 고려하여 논리적 타당성 및 공감적 태도를 바탕으로 협상, 조정, 중재, 합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사소통한다.	2차시

	(1) 민주시민으로서 일상적 삶 관련 의제에 대해 토의·토론하기	[12시토03-01] 일상적 삶에 관한 토의·토론 의제를 선정하여, 관련 지식을 활용하고 민주 사회의 가치와 토의·토론 태도를 적용하여 토의·토론한다.	개발 안 함
	(2) 민주시민으로서 학교 공동체 관련 의제에 대해 토의·토론하기	[12시토03-02] 학교에서의 삶과 관련한 토의·토론 의제를 선정하여, 관련 지식을 활용하고 민주 사회의 가치와 토의·토론 태도를 적용하여 토의·토론한다.	개발 안 함
3. 민주시민과 토의·토론 실천	(3) 민주시민으로서 지역 사회 및 국가 관련 의제에 대해 토의·토론하기	[12시토03-03] 지역 사회에서의 삶과 관련한 토의·토론 의제를 선정하여, 관련 지식을 활용하고 민주 사회의 가치와 토의·토론 태도를 적용하여 토의·토론한다.	2차시
		[12시토03-04] 국가에서의 삶과 관련한 토의·토론 의제를 선정하여, 관련 지식을 활용하고 민주사회의 가치와 토의·토론 태도를 적용하여 토의·토론한다.	2차시
	(4) 민주시민으로서 세계 관련 의제에 대하여 토의·토론하기	[12시토03-05] 세계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토의·토론 의제를 선정하여, 관련 지식을 활용하고 민주사회의 가치와 토의·토론 태도를 적용하여 토의·토론한다.	개발 안 함
4. 토의·토론을 통한 시민 참여		[12시토04-01] 사회 문제에 대하여 시민이 연대하여 시민 참여로 사회를 변화시킨 사례를 분석하여, 구성원 간의 토의·토론을 바탕으로 하는 시민 참여의 의의와 필요성을 제시한다.	개발 안 함
		[12시토04-02] 우리 사회에서 개선해야 할 사회 문제를 정하여 토의·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행동 실천 방안을 결정하여 시민 참여를 실천하는 프로젝트를 행한다.	2차시

III. 교육 내용 체계화



성격

「민주시민과 토의·토론」 수업에서는 학생 자신이 우리 사회의 주권적 행위자인 민주시민임을 이해하고, 다른 시민과 토의·토론을 통해 사회 현상을 탐구하거나 해결할 때 갖추어야 할 능력과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민주사회에 가치인 존중, 자율,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토의·토론의 필요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을 강조한다. 「민주시민과 토의·토론」은 단순히 민주시민과 토의·토론에 대한 개념과 지식 자체를 배우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과 토의·토론에 관한 지식, 기능, 태도를 통합하는 학습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계발하고 실천하는 것을 지향한다.

민주시민의 삶은 특정한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민주시민과 토의·토론」 수업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전 과목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특히 국어 교과에서는 말하기와 듣기 등과 같은 토의·토론의 기능, 사회/도덕 교과의 경우에는 민주주의 원리, 민주社会의 가치, 민주시민의 덕목 등을 고려한 민주시민의 역할과 관련하여 내용 연계성이 높다. ‘주권자’, ‘민주시민’, ‘민주 사회’, ‘토의·토론’, ‘토의·토론 의제’, ‘시민 참여’와 같은 주요 핵심개념을 다룬다.

「민주시민과 토의·토론」 수업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학습자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토의·토론 주제를 구성한다. 수업 방법에서도 다양한 토의·토론 수업 방법을 적용한다. 그리고 관찰, 의제 설정, 출처 확인, 자료 조사, 분석, 해석, 탐구와 성찰, 주장하기, 반박하기, 논증하기, 말하고 듣기, 공감하기, 합의하기, 비판하기 등의 토의·토론 관련 기능을 바탕으로 하는 프로젝트 학습, 사회 참여 체험 학습, 모의 학습 등의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내용 구성에서만이 아니라 수업 및 평가 등에서도 실제 사회 현상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 토의·토론하는 활동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게 한다.

「민주시민과 토의·토론」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공동체의 다양한 현상과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시민과 협력하여 합의적 의사소통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토의·토론과 관련한 민주시민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다.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통합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 결정 능력, 자기 존중 및 대인 관계 능력, 공동체적 역량, 의사소통 역량 등의 다양한 역량과 함께 자신과 타인의 의견에 대한 비판적 성찰, 타인의 의견에 대한 공감과 이성적 설득, 합의적 의사 결정, 사회 참여 등의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능력도 함양하도록 한다.



교육 목표

「민주시민과 토의·토론」 수업은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의 다양한 현상 및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타인과 공감하면서 의견을 조정하는 등 민주적 의사소통 과정인 토의·토론과 관련한 기초적 역량,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통합적 성격을 갖도록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를 강조한다.

- 가. 자신이 민주 사회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주권자임을 자각하고,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의 다양한 현상 및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 나. 공동체에 속한 자신과 타인 모두를 민주 사회의 동등한 주권자로서 존중해야 함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의 다양한 현상 및 문제에 대하여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기른다.
- 다.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사회의 다양한 현상 및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제를 설정하고 관련 자료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기른다.
- 라.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공감적이면서 설득적인 토의·토론을 통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해결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들이 주권자로서 서로 연대하여 참여하는 능력을 기른다.

교육 내용의 조직과 구성

1) 내용 체계

핵심 질문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핵심 기능
왜 공동체 구성원인 민주시민에게 토의 · 토론은 중요한가?	주권자/ 민주시민	주권자로서 민주시민은 토의 · 토론을 통해 상호 존중하며 소통한다.	민주시민, 민주 사회, 주권자, 주권재민, 자치, 존중, 공감, 소통	
민주시민은 토의 · 토론에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민주 사회/ 토의 · 토론	민주시민은 토의 · 토론에서 존중, 자율, 연대라는 민주 사회의 가치를 고려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존중, 자율, 연대, 민주 사회의 가치, 토의 · 토론 태도와 규칙, 쟁점 이해, 자기 주장, 경청과 공감, 협상, 조정, 중재, 합의	-질문하기 -주장하기 -공감하기 -비판하기 -합의하기 -결정하기 -참여하기
민주시민은 무엇에 대하여 어떻게 토의 · 토론 하는가?	민주 사회 의제	민주시민은 민주 사회의 다양한 의제에 대하여 토의 · 토론을 통해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일상적 의제, 지역 사회 의제, 국가적 의제, 세계적 의제, 공론화, 토의 · 토론을 통한 문제 해결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를 위해서 민주시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민 참여	민주시민이 토의 · 토론을 통해 시민 참여를 할 때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한다.	시민 참여, 시민 참여 프로젝트, 사회 변화	

2) 성취기준

[1. 민주시민으로서 토의·토론의 필요]

이 단원에서는 “왜 공동체 구성원인 민주시민에게 토의·토론은 중요한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민주시민의 의미와 특징을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주권재민과 자치의 원리, 그리고 다양성의 확산, 개인 및 집단의 갈등 증가, 정치적 무관심의 증가 등 현대사회의 특징을 분석하여 민주시민에게 토의·토론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임을 제안할 수 있다.

(1) 민주시민의 의미와 토의·토론

[12시토01-01] 역사적 사례, 문학 및 예술 작품 등을 통해 민주시민의 의미와 특성을 분석하고,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탐색한다.

[12시토01-02]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주권재민과 자치 원리를 조사하여, 주권자로서 민주시민이 가져야 하는 가치와 태도를 바탕으로 한 토의·토론이 민주시민에게 중요한 이유를 주장한다.

주요 학습 요소

민주 사회, 민주시민, 주권자, 토의·토론, 주권재민, 자치, 민주시민의 가치와 태도

[탐구, 토의·토론, 논술, 프로젝트 활동 관련 주제 질문 예시]

- 왜 민주시민에 대하여 학습해야 하는가?
- 고대 그리스의 자유민, 시민 혁명 이후 시민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긴 민주시민의 가치와 태도는?
-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공론화를 통한 의사 결정은 민주주의의 어떤 가치와 관련이 있는가?
- 민주주의에서 포퓰리즘은 왜 문제인가?
- 민주 사회의 주권자로서 갖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는?

(2) 현대 민주 사회와 토의 · 토론

[12시토01-03] 다양성의 확산, 개인 및 집단 갈등 증가, 정치적 무관심의 증가 등 현대 민주 사회의 특징을 다양한 사례와 통계 자료 등을 통해 분석한다.

[12시토01-04] 우리 사회에서 토의 · 토론이 중요한 이유를 현대 민주 사회의 특징과 관련지어 주장한다.

주요 학습 요소

다양성 존중, 갈등, 정치적 무관심, 현대 민주 사회

[탐구, 토의 · 토론, 논술, 프로젝트 활동 관련 주제 질문 예시]

- 다양성과 갈등이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 강조해야 할 민주적 가치는 무엇일까?
-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적 갈등 중 어떤 것이 사회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
- 현대 사회에서 집단지성을 통해 공동체의 일을 결정하는 일이 필요한 이유는?
- 밀의 자유론과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를 고려할 때 민주 사회에서 토의 · 토론이 필요한 이유는?
- 시민은 어떻게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정당은 민주주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 민주시민으로서 비판적 정신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는?

[2. 민주 사회의 가치와 토의 · 토론 태도]

이 단원에서는 “민주시민은 토의 · 토론에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민주 사회의 가치인 존중, 자율, 연대를 바탕으로 토의 · 토론 의제의 설정, 신뢰성과 논리성을 갖춘 자료의 구성,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고 타인의 주장에 공감하며 경청하는 방법, 타인의 주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등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다. 더불어 학습자는 민주 사회의 가치를 바탕으로 협상, 조정, 합의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다.

(1) 민주 사회의 가치를 고려한 토의·토론 태도

[12시토02-01] 민주 사회의 가치인 존중, 자율, 연대의 의미를 일상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12시토02-02] 민주시민의 의미와 민주 사회의 가치를 고려하여, 차이와 다양성 인정 및 공감과 상호 존중을 위한 토의·토론 태도와 규칙을 결정한다.

주요 학습 요소

민주 사회의 가치, 존중, 자율, 연대, 공감과 상호 존중, 경청, 설득, 차이와 다양성 인정, 합의, 토의·토론 태도와 규칙

[탐구, 토의·토론, 논술, 프로젝트 활동 관련 주제 질문 예시]

- 민주시민으로서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토의·토론에서 선입견, 편견, 고정 관념은 왜 문제일까?)
- 토의·토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토의·토론에서 사회적 약자를 비난하는 논의(혐오 표현 포함)는 왜 문제인가?)
- 민주시민으로서 댓글을 달 때 필요한 태도는?
- 토의·토론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하기 위한 태도는?
- 토의·토론에서 구성원 모두가 공정하게 참여하기 위한 규칙은?
- 독일의 민주시민 간 합의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보이텔스바흐 합의란?

(2) 토의·토론 의제 선정과 자료 구성

[12시토02-03] 민주 사회의 삶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토의·토론의 목적(공감과 이해, 의견 나눔, 합의, 논쟁 등)을 고려하여 토의·토론 의제를 선정한다.

[12시토02-04] 민주 사회의 가치를 고려하여 토의·토론 의제에 맞는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토의·토론 절차에 맞게 정리한다.

주요 학습 요소

토의 · 토론 의제 설정, 공감과 이해를 위한 의제, 의견 나눔을 위한 의제, 합의를 위한 의제, 논쟁을 위한 의제, 토의 · 토론 자료, 신뢰성 있는 자료, 자료 조사, 자료 분석, 자료 정리

[탐구, 토의 · 토론, 논술, 프로젝트 활동 관련 주제 질문 예시]

-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보는 어떻게 권력이 되는가?
- 토의 · 토론에서 자료의 출처 및 의도의 파악은 왜 중요한가?
- 토의 · 토론 의제에 맞는 자료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방법은?
- 토의 · 토론 의제와 관련하여 내 주장을 위해 논리적 자료를 구성하는 방법은?
- 잘못된 정보가 민주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던 사례는?
- 미디어(뉴스나 광고) 자료에 나타난 편견이나 고정 관념은 왜 문제인가?
- 하나의 관점을 정하고 논리적 정당화를 위한 자료를 구성하는 방법은?
- 인터넷에서 안전하게 자료를 찾는 방법은?
-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판별하는 방법은?

(3) 토의 · 토론을 통한 민주적 문제 해결

[12시토02-05] 토의 · 토론에서 나의 말하기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토의 · 토론 의제와 관련하여 타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

[12시토02-06] 토의 · 토론에서 타인의 주장을 경청하는 나의 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토의 · 토론 의제와 관련하여 타인의 주장을 공감하면서 듣는다.

[12시토02-07] 민주 사회의 가치를 고려하여 논리적 타당성 및 공감적 태도를 바탕으로 협상, 조정, 중재, 합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사소통한다.

주요 학습 요소

주장 표현, 주장 분석, 주장 반박, 주장 공감, 경청, 합의, 협상, 조정, 중재, 의사 결정

[탐구, 토의 · 토론, 논술, 프로젝트 활동 관련 주제 질문 예시]

- 타인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논리적 설득 전략이 있을까?
- 타인의 주장에 공감하면서 듣기 위해 필요한 태도는?
-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는 주장은 어떻게 할까?
- 토의 · 토론의 결정에서 사익과 함께 공익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 토의 · 토론에서 결정이나 합의를 할 때,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우선하는 방안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결정을 할 때 민주 사회에 가져올 부작용은?

[3. 민주시민과 토의·토론 실천]

이 단원에서는 “민주시민은 무엇에 대하여 어떻게 토의·토론하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개인적 삶, 학교와 관련한 삶, 지역 사회 또는 국가와 관련한 삶, 세계와 관련한 삶 등 자신의 일상과 관련한 의제에 대하여 민주 사회의 가치를 적용하여 토의·토론을 할 수 있다.

(1) 민주시민으로서 일상적 삶 관련 의제에 대해 토의·토론하기

[12시토03-01] 일상적 삶에 관한 토의·토론 의제를 선정하여, 관련 지식을 활용하고 민주 사회의 가치와 토의·토론 태도를 적용하여 토의·토론한다.

주요 학습 요소

일상적 삶에 관한 의제

[탐구, 토의·토론, 논술, 프로젝트 활동 관련 주제 질문 예시]

- 현대인에게 핸드폰 없는 일상이 가능한가?
- 사람들의 여가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 여가 시간에 봉사활동을 해야 할까?
- 나 자신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안은?
-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은?
- 신화, 동화, 문학 작품, 미술 작품 등에 나타난 인간의 선과 악을 살펴 본다면?

(2) 민주시민으로서 학교 공동체 관련 의제에 대해 토의·토론하기

[12시토03-02] 학교에서의 삶과 관련한 토의·토론 의제를 선정하여, 관련 지식을 활용하고 민주 사회의 가치와 토의·토론 태도를 적용하여 토의·토론한다.

주요 학습 요소

학교 공동체, 학교 공동체와 관련 의제, 학교 공동체와 관련한 토의 · 토론

[탐구, 토의 · 토론, 논술, 프로젝트 활동 관련 주제 질문 예시]

- 학교 수업에서 모둠별 활동은 민주시민의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 학교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학생이 함께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 학생 자치 기구에서 결정한 내용을 학교는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
- 학교 안에서의 차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평등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학생이 잘못한 일에 대해 부모는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 것일까?
- 학교에서의 학생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
- 우리 학교에서 안전을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안전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행동 수칙 정하기)

(3) 민주시민으로서 지역 사회 및 국가 관련 의제에 대해 토의 · 토론하기

[12시토03-03] 지역 사회에서의 삶과 관련한 토의 · 토론 의제를 선정하여, 관련 지식을 활용하고 민주 사회의 가치와 토의 · 토론 태도를 적용하여 토의 · 토론한다.

[12시토03-04] 국가에서의 삶과 관련한 토의 · 토론 의제를 선정하여, 관련 지식을 활용하고 민주 사회의 가치와 토의 · 토론 태도를 적용하여 토의 · 토론한다.

주요 학습 요소

지역 사회 관련한 주제로 토의 · 토론, 국가와 관련한 주제로 토의 · 토론

[탐구, 토의 · 토론, 논술, 프로젝트 활동 관련 주제 질문 예시]

- 민주 사회에서 미디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 예술 작품을 재산 가치로 소장해야 하는가? 대중적 예술 가치로 공개해야 하는가?
-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해결 방안은?
- 거주지 차별 문제와 해결 방안은?
- 의료 사각지대 문제와 해결 방안은?
- 건강 불평등 문제와 해결 방안은?
- 미세먼지 문제와 해결 방안은?
- 플라스틱 등 화학물질로 인한 문제와 해결 방안은?

(4) 민주시민으로서 세계 관련 의제에 대하여 토의·토론하기

[12시토03-05] 세계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토의·토론 의제를 선정하여, 관련 지식을 활용하고 민주 사회의 가치와 토의·토론 태도를 적용하여 토의·토론한다.

주요 학습 요소

세계적 측면의 주제와 관련한 토의·토론

[탐구, 토의·토론, 논술, 프로젝트 활동 관련 주제 질문 예시]

-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덕은 무엇인가?
- 난민, 이주민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무엇인가?
- 국제연합(UN)은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황사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분담금 문제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 생물의 피해, 자연 훼손으로 인한 기후 이상 등 자연의 반격에 대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인가?

[4. 토의·토론을 통한 시민 참여]

이 단원에서는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를 위해서 민주시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모둠이나 학급 전체가 한 팀을 이루어 토의·토론을 통해 사회 문제를 정하고 그에 대한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캠페인, 정책 제안 등의 시민 참여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것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우리 사회의 사회 문제에 대하여 토의·토론을 바탕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시민 참여를 실천할 수 있다.

[12시토04-01] 사회 문제에 대하여 시민이 연대하여 시민 참여로 사회를 변화시킨 사례를 분석하여, 구성원 간의 토의·토론을 바탕으로 하는 시민 참여의 의의와 필요성을 제시한다.

[12시토04-02] 우리 사회에서 개선해야 할 사회 문제를 정하여 토의·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행동 실천 방안을 결정하여 시민 참여를 실천하는 프로젝트를 행한다.

사회 문제 개선, 시민 참여, 시민 참여 프로젝트

[프로젝트 활동 관련 주제 예시]

- 학교 폐기물 관리 현장 만들기 프로젝트
- 우리 지역 문화재 보호 프로젝트
- 책임 있는 소비 생활 프로젝트
- 생태계 보호 실천 프로젝트
- 우리나라 미디어(신문, TV뉴스, 유튜브 등)에 대한 신뢰성 평가 프로젝트
-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는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방안 프로젝트
-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청원(국회, 정부, 국제기구 등) 프로젝트
- 다양한 NGO 활동 프로젝트

4

교수 · 학습 방법과 평가

1) 교수 · 학습 방향

「민주시민과 토의 · 토론」 수업에서는 민주시민의 의미와 민주 사회의 가치, 그리고 토의 · 토론의 특성이 연계됨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 사회의 가치를 고려한 토의 · 토론의 절차와 태도를 적용하여 실제로 민주시민으로서 토의 · 토론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서 학습자 간 공감적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발표, 탐구, 토의 · 토론, 프로젝트 등 학생 중심 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교수 · 학습 방법을 제공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한다.

(1)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과의 내용과 연계되도록 지도한다.

- (2) 민주시민에 관한 이해, 토의·토론과 관련한 지식과 정보를 다루되, 학생들이 토의·토론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3) 제시한 성취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수업을 해도 되고, 성취기준 간의 결합을 통해 수업을 재구성해도 되며, 성취기준 일부만으로 수업을 운영해도 된다. 더불어 수업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할 토의·토론 주제와 의제는 제시된 예시 이외에 모든 교과의 수업 내용에서 추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4) 학생들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토의·토론 상황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민주시민의 가치인 존중, 자율, 연대의 의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 간에 자기 주장하기, 짹 토론 및 2인 토의·토론, 4인 토의·토론 등의 모둠 활동, 다양한 토의·토론 수업 모형, 그리고 협동 학습 수업 모형 등을 적용하여 지도한다.
- (5) 학생들이 민주 사회의 가치를 토대로 시민 참여를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지도 방안을 모색한다.
- (6) ‘민주시민’ 및 ‘토의·토론’ 관련 내용 이해를 위해 텍스트 자료, 미디어 자료, 그림책 등 다양한 도서, 문학, 음악, 미술 등의 다양한 예술 자료 등을 활용하여 쓰기, 읽기, 말하기 등 다양한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7) 토의·토론 학습만이 아니라 탐구 학습, 현장 답사와 체험학습, 사례 조사 학습, 시뮬레이션 학습, 프로젝트 학습, 역할극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전략을 활용하여 지도한다.
- (8) 학생들이 토의·토론을 학습하고 실천하는 과정에 학교 분위기와 문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 운영 등에서 학생들이 토의·토론하여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학교 운영에 학생 참여를 권장하는 민주적 학교 문화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한다.

2) 평가 방향

「민주시민과 토의·토론」에서 강조하는 민주 사회의 가치와 시민적 역량, 그리고 토의·토론의 절차와 태도에 대한 이해, 토의·토론 의제와 관련한 내용 요소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이 토의·토론에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평가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

- (1) 민주시민으로서 민주 사회의 가치인 존중, 자율, 연대의 의미를 고려하여 학생과 토의 · 토론 하여 함께 평가 계획을 세우는 방안을 모색하고, 평가를 할 때에도 교사 평가와 더불어 학생의 자기 평가, 동료 평가를 활용한다.
- (2)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구체적인 토의 · 토론 의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스피치, 글쓰기, 체크리스트, 논술, 발표, 보고서, 역할극,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결과물 등을 대상으로 한 평가를 계획하여 활용한다.
- (3) 교수 · 학습과 평가를 통합함으로써 학생의 학습 과정에 초점을 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관찰법, 포트폴리오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단순한 지식 습득 여부보다는 민주 사회의 가치를 반영한 토의 · 토론 참여와 실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 (4) 다른 교과나 과목의 성취기준을 통합하여 수업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학습 목표, 교수 · 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 안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시의적절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과정 중심 평가를 지향한다.
- (5) 학습 과정과 결과를 함께 평가하되 평가 계획 수립, 평가 문항과 도구 개발, 평가의 시행, 평가 결과의 처리, 평가 결과의 활용 등의 절차에 따라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평가한다.

3) 원격수업에서의 토의 ·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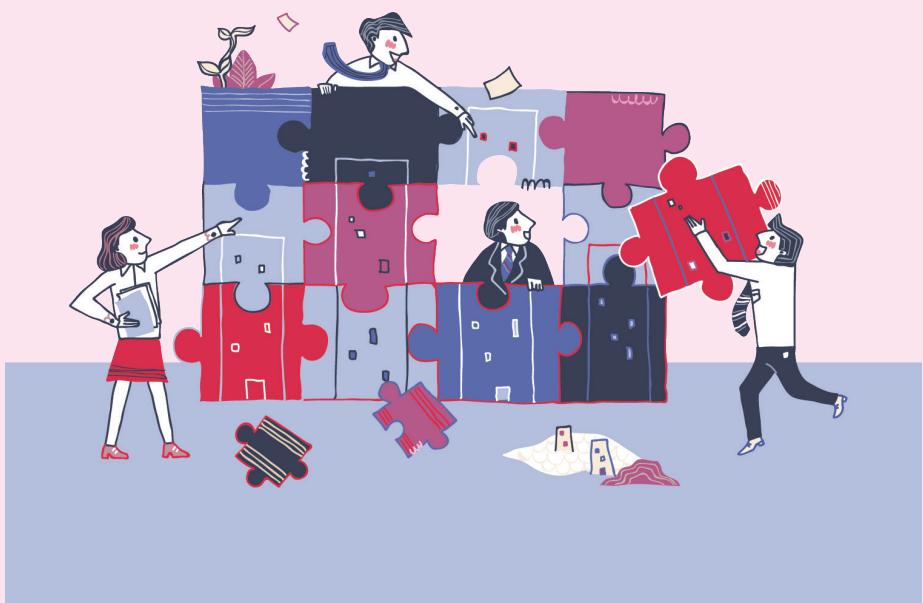
온라인 환경의 발전과 더불어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원격 토론을 할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원격수업에서 토론을 할 때, 민주시민으로서 슬기롭게 토론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 (1) 원격 토론은 가능한 소집단을 구성하여 토론해야 하며, 5명 이하가 적합하다. 토론 참여자의 수가 많아지면 발언하는 참여자 이외 다수의 참여자가 참관자가 될 수 있고 심하면 토론 자체를 방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 (2) 모둠별로 토론 사회자를 정해야 한다. 교실에서 대면 토론을 할 경우에는 모둠별로 토론의 맥락을 고려하여 사회자 없이도 자율적으로 토론할 수 있지만 원격 토론에서는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최소한 토론 순서를 지정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자가 필요하다.

- (3)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세부 규칙을 미리 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원격 토론을 동영상 등으로 하는 경우에 손동작을 활용하여 발표 제안이나 동의 또는 반대 의사를 상대방이 명확하게 알도록 표현하는 방법을 합의하는 등의 세부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 (4)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모둠원들 모두 토론 주제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그 안에서만 토론을 진행하여 토론 범위가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토론 문제와 세부 사항, 그리고 관련 자료 등은 파일 등의 자료로 만들어 사회자에게 안내하고, 사회자가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시간을 고려하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도 좋다.
- (5) 원격 토론이 이루어지고 나서 글쓰기 등의 방법을 활용한 정리가 필요하다. 즉 원격 토론 참여 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견을 정리하여 토론 참여자들이 공유한다. 이를 통해 토론의 결과를 성찰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태도 등도 성찰할 수 있도록 정리하게 하면 된다.



IV. 교수 · 학습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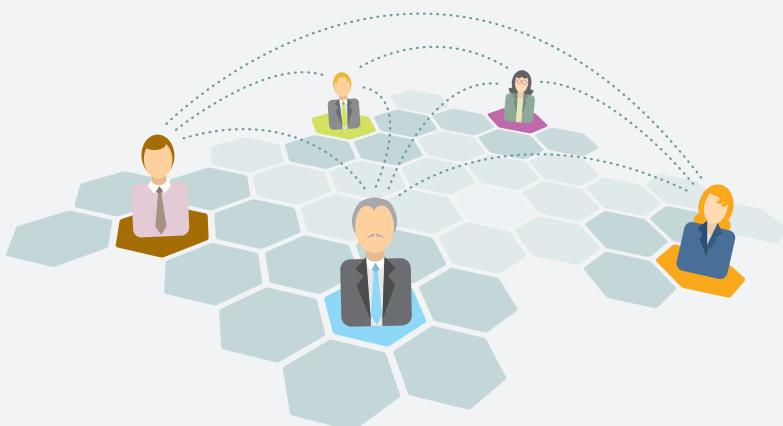
민주시민으로서 토의 · 토론의 필요

① 민주시민은 어떤 사람일까?

성취기준	[12시토01-01] 역사적 사례, 문학 및 예술 작품 등을 통해 민주시민의 의미와 특성을 분석하고,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탐색한다.
관련 교과 성취기준	[12세사04-04] 시민 혁명과 국민 국가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산업 혁명의 세계사적 의미를 해석한다. [12정법03-01] 민주 국가의 정치 과정을 분석하고, 시민의 정치 참여의 의의와 유형을 탐구한다.

원격수업 활용 Tip

1. 주어진 자료를 PDF로 전환하여 학생들에게 읽게 한 후(또는 등교수업 시 학습지 형태로 제공한 후 읽게 할 수 있음) 활동을 하도록 한다.
2. 49쪽 활동 2는 그림책 읽기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보여줄 수 있다.
3. 51쪽 활동 1은 영화 '서프러제트'를 편집하여 일부를 보여주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할 수 있다.
4. 52쪽 활동 2는 짹 토의방(또는 회의실)을 만들어 토의를 진행한 후,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생각열기

다음 자료는 ‘민주시민’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학생 갑~병이 각각 쓴 것이다. 질문에 답해 봅시다. ²⁾



(1) 갑이 주권자와 선거권을 쓴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민주시민은 주권자로서 선거권을 가지고 정치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2) 을이 존중과 토론을 쓴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민주시민은 타인을 존중하고 대화와 설득의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3) 병이 시민 단체와 투표를 쓴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민주시민은 투표를 통해 대표를 뽑고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2) 학생들에게 ‘민주시민’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포스트잇에 쓰도록 하고 이를 칠판에 붙인 후 해당 단어를 쓴 이유를 말하게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각 단어들을 민주시민의 의미, 특성, 역할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민주시민의 의미와 특성 및 역할을 생각하게 할 수 있다.

1. 민주시민의 의미와 특성 파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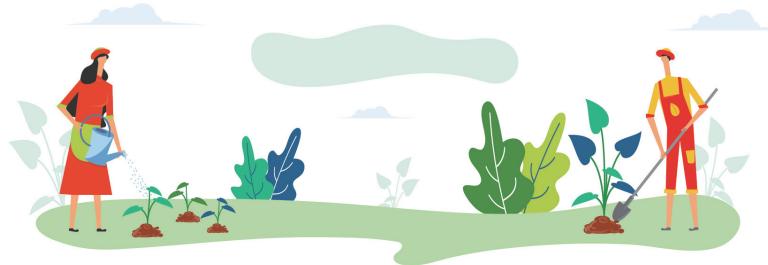


활동 1

(가), (나)를 읽고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봅시다.

(가) 아테네 민주 정치의 중심은 모든 ⑦시민이 참여하는 민회였다. 시민들은 민회를 열어 국가의 법을 제정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민회에서는 매년 국가의 주요 행정관과 시민 법정의 배심원을 선정하였는데, 장군과 같은 몇몇 관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관직을 선출하면서 모든 시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첨제, 윤번제, 중임 제한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였다. …(중략)… 아테네의 민주 정치는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동일시하며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범적인 시민상을 보여 주었다.

출처: 박영경 외(2014). 고등학교 법과 정치. 비상교육.



(나) 상공업자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힘을 바탕으로 서서히 정치적인 권한의 확장까지 꿈꾸게 되었다. 당시의 상공업자들은 막대한 자본을 거두어 세금을 납부하고 황제에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노동자나 농민과 마찬가지로 가장 밑바닥에 머물러 있었으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이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정치적인 권리의 획득을 꾀한 것이다. 결국 이들은 시민 혁명을 통해 절대 왕정의 횡포를 뚫고 스스로 ⑨시민이 되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이들에 의해 주도된 시민 혁명은 노동자, 농민, 빈민은 물론 여성과 중산층을 소외시킨 채 전개되고 말았다. 하지만 역사는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었다. 시민 혁명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이들이 스스로의 정치 참여 권리 위해 지속적으로 싸움을 전개하였다.

출처: 이종학(2005). 내 손으로 경작하는 민주주의. 푸른길.

(1) (가)의 ⑦이 행한 역할을 토대로 공동체 내에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권리를 20자 내외로 서술해 봅시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었다.

(2) (나)의 ⑦이 의미하는 바를 간략히 서술해 봅시다.(단, (나)에 나오는 권리를 반드시 포함할 것)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다.

(3) (1), (2)의 논의를 토대로 ‘민주시민’을 정의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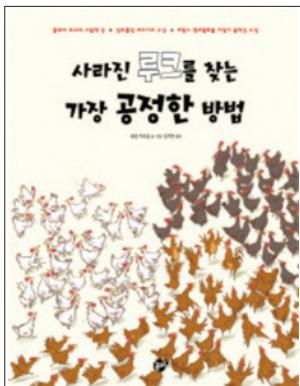
민주시민은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공의 의사 결정 과정, 즉 정치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다.





활동 2

제시된 책의 줄거리 일부를 읽고, 민주시민의 특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주인공은 닭들이다. 어느 날 아침, 흰색 수탉 루크가 사라진다. 붉은색 수탉 노아도 함께 보이지 않는다. 남은 암탉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다. 그리고 사라진 수탉들의 행방에 관한 가설들이 떠돈다. 어느 흰색 암탉이 단호하게 말한다. “여우가 범인이야! 어제 먹이를 찾아 해매는 모습을 봤어!” ⑧두 수탉이 여우에게 잡혀갔다는 ‘추정’은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흰색과 붉은색 암탉, 그리고 검은색 닭들은 한데 모여 ‘의회’를 연다. 재미있는 것은 ⑨사라진 닭이 없음에도 검은색 닭들도 참석했다. 밤새 보초를 서자는 의견, 무기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 울타리를 고치거나 몇을 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중구난방 나온다.

그때 ⑩검은색 수탉 한 마리가 나서 닭들이 수적으로 우세하니 여우를 먼저 공격하자고 제안한다. 선제공격에는 의견이 모였지만, 이제 공격 대형에 관해 다시 의견이 갈린다. 흰색, 검은색, 붉은색 부대로 나누자는 의견, 색깔별로 일렬종대로 서자는 의견, 색과 상관없이 서자는 의견이 오간다.

닭들은 사라진 루크의 ⑪아내 올리브의 의견에 귀 기울인다. ⑫오랜 고민 끝에 닭들은 일렬종대로 공평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올리브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 “⑬단합은 날개 색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야. 색과 상관없이, 무리와 상관없이 서로 합쳐지는 것이지!”

드디어 루크를 찾으러 가기 위한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졌다. 두 날개를 불끈 쥐고 커다란 합성을 지르며 닭들은 보무도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간다. 흰색 닭과 검은색 닭, 붉은색 닭의 목표는 오직 하나! ⑭사라진 루크와 노아를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한 마음 한뜻으로 전진할 뿐이다. 앞으로, 앞으로…….

그런데 씩씩하게 나아가던 닭들이 갑자기 멈춰 선다. 멈칫하면서 몹시도 놀란 표정을 하고 있는 닭들, 도대체 이들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오직 루크와 노아를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뭉쳤던 이들의 행진을 막은 것은 무엇일까? ⑮마지막 남은 반전이 기다린다.

출처: 경향신문(2018. 7. 6.). 민주주의·페미니즘·가짜뉴스에 관한 신랄한 우화.
(인터넷 기사 검색일: 2020. 2. 1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062102025&code=960205 일부 내용을 수정함

(1) 위에 나오는 닉들을 민주시민에 비유한 후, ①~⑩이 의미하는 민주시민의 특성을 말해 봅시다.

Ⓐ	공동체 일에 관심을 갖는다.
Ⓑ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은다.
Ⓒ	다른 사람의 주장을 경청하고 존중한다.
Ⓓ	심사숙고하여 말을 한다.
Ⓔ	다르지만 차별하지 않고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
Ⓕ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⑤를 토대로 ⑥의 내용을 추론하여 줄거리를 자유롭게 완성해 봅시다.

루크와 노아는 여우에게 잡혀 간 것이 아니라 외부에 나가 노래를 들으면서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

(3) (2)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민주시민’이 가져야 할 태도를 말해 봅시다.

가짜 뉴스 혹은 정체불명의 소문에 쉽게 휘둘리지 말고 비판적으로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을 기른다.

(4) (1)~(3)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아래의 네모 안에 들어갈 단어를 써 보고, 그렇게 쓴 이유를 짹에게 얘기해 봅시다.

민주시민은 참여자이다. 왜냐하면 공동체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통해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서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2. 민주시민의 역할 파악하기



활동 1

다음에 제시된 영화 '서프러제트'에 대한 소개 글을 읽고, 시민의 역할을 생각해 봅시다.

평범한 여성 모드와치는 여성 참정권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었지만 우연한 계기로 자신의 동료 대신 국회에서 여성 참정권을 위한 증언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모드는 자신이 살아온 차별적인 대우에 대해 자각하게 된다. 모든 이들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권력이 있는 자만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모드와치는 그 후 서프러제트 활동을 시작하지만 돌아온 것은 계속된 좌절과 감옥 생활, 그리고 가정의 파괴였다. 참정권뿐만 아니라 그 시대 여성에게는 양육권도 보장되지 않아 모드와치는 자신의 아들이 입양되는 것을 강제로 지켜봐야만 했고 임금차별로 인해 사회적으로 자립할 기회조차 없었다.

하지만 모드와치를 포함한 여성들은 좌절하지 않고 모두에게 경제적,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는 환경을 위해 끝까지 싸웠다. 더 나아가 서프러제트들은 국왕이 참가하는 경마 대회에서도 서프러제트 운동을 벌일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계획이 실패하려 하자 한 서프러제트가 달리는 말에 뛰어들어 희생된 후에야 서프러제트는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의 추모 행렬 속에서 영화는 끝난다. 결국 여성들의 많은 희생이 있고 난 후인 20세기가 되어서야 평등한 선거는 이뤄지게 되었다.

서프러제트: 20세기 초 영국에서 참정권 운동을 벌인 여성들을 지칭하는 용어
출처: 네이버 블로그. 민주주의 이야기(영화 '서프러제트'로 보는 참정권의 중요성).
(인터넷 검색일: 2020. 2. 19.). <http://blog.naver.com/nec1963/221505578309>

- (1) 영화 '서프러제트'의 주인공 모드와치가 살았을 당시에 영국의 상황을 위의 자료에서 찾아 써 봅시다.

여성에게 참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었다.

- (2) 주인공 모드와치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얻고자 했던 권리는 무엇이며, 그러한 권리가 민주시민에게 중요한 이유를 서술해 봅시다.

참정권이다. 참정권이 보장될 때 사람들은 자신들을 대표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자들을 선출하고 이들을 통해 자신들의 권익을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정권이야말로 정치 과정에 대한 민주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 (3) ‘주인공 모드와치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에 대하여 짹과 토의한 후 그 이유를 간략히 서술해 봅시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즉 민주시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여성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활동 2

다음 글을 읽고 숙의 민주주의와 관련한 시민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나도 원자력 분야에서 일했는데 일반 시민들의 질문 수준이 전문가 뺨칠 정도로 높아 깜짝 놀랐다.”

“의미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결론이 나더라도 수용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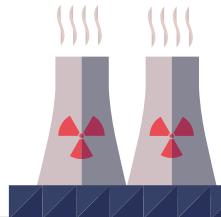
신고리 5·6호기 원자력 발전소 공사 중단 여부를 놓고 2박 3일간의 합숙토론을 마친 시민대표 참여단의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다. 사흘 동안 10시간의 학습·토론을 거친 뒤 4차 최종 의견조사까지 마친 시민참여단 471명은 ‘시민대표’로서의 임무를 완료했다. …(중략)…

숙의 과정이 시민참여단의 생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시민참여단은 이번에 4개로 나눠진 세션마다 전문가 발표를 들은 뒤 10여 명씩 48개 조로 나뉘어 분임토의를 했다.

각각 전문가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 뒤 마지막으로 전문가에게 던질 질문을 만들었다. 분임토의 진행을 맡은 모더레이터 A씨는 “세션별 토의 등 숙의를 거듭하면서 의견이 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 더 강화되거나 여전히 잘 모르겠다고 하는 참여자도 있었다.”라면서도 “하지만 정부의 중대한 결정을 돋는 것이니 최종 조사에서는 기권하지 않고 어느 쪽이든 의견을 밝히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의를 할수록 자기주장에 대한 근거가 한두 개에서 여러 개로 늘어가고 생각이 왜 바뀌었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을 봤다.”라고 덧붙였다. B씨는 “(합숙에 올 때) 어느 쪽으로 결정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숙의 과정을 통해 생각이 바뀌었다”라며 “전문가와 함께한 질의응답의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말했다. 반면 C씨는 “원래 가졌던 생각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됐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공론화위는 조사 결과 분석 및 권고안 작성은 마치고 20일이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권고안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신고리 5·6호기의 영구중단 여부를 결론짓는다.

모더레이터: 회의나 토론 석상에서 사회를 담당하는 사람
출처: 한겨레신문(2017. 10. 15.), “2박 3일 합숙 뒤 생각 바뀌어”…“471명 숙의 과정 감동”.
(인터넷 기사 검색일: 2020. 2. 1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4597.html



(1) 위 사례에서 시민 참여단이 행한 역할을 서술해 봅시다.

신고리 5·6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영구 중단 여부의 정부 정책에 대한 권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위 사례에 따르면 시민 참여단은 결론 도출을 위해 어떠한 과정을 밟았는지 서술해 봅시다.

공공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는 과정을 밟았으며, 전문가와 질의·응답을 통해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3) 위에 나타난 숙의 민주주의가 갖는 장단점을 말해 봅시다.

숙의 민주주의는 정책 결정권자의 독단적인 결정을 시민들이 견제할 수 있으며, 토의·토론 과정을 통해 이해와 공감이 만들어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의 민주주의를 손상할 수 있으며, 국가 정책이 국민 공론에 지나치게 휘둘릴 수 있어 자칫 파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4) 위에 나타난 숙의 민주주의의 확대 여부에 대해 짹과 토의한 후, 짹의 생각을 간략히 서술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짬
(의 생각)

.....
.....
.....
.....
.....
.....
.....
.....



나의 생각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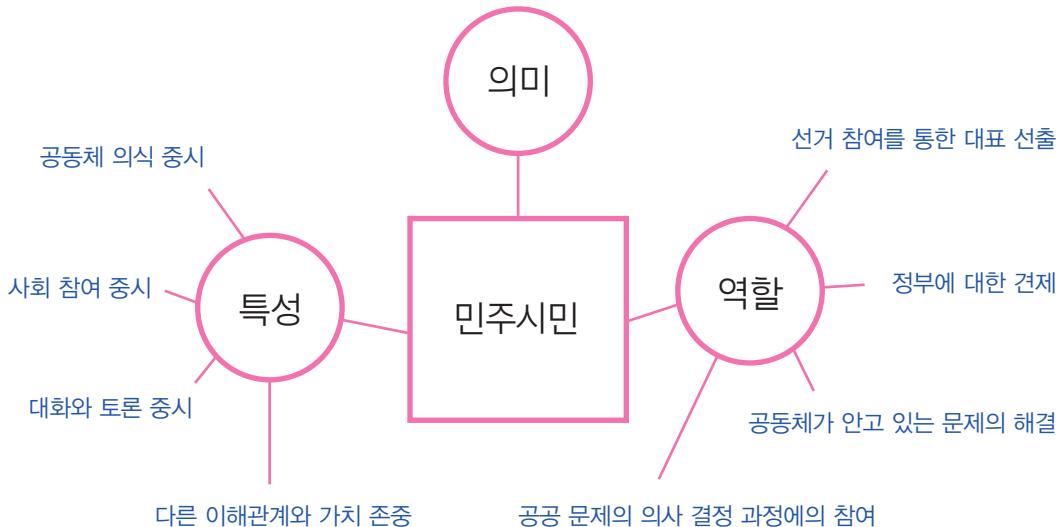
숙의 민주주의: 숙의(熟議)란 여러 사람이 특정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는 과정을 말한다. 숙의 민주주의는 공공 의제에 관한 토론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민주적 절차를 의미한다.



생각 정리하기

위의 활동을 토대로 민주시민의 의미, 특성, 역할 등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해 봅시다.

민주시민의 의미: 주권자로서 민주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공공의 의사 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평가기준

역사적 사례, 문학 및 예술 작품 등을 통해 민주시민의 의미와 특성을 분석하고,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탐색한다.

상	역사적 사례, 문학 및 예술 작품 등을 토대로 민주시민의 의미와 특성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지어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탐색한 후 이를 다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
중	역사적 사례, 문학 및 예술 작품 등의 분석을 통해 민주시민의 의미와 특성 및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파악할 수 있다.
하	민주시민의 의미와 특성 및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개구리들의 임금님」『이솝우화』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지도자가 없다는 사실에 권태 기를 느낀 개구리들이 제우스에게 지도자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자, 개구리들의 어리석음에 실망한 제우스는 나무토막을 연못에 던졌다. 개구리들은 처음에는 나무토막을 지도자로 섬겼으나,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는 사실을 깨닫고는 살아있는 지도자를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지친 제우스는 천적을 그들의 지도자로 보냈으며, 이후 그 연못에 있는 개구리들은 다시는 볼 수 없었다. 그야말로 자업자득의 사례. 이 우화의 결말은 뱀 베전과 황새 베전으로 나뉘어 있으며, 대부분의 출판사에선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황새는 처음에는 개구리들의 최대의 천적인 뱀들을 잡아먹어서 개구리들에게 우리 임금님 최고 소리를 들었지만, 그 직후엔 개구리들도 하나둘씩 잡아먹었다.

출처: 나무위키. 개구리들의 임금님. (인터넷 검색일: 2020. 2. 19.).
<https://namu.wiki/w/%EA%B0%9C%EA%B5%AC%EB%A6%AC%EB%93%A4%EC%9D%98%20%EC%9E%84%EA%B8%88%EB%8B%98>

■ 펠로폰네소스 전쟁 전사를 위한 페리클레스의 주도 연설

권력이 소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민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모두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공직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계층에 속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가난을 이유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치 활동이 자유롭고 개방된 것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개인과의 관계도 자유롭고 개방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이 제멋대로 행동하도록 해서도 안 되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개인생활에서는 자유롭고 관대하지만 공동생활에서는 법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시민은 개인생활뿐만 아니라 나라의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 개인의 일에도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으며 충분한 토론 없이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을 가장 나쁘게 여기기 때문에 모든 아테네 시민은 누구나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오호라). 페리클레스 연설. (인터넷검색일: 2020. 2. 28.).
<https://blog.naver.com/minkh0227/221644293305>



참고 문헌

- 로랑 카르동(2018). 사라진 루크를 찾는 가장 공정한 방법. 꿈터.
- 박영경 외(2014). 고등학교 법과 정치. 비상교육.
- 이종학(2005). 내 손으로 경작하는 민주주의. 푸른길.
- 경향신문(2018. 7. 6.). 민주주의·페미니즘·가짜뉴스에 관한 신랄한 우화. (인터넷 기사 검색일: 2020. 2. 1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062102025&code
- 한겨레 신문(2017. 10. 15.). “2박3일 합숙 뒤 생각 바뀌어”…“471명 숙의과정 감동”. (인터넷 기사 검색일: 2020. 2. 1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4597.html

2 민주시민은 어떤 능력을 키우고 실천해야 할까?

성취기준	[12시토01-02]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주권재민과 자치 원리를 조사하여, 주권자로서 민주시민이 가져야 하는 가치와 태도를 바탕으로 한 토의·토론이 민주시민에게 중요한 이유를 주장한다.
관련 교과 성취기준	[12윤사04-04]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근대 자유민주주의를 탐구하고, 참여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 등 현대 민주주의 사상들이 제시하는 가치 규범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자세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원격수업 활용 Tip

1. ‘생각 열기’ 사진을 화면 공유를 통해 보여주고 자료 조사 시간을 간단하게 3분 이내로 부여한다.
2. 「민주시민의 가치와 태도를 실현하는 토의토론」의 ‘활동 1’에서 제시된 실험 1~3의 경우, 1번 실험은 온라인상에서 진행이 어려우므로 제외하고 실험 2와 실험 3을 소그룹 토론 기능을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진행한다. 교사는 소그룹 토론 기능(예: zoom의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하여 모둠 실험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실험 이후 소감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실험 1의 경우를 가상으로 제시하고 실험 2와 실험 3을 실험 1과 상상으로 비교하게 하여 소감을 다시 물어본다.
3. ‘활동 2’는 개인 활동으로 헌법을 직접 읽고 학습자가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한 후 활동 내용을 발표하여 공유하도록 한다. ‘활동 2-(3)’은 소그룹 토의 기능을 활용하여 모둠별로 해당 신문기사를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도록 활동시간을 부여하고 결과물을 발표하여 공유한다.
4. 「민주시민의 가치와 태도를 실현하는 토의·토론」의 ‘활동 1’은 개별 활동 시간과 짹 토론 시간을 부여한다. 짹 토론의 경우 2명씩 소그룹 모임 기능을 활용하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후 활동 내용을 발표하고 공유한다.
5. ‘활동 2’는 교사와 학습자들 사이에 대화를 위주로 진행한다. ‘활동 2-(3)’은 소그룹 지정을 통해 모둠별 토의·토론을 진행하여 토의·토론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는 소그룹 마다 들어가서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이후 활동내용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6. ‘생각 정리하기’는 과제로 부여해도 좋고 개인 활동으로 시간을 부여한 뒤 작성 내용을 발표하게 한 후 함께 공유한다. 학급의 상황이나 학습자 수준에 따라서는 과제 부여가 더 좋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부여하고 과제로 부여했을 경우 다음 수업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발표 및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생각열기

인터넷을 활용하여 ‘4·19 혁명’ 관련한 자료 사진을 찾아 조사하고 당시의 상황을 알아봅시다.

- (1) 여러분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4·19 혁명’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 결과로 우리나라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4·19 혁명으로 부정행위를 일삼던 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으며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서는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자발적인 정치 참여로 역사의 고비를 극복하였으며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2) 만일 이승만 정권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에도 ‘4·19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고, 시민들이 무관심 했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봅시다.

학생 각자의 답변 작성

1. 민주시민의 가치와 태도



활동 1

민주주의의 원리를 이해하고 주권재민과 자치의 뜻을 파악해 봅시다.

- ◆ 다음 사항에 따라 실험을 해 봅시다.

실험 1. 준비물: 한 모둠당 사탕 한 봉지³⁾, 이어폰, 음악 재생 기계, 안대

- 6인 1조 모둠을 구성한다.
(한 모둠당 인원수는 교실 상황에 맞게 함. 최소 4명 이상 구성할 것)
- 제비뽑기를 통해 모둠의 대표를 선출한다. 단, 선출된 결과는 공유하지 않는다.
- 모든 모둠원은 안대를 착용하고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엎드린다.
- 모둠의 대표는 조용히 일어나 안대를 벗고 사탕을 모둠원들에게 분배한다.
- 누구에게 몇 개의 사탕을 줄 것인지 오로지 대표 혼자 결정한다. 아무 원칙도 없다.
오직 대표의 결정이 원칙이 된다.
- 사탕 분배가 끝나면 대표도 다시 안대를 착용하고 엎드린다.
- 모둠원이 모두 일어나 분배된 사탕을 확인한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왜 대표가 이렇게 분배했을지 추측하여 모둠 토의를 나눈다. 끝까지 대표가 누구였는지 밝히지 않는다.

실험 2. 준비물: 한 모둠당 사탕 한 봉지

- 6인 1조 모둠을 구성한다.
(한 모둠당 인원수는 교실 상황에 맞게 함. 최소 4명 이상 구성할 것)
- 모둠원끼리 협의하여 대표를 선출한다.
- 누구에게 몇 개의 사탕을 줄 것인지 오로지 대표 혼자 결정한다. 아무 원칙도 없다.
오직 대표의 결정이 원칙이 된다. 모둠원은 대표의 결정에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없으며 압력도 가할 수 없다. 표정, 말투, 눈빛 등 대표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대표의 결정만을 기다린다. 대표는 자신이 어떤 기준으로 사탕을 분배하는지 설명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대표의 결정에 따라 분배된 사탕의 개수를 확인한다.



3) 사탕의 개수는 모둠 인원수의 배수보다 항상 1개가 더 많도록 구성한다. 예를 들어 6명이 한 모둠일 경우 사탕의 개수를 19개로 정하는 경우(예: $6n+1$)와 같다.

실험 3. 준비물: 한 모둠당 사탕 한 봉지

- 가. 6인 1조 모둠을 구성한다.
 (한 모둠당 인원수는 교실 상황에 맞게 함. 최소 4명 이상 구성할 것)
- 나. 모둠원들과 협의하여 대표를 선출한다.
- 다. 사탕을 분배받을 기준을 모둠원들과 함께 정한다. 대표는 기준을 정하는 과정이 원활할 수 있도록 모둠원 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도록 진행한다.
- 라. 함께 논의한 기준에 따라 대표가 사탕을 분배한다.

(1) 실험 1~3에 대한 각각의 소감을 간단하게 작성해 봅시다.

실험 1	
실험 2	
실험 3	

(2) 실험 1과 2의 과정에서 기분이 상했나요? 만일 상했다면 왜 그랬나요? 또는 상하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느꼈나요?

☞ **기분이 상했다.**

실험 1의 경우 대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실험 2의 경우 대표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했다. 심지어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사탕인데 마치 대표가 나에게 선심을 베푸는 느낌도 들었다.

☞ **기분이 상하지 않았다.**

실험 1과 2의 경우 모두가 공평하게 사탕을 나눠 가질 수 있었고 특히 실험 2의 경우 대표가 왜 자신이 이러한 결정을 했는지 충분히 기준을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었다.

(3) 실험 3은 실험 1 및 실험 2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실험 1과 2에서 대표가 누구나에 따라 분배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실험 3의 경우는 기준을 함께 정하는 과정에서 각 모둠원의 의견이 반영되어 모둠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특정 대표가 누구인가가 분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실험 결과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위의 실험에서 우리는 모두 사탕을 받을 권리가 동등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사탕을 받는 기준과 각자 처한 상황, 기호 등에 따라 사탕의 개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실험 1~3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 운영의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도 이와 같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란 나와 네가 같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동등하게 가진다는 ‘평등’과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 살아감을 의미하는 ‘자유’, 그리고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대우받는 질서인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기준이 얼마나 국민의 동의를 얻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권재민(主權在民)’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는 사람을 ‘주권자(시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자치(自治)’라고 합니다. 이는 스스로를 다스린다는 의미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은 시민으로서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고 자치(自治)를 실천하려면 어떤 가치와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출처: 해당 내용은 ‘한국교원연수원’에서 운용하는 “참여하고 실천하는 토론중심 민주시민교육” (경기도토론판구회 운영)의 1, 2차시(동국대 철학과 흥윤기 교수의 강의) 내용 중 일부를 근거로 하여 수정한 것임.



활동 2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인지 헌법에서 찾아봅시다.

- ◆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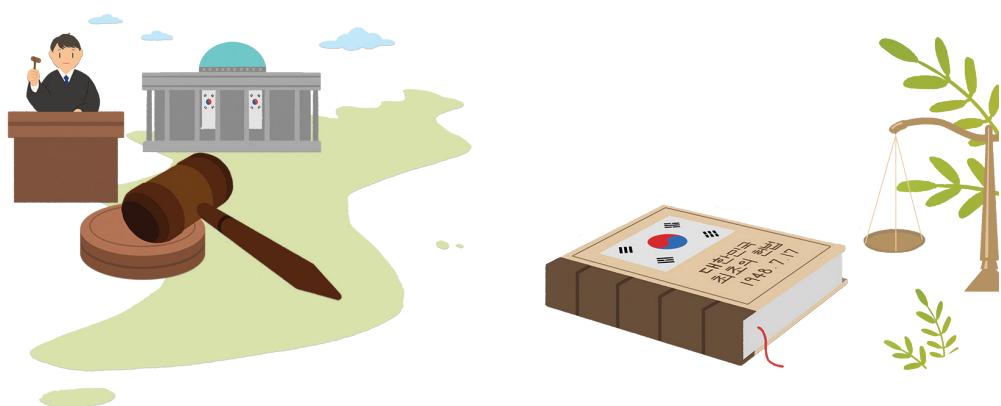
- (1) 윗글은 대한민국의 정신을 담은 「헌법」의 전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신을 담았다는 것은 국가가 운영되는 정치 원리와 사상이라는 의미이며, 곧 '국가의 철학'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러한 국가의 정신이자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의 전문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주권자로서 시민의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분석해 봅시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는 시민,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는 시민,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는 시민,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는 시민,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는 시민,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는 시민,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시민,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는 시민

(2) 앞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가 ‘평등’, ‘자유’,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되는 나라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헌법」 전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시민의 이상적 모습도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 전문에서 제시하는 시민의 이상적인 모습에서 각각 ‘평등’, ‘자유’,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된 상태를 찾아봅시다.

가치	가치가 실현된 시민의 모습	의미하는 내용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는 시민·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는 시민· 정의 ·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는 시민	우리 스스로 국가를 만들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원리를 제정하였으며 이에 반하는 불의에 항거할 줄 안다. 또한 정의로움과 인도적 차원의 자세와 동포애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줄 안다.
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는 시민·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는 시민	모든 국민에게 기회가 평등하고 누구나 그러한 기회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와 나는 모두 동일한 인간 존엄성을 지닌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는 시민·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는 시민·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는 시민	대한민국 시민은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정의와 평등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 이처럼 자유로운 삶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과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덕성

직접 「헌법」 전문을 읽고 민주주의 국가가 지녀야 할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의 모습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가 보통 「헌법」이라고 하면 법률을 떠올리는 데, 지켜야 할 규칙인 법률보다 도덕 · 윤리적 규범이라는 철학적 사상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나요?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의 헌법이든 주권자들이 인간으로서 행해야 할 도덕 · 윤리적 규범의 바탕에서 헌법의 다양한 권력 조항을 만들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헌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주권자가 되어야 하는지,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 · 윤리적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의 조항들을 분석하여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올바른 주권자로서 시민이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조항을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권자를 시민이라고 할 때, ‘민주시민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주권재민(主權在民)’에 있습니다. 즉, 민주시민은 나에게서 나오는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하고 이것이 어떤 작동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치적 판단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민주시민이 되려는 이유는 올바른 정치 판단 능력을 기르고 발휘하여 「대한민국헌법」이 요구하는 도덕 · 윤리적 규범을 실천할 수 있는 주권자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치적으로 큰 힘을 내는 세력에 휘둘리며 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삶은 ‘자치(自治)’를 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아도 이를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민주시민은 정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제대로 국가의 민주주의 운영 원리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해당 내용은 ‘한국교원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참여하고 실천하는 토론중심 민주시민교육”(경기도토론헌법연구회 운영)의 1,2차시(동국대 철학과 흥윤기 교수의 강의) 내용 중 일부를 근거로 하여 수정한 것임.

- (2) 다음은 「대한민국헌법」 조항을 분석하여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가치와 태도를 도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치와 태도는 한 가지 조항에만 나타나지 않고 여러 조항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포털 사이트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검색하여 「헌법」 전체를 읽고 민주주의나 민주시민과 관련한 가치 또는 태도가 드러나는 해당 조항을 한 가지씩만 선택하여 작성해 봅시다.

흔자 모든 조항을 확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모둠을 구성하여 한 사람당 4~5개의 가치와 태도를 담당하여 나누어 조사합니다. 그리고 작성이 끝난 후 돌아가며 자신이 맡은 가치 또는 태도가 드러나는 「헌법」 조항을 발표하고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봅시다.

가치 또는 태도	해당 「헌법」 조항
정의, 불의	전문(前文,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민주주의	전문, 제1조, 제8조②/④, 제32조②(근로 의무의 내용과 조건), 제119조②(경제민주화)
평화 침략	전문, 제4조, 제5조①(국군), 제66조③, 제92조
인도	전문
동포애	전문
자유 침해	전문,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①, 제22조①, 제37조①/②(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
권리	전문,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3조②, 제21조④, 제22조②, 제23조①(재산권), 제24조(선거권), 제25조(공무담임권), 제26조①(청원권), 제27조(재판청구권), 제31조①(교육), 제32조①(근로), 제33조①/②(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제34조①(인간다운 생활), 제35조①/②(건강권, 환경권), 제37조①/②(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 제45조(국회의원 면책)
자율	전문, 제31조④
균등	전문, 제31조①(균등기회/교육)
책임	전문, 제7조①
의무	전문(국민), 제5조②,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국가), 제23조③(보상), 제26조②(국가의 청원심사의무), 제28조(불기소, 무죄), 제29조②, 제31조②(교육/국가와 국민), 제32조②(근로), 제34조②(국가의 사회복지, 사회보장), 제34조⑤(신체장애인, 고령자, 생활능력결여자에 대한 국가의무), 제35조①(환경보전/국가와 국민)/②(쾌적한 주거보장/국가), 제36조②(모성 보호/국가), 제38조(납세), 제39조(국방/국민), 제54조③(법률상 지출의무), 제66조②(헌법수호/대통령 책무), 제69조(헌법수호/대통령 취임선서), 제89조(국무회의 심의)
공동번역	전문

안전	전문, 제34조⑥, 제34조⑥(재해)
행복	전문, 제10조, 제34조, 제69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인간 존엄성 – 인권	전문, 제10조, 제32조③(근로조건), 제34조①(인간다운 생활), 제36조①(혼인, 가족생활)
봉사	제7조①
평등 차별, 특수 계급, 특권	제11조①/②/③, 제32조③, 제36조①(양성평등)
사생활의 비밀	제17조
명예	제21조④
공중도덕	제21조④
사회 윤리	제21조④
공공복리	제23조②
긍정적 차별	제32조⑥(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근로기회 우선 부여), 제34조⑤(장애인, 질병자, 노령자, 생활능력결여자에 대한 국가의 의무)
사회 보장, 사회복지	제34조②
건강, 보건	제35조①, 제36조③(보건)
모성(母性)	제36조②
청렴	제46조①(국회의원)
양심	제46조②(국회의원), 제103조(법관의 심판)
헌법 수호	제66조②(대통령 책무), 제69조(대통령 취임선서)
성실	제69조(대통령 취임선서)

출처: 홍윤기(2017). 민주공화국의 입헌정치에 있어서 헌법교육/민주시민교육. 사회와 철학, 제34집.

- ◆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시민의 가치나 태도가 잘 실현되고 있나요? 이를 확인하는 활동을 해 봅시다.

〈준비 사항〉

- ◎ 4인 1조의 모둠을 구성합니다.
- ◎ 모둠당 한 날짜의 신문을 준비합니다. 모둠의 상황에 따라 1인당 신문을 준비해도 좋습니다.
- ◎ 4명을 다시 2인 1조로 구성하여 한 팀은 A, 다른 한 팀은 B로 역할을 분담합니다.

- (3) 준비한 신문을 펼치고 활동 (2)에서 확인한 민주시민의 가치나 태도가 실현된 사례 한 가지를 A팀, 실현되지 못한 사례 한 가지를 B팀이 찾아 오립니다. 해당 기사를 다음에 붙이고 왜 그 기사를 선택한 이유를 써 봅시다.

〈민주시민의 가치나 태도가 잘 실현된 우리 사회의 모습〉



A팀이 찾은 가치나 태도	A팀이 찾은 신문 기사
이 기사를 선택한 이유	



〈민주시민의 가치나 태도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모습〉

B팀이 찾은 가치 또는 태도	B팀이 찾은 신문 기사
이 기사를 선택한 이유	



- (4) A팀과 B팀이 각자 찾은 내용을 공유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정리하여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민주시민이 되어야 하는지 작성해 봅시다.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2. 민주시민의 가치와 태도를 실현하는 토의 · 토론



활동 1

민주시민의 가치와 태도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토의 · 토론을 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봅시다.

(1) 우리는 앞에서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가치와 태도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와 태도를 실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토의 · 토론은 민주시민의 가치와 태도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 ▶ 우선 각자 벽을 바라보고 앉습니다. 그리고 “CCTV는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문장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 중 한 가지를 정하고, 이를 설득하는 말을 3분 동안 해 봅시다.
- ▶ 느낌이 어땠나요?

학생 각자의 답변 작성



(2) 이번에는 짹과 함께 "CCTV는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문장에 대해 찬성과 반대 토론을 3분 동안 해 보세요. 잠시의 체험을 위한 것이니 두 사람은 반드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도록 합니다. 체험 후 각자 느낀 점을 작성해 봅시다.

학생 각자의 답변 작성



민주시민으로서 토의·토론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토의·토론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내 앞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상대를 인정해야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토의·토론입니다. 그런데 이는 앞서 우리가 확인했던 민주시민이 가져야 하는 가치였던 ‘평등’이 실현된 상태입니다. 내가 너와 동일한 인간 존엄성을 지닌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했는데 토의·토론에서 상대 발언자를 나와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에서 ‘평등’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토의·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평등’과 ‘자유’는 정해진 토의·토론 규칙에 따라 정의롭게 실현되어어야 합니다. 그래서 토의·토론은 민주시민이 가져야 할 가치와 태도의 대표로 꼽히는 ‘평등’, ‘자유’, ‘정의’가 실현된 형태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를 통해 우리가 민주시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함께 잘 살기 위한’ 것이므로 ‘함께 잘 살아가는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토의·토론입니다. 토의·토론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만일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더더욱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토의·토론을 논쟁, 말다툼과 같은 것처럼 여기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토의·토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의·토론은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토의·토론은 내 주장이 옳다는 것으로 승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승패와 상관없이 내 옆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마주 보는 일입니다. 결론이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토의·토론을 했다면 서로 생각이 왜 다른지, 서로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각자의 정보가 어떻게 다른지는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살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곳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은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민주시민의 가치와 태도는 그곳에서 출발합니다.

출처: 해당 내용은 ‘한국교원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참여하고 실천하는 토론중심 민주시민교육”(경기도토론헌구회 운영)의 3차시(홍윤기와 윤이정의 대화) 내용 중 일부를 근거로 하여 수정함.



(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독일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절대평가를 한다. 특히 수업시간에 학생들끼리 경쟁 상대가 아니라 협력 상대임을 교육하고, 그렇게 교사들이 수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어렸을 때 독일에 이민 온 채윤형 학생은 “독일어 수업 시간에 각자 다른 주제로 발표해요.” 라며 “서로 토론과 발표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시각을 배운다.”라고 말했다. 어떤 학생은 헤르만 헤세에 대해, 어떤 학생은 토마스 만의 작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다른 학생들과 토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평가를 할 수 없고 교사가 절대평가를 하게 된다. 예로 덧셈 시간에 $1+1=2$ 가 정답이지만 $1+1=1$ 이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찰흙 한 덩이와 다른 찰흙 한 덩이를 합하면 하나가 된다고 설명하는 학생이 더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한다. 역사 수업은 교과서에 실린 그림에 대하여 조사해 오는 과제에 대해 자신들의 생각을 적극 개진하는 학생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독일의 발표와 토론 수업을 지켜보면 때로는 얼토당토 않는 대답을 하지만 교사는 그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창의력을 키워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중략)--- 전문가들은 “선행학습은 학생들의 개성이나 창의성 기르기에도 부적합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학생들의 창의력을 약하게 한다는 비판이다. 15년간 한국에 근무한 독일기업 베링거인겔하임의 군터라인케 사장은 홍어를 즐겨 먹을 정도로 지한파다. 하지만 그는 “한국의 젊은이들과 회의를 하다 보면, 리더의 아이디어를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본다.”며 “토론을 많이 하는 독일에서보다 한국에서의 일 처리 속도는 2배 정도 빠를 수 있지만, 창의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출처: 김택환(2017). 행복한 독일 교육 이야기. 자미산.



▶ 토의 · 토론을 하면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어떤 가치와 태도가 발현될 수 있을까요?

참여자들의 모든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의롭고 평등한 기회를 얻는 것에 대해 익숙해질 수 있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참여’의 가치가 발현될 수 있다. 또한 터무니없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의 말도 경청함으로써 ‘배려’, ‘연대 의식’ 등이 드러날 것이다.



활동 2

민주시민의 가치와 태도를 발현할 수 있는 토의·토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1) 그동안 여러분이 경험했던 토의·토론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그 경험을 문장이나 단어로 표현해 봅시다.

말을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
엉뚱한 말을 하면 웃음거리가 될 것 같다는 불안함
말을 시작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불편함

- (2) 그 경험은 왜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경험이 되었나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토론 결과가 점수로 이어지고 이것이 성적으로 연결되어 등수가 정해지기 때문
토론에서 패배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 때문
정답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기 때문

- (3) 다음을 참고하여 민주시민의 가치와 태도를 발현할 수 있는 토의·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과 환경이 필요한지 토의해 봅시다.

위르겐 하버마스는 쉬운 인생을 살지 못했다. 그는 윗입술이 갈라지는 장애(구순구개열)를 안고 태어났다. 이 때문에 발음이 부정확했던 하버마스는 상대의 말을 중단시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슴 아프게 체험하면서 성장한다. 또 하버마스가 청소년기를 보낸 시기는 2차 세계대전 무렵이었다. 폭력과 억압의 세기를 보내며 그는 소통의 절실함을 또 한 번 깨달았다. (중략) 그가 써낸 책이 바로 ‘의사소통 행위이론’이다. 이 책은 일단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한 논쟁은 의미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올바른 의사소통은 서로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참이어야 한다. 상대방이 소통의 결과를 성실하게 지킬 것이라는 믿음도 있어야 하며, 사람들의 관계가 평등하고 수평적이어야 한다.” 하버마스는 성공하는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예를 생각해보자. 내가 누군가와 어떤 일을 함께하자는 약속을 했다고 치자. 이 약속이 의미가 있으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

우선 서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쉽고 명확한 메시지가 오가야 한다. 그리고 이 약속을 거짓이라고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 동시에 당연히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서로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한다. 물론 둘 사이는 누가 누구를 억압하지 않는 평등한 관계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한다. 이처럼 좋은 의사소통에는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좋은 결론은 논리적인 ‘주장’이 아닌 공감할 수 있는 이성적 ‘대화’에서 나온다고 봤다. ‘소통은 말하고 행위하는 주체들의 상호 이해에 따라 결정된다.’는 그의 이론은 긍정적인 미래를 담보한다. 소통 주체들의 자세에 따라 좋은 소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철학자 묵자는 논쟁을 절대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그는 지면 상처



올바른 의사소통이 되려면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진실이어야 한다.

서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도 있어야 하며 소통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평등해야 한다.

를 받고, 이기면 친구를 잃는 게 논쟁이라고 말한다. 논쟁에서 이겨봐야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아서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사실 논쟁을 하다보면 결국 고집을 부리게 된다. 설령 자신의

오류가 확인되더라도 고집을 거두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무 소득 없는 ‘헛짓’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묵자의 말대로 논쟁을 안 하고 살기는 힘들다. 개인 간이든 집단 간이든 논쟁은 필연적으로 벌어진다. ‘긍정적인 논쟁’은 불가능할까? 혹시 논쟁의 기술 같은 건 따로 없을까? 이런 질문의 답으로 떠오르는 한 권의 책이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이론’이다.

출처: 매일경제(2019. 11. 8). [허연의 책과 지성] 위르겐 하버마스(1929.~). (인터넷 기사 검색일: 2020. 2. 15.).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9/11/924490/>

올바른 의사소통이 되기 위한 우리 팀의 토의·토론 규칙

- 발언권을 독점하지 않는다.(평등)
- 발언자의 말을 끝까지 경청한다.(자유)
- 의견을 말할 때는 쉬운 단어를 사용한다.(배려)
- 발언자의 발언 내용을 비하하지 않는다.
- 누구나 쟁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토의·토론에 함께 할 수 있다.(참여)

올바른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토의·토론 환경

- 발언 시간을 알려줄 타이머를 준비한다.(정의)
- 정확하게 의견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지를 준비한다.
-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문제를 해결 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신뢰한다.



생각 정리하기

(1) 내가 살고 싶은 미래의 대한민국은 어떤 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인지 생각해 봅시다.

(2) 나는 그러한 시민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발표해 봅시다.

(3) 친구가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것을 격려하는 문구를 작성해 봅시다.

평가기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주권재민과 자치 원리를 조사하여, 주권자로서 민주시민이 가져야 하는 덕목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 토의 · 토론이 민주시민에게 중요한 이유를 주장할 수 있다.

상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주권재민과 자치 원리를 「헌법」 전문을 근거로 들어 설명하고 이것이 드러난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주권자로서 민주시민이 가져야 하는 덕목과 가치가 드러난 「헌법」 조항을 짚어낼 수 있고,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가치와 태도가 표현된 토의 · 토론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중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주권재민과 자치 원리가 드러난 사례를 제시할 수 있고, 주권자로서 민주시민이 가져야 하는 덕목과 가치를 이해하여 토의 · 토론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주권재민과 자치 원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나 직접적인 사례 제시가 미흡하고, 주권자로서 민주시민이 가져야 하는 덕목과 가치를 부분적으로만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한 토의 · 토론의 형태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게 하는 민주시민의 가치와 태도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만을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김택환(2017). 행복한 독일 교육 이야기. 자미산.
- 홍윤기(2017). 민주공화국의 입헌정치에 있어서 헌법교육/민주시민교육. 사회와 철학, 제34집.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전문. (인터넷 검색일: 2020. 2. 15.). <http://www.law.go.kr/lslInfoP.do?lslSeq=61603&efYd=19880225#0000>
- 매일경제(2019. 11. 8.). [허연의 책과 지성] 위르겐 하버마스 (1929~). (인터넷 기사 검색일: 2020. 2. 15.).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9/11/924490/>
- 경기도토론판교육연구회 운영. “참여하고 실천하는 토론 중심 민주시민교육”. 한국교원연수원 상시연수 중 1~3차시.

3 현대 민주 사회의 특징은 무엇일까?

성취기준	[12시토01-03] 다양성의 확산, 개인 및 집단 갈등 증가, 정치적 무관심의 증가 등 현대 민주 사회의 특징을 다양한 사례와 통계 자료 등을 통해 분석한다.
관련 교과 성취기준	[12한지06-03] 외국인 이주자 및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공간적 변화를 조사·분석한다. [12한지06-02]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와 이에 따른 공간적 변화를 파악하고, 이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원격수업 활용 Tip

- 교사는 제시된 학습 자료를 읽어 주고, 이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다.
- 모둠 활동은 모둠별로 SNS의 모둠방을 활용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모둠방에서 비속어를 쓰는 것을 자제시키고 소외 학생을 독려한다.
- 의견 교환 시간은 최대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집중도를 높인다.
- 온라인 토론을 마치고 난 후에는 개별적으로 내용을 요약하는 글쓰기를 지도한다. 온라인 원격 도구를 활용하여 학생의 자기 표현과 의견 공유를 할 수 있다.



생각열기

아래의 자료를 살펴보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광주 이슬람 출신 일부 초등생, 할랄식품 없어 점심 걸러



2019 FINA 광주세계수영대회 선수촌식당에서 외국인 선수단이 할랄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할랄(HALAL)식품'이 없어 이슬람 문화권 출신 일부 학생들이 급식을 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별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별 없는 사회)은 12 일 보도 자료를 내고 광주 H초등학교 일부 학생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학기 중 급식을 매일 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학별 없는 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이러한 소수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급식 개선책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다문화 가정이 많이 거주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H초교 상황에 따르면, 4명의 학생이 할랄식품이 없어서 급식을 하지 못하게 있다. 이들 학생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려 해도 별도 조리에 따른 업무 부담과 할랄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이 낮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 이슬람 문화권 출신 학생들은 왜 급식을 거르고 있을까요?

(2) 이슬람 문화권 출신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1. 다양성 확산, 그리고 개인 및 집단 갈등 증가



활동 1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1) 현대 민주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주 외국인	비정규직 노동자										
<p>출처: 뉴시스(2015. 10. 4.). 외국인 없인 공장 못 돌리는 데 다문화 없는 '다문화 정책'. (인터넷 기사 검색일: 2020. 2. 28.).</p> <table border="1"><caption>한국에 놀아온 외국인주민 (단위: 만명)</caption><thead><tr><th>연도</th><th>인구 수</th></tr></thead><tbody><tr><td>2000년</td><td>54</td></tr><tr><td>2009년</td><td>111</td></tr><tr><td>2012년</td><td>141</td></tr><tr><td>2015년</td><td>174</td></tr></tbody></table>	연도	인구 수	2000년	54	2009년	111	2012년	141	2015년	174	<p>출처: 세계일보(2018. 5. 12.). 정규직 vs 비정규직 노동자 단순 월급 차이? “근로시간도 고려해야”. (인터넷 기사 검색일: 2020. 2. 28.).</p>
연도	인구 수										
2000년	54										
2009년	111										
2012년	141										
2015년	174										
장애인	노인										
<p>출처: 한겨레 신문(2009. 3. 18.). 장애인 시설, 대학 절반 이상이 '낙제점'. (인터넷 기사 검색일: 2020. 2. 28.).</p>	<p>출처: 에너지 경제 신문 (2018. 8. 30.). 전체 인구 중 노인 14.2%... '노인범죄·고독사' 고령사회의 그늘. (인터넷 기사 검색일: 2020. 2. 28.).</p>										

(2) 각 그림과 관련된 사람들이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주체	갈등의 종류
이주 외국인	언어 소통 문제, 문화적 차이, 차별 대우 등의 어려움이 있어요.
비정규직 노동자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장애인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노인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노후 대비의 부족과 복지 정책의 미비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어요.

(3) 다양한 사람들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자유롭게 발표해 봅시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에서 표출될 수 있어요. 갈등이 지속되면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저해하므로 반드시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만일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회 전체적으로 불안이 야기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테러와 내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4) 각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 모둠별로 생각해 봅시다.

모둠별 활동 방안

- 보기에 제시된 주제 중 하나를 모둠별로 추첨하여 고른다.
- 각 모둠별로 추첨한 주제와 관련하여 갈등의 해결 방안을 의논하여 쓴다.

주체	갈등 해결 방안
이주 외국인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노인	



활동 2

현대 사회의 여러 갈등 중 하나를 모둠별로 골라서, 역할극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봅시다.

(1) 다음에 제시된 갈등 중 하나를 추첨으로 골라서 모둠별로 토크쇼 형식의 역할극을 해 봅시다.

보기

- 국제 난민 문제
- 인종 차별 문제
- 성별 불평등 문제
- 청소년 노동권의 문제
-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

우리 사회의 갈등

모둠에서
다룰 문제

.....
.....
.....

해당 문제로 인한
어려움

.....
.....
.....

해당 문제의 원인

.....
.....
.....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

.....
.....
.....

모둠별로 해당 갈등과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토크쇼 형식의 역할극 대본을 만들어 봅시다. 역할극 대본 작성 시 교과서, 스마트폰 및 인터넷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검색한 후 조별 토의를 거쳐 역할극 대본을 작성합니다.

〈진행 유의 사항〉

1. 갈등 당사자: 소수의 입장 2명 이상, 다수의 입장 2명 이상 등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함
2. 토크쇼 진행자(사회자 1명)
3. 시간 배분: 각 입장 간 동일한 시간을 구성해야 함. 단, 역할극의 특성상 고의로 갈등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넘길 경우 사회자가 시간 조정에 개입하는 과정을 넣을 수 있음
4. 혐오 표현 등과 같이 공공선을 위협하는 표현이나 발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함

(2) 모둠별로 준비된 역할극 대본을 발표해 봅시다.

1. 5인 이상 모둠에서 소수의 입장 2명 이상, 다수의 입장 2명 이상, 토크쇼 진행자 1명으로 역할을 나눔
2. 역할극 당사자는 각본에 맞춰 토론의 내용을 이야기함
3. 각 모둠의 발표 내용에 모둠원간 내용 정리 및 평가함

▶ 역할극의 모둠별 내용 정리

1모둠	갈등 내용	
	소수의 입장	
	다수의 입장	
	해결 방안 제안	

2모둠	갈등 내용	
	소수의 입장	
	다수의 입장	
	해결 방안 제안	
3모둠	갈등 내용	
	소수의 입장	
	다수의 입장	
	해결 방안 제안	
4모둠	갈등 내용	
	소수의 입장	
	다수의 입장	
	해결 방안 제안	
5모둠	갈등 내용	
	소수의 입장	
	다수의 입장	
	해결 방안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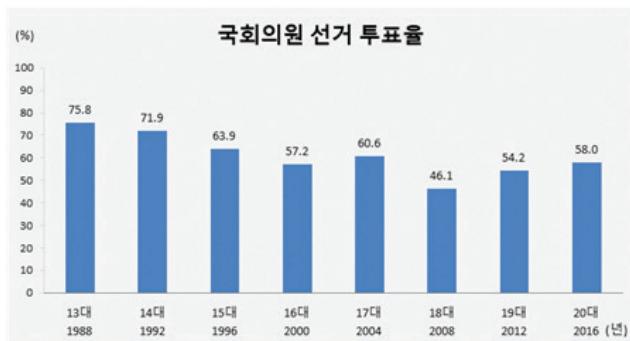
2.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적 갈등 양상



활동 1

우리 사회의 정치적 무관심 양상을 살펴봅시다.

- (1) 우리나라 역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을 살펴보고 아래 질문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역대선거. (인터넷 검색일: 2020. 2. 28.).
<http://info.nec.go.kr/>

(단, 4년 임기제가 지속 유지된 13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고려함.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인 2표제를 시행함)

- ▶ 우리나라 역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 ▶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낮아지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는 어떤 것이 있을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활동 2

정당별 핵심 공약을 보고, 각 정당의 주요 의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A당	1순위 공약으로 '청년 행복'을 내세웠다. 창업 공간과 임대주택 등을 연계한 도시재생 뉴딜정책, 청년 친화형 혁신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청년세대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미세먼지 해결'과 '국민생활 안전'을 꼽았다. A당은 기존 석탄 화력발전소의 대기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사고를 전담하는 신속 대응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B당	제 1공약으로 내건 '자영업자·소상공인 기 살리기'를 통해 현 정부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인상 결정기준 규정',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운영의 자율권과 미세먼지 문제, 보수층 결집을 위한 안보 강화, 어르신 노후 보장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C당	경제로 공약의 첫머리를 시작했다. 지역 청년을 채용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지원을 늘리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C당 역시 미세먼지 대책을 우선순위에 올렸다. 지자체별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세우고, 청정 미세먼지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다.
D당	청년 공약으로 고용 할당제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노동과 관련해선 '2020년까지 비정규직 제로화'를 약속했다. 여성이 안전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슈퍼우먼 방지 조례'와 '여성 폭력 방지 종합대책' 등도 언급했다. 여기에 지역 언론 활성화와 독립성 강화를 통한 주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강조했다.

(1) 각 정당의 주요 의제는 무엇인지 핵심어를 중심으로 작성해 봅시다.

A당: 청년 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 안전 등

B당: 최저임금 차등 적용, 기업 운영의 자율권, 미세먼지 문제, 노인 문제 해결

C당: 경제 성장, 미세먼지 해결 등

D당: 청년 공약, 비정규직 제로화, 슈퍼우먼 방지 조례 등

(2) 각 정당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모둠별로 가상의 정당을 만들고 세부 주장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3) 모둠별로 정당의 세부 주장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활동 3

현대 민주 사회에서 갈등은 꼭 피해야만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민주주의의 엔진, 갈등!

인간 사회에서 자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늘 존재합니다.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구성원의 의견이 모두 같을 수는 없습니다.

흔히 갈등이나 집단 이기주의는 나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갈등을 해결해 주는 정치체제가 아닙니다. 시민들 스스로 갈등 해결의 주체가 되어 이익 결사체를 만들고 서로 갈등하면서 균형점을 찾아 가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엔진인 것입니다.

〈연방주의자 논설〉, 제임스 매디슨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유를 없애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두 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 갈등은 제거될 수 없고 오직 조정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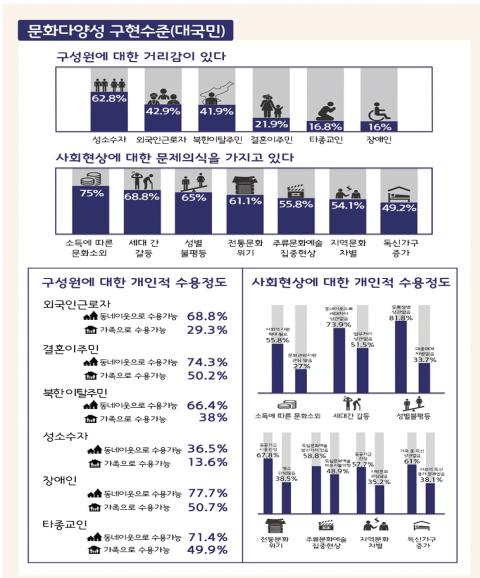
(1) 민주 사회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2) 민주 사회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지 자신의 의견을 적어 봅시다.



생각 정리하기

(1)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 중 어느 부분의 갈등이 심한지 구성원 측면과 사회 현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해 봅시다.



구성원 간 거리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구성원은 성소수자이며, 그 다음으로 외국인 노동자, 북한 이탈 주민이 거리감을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른 문화 소외, 세대 간 갈등, 성별 불평등 순으로 문제의식이 큰 편입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 현대 민주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원인, 영향, 해결 방안 등으로 구분해 정리해 봅시다.

- 원인: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분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구성원의 의견이 모두 같을 수는 없습니다.
- 영향: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에서 표출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지속되면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저해하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만일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회 전체적으로 불안이 야기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테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해결 방안: 시민들 스스로 갈등 해결의 주체가 되어 이익 결사체를 만들고 서로 조정하면서 균형점을 찾아 가는 것입니다.

평가기준

다양성의 확산으로 인한 개인 및 집단 간의 갈등 양상을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파악하고 토의·토론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설득력 있게 제안할 수 있다.

상	다양성 확산으로 인한 개인 및 집단 간의 갈등 양상을 이해하고, 협력적인 토론을 통해 창의적이고 의도와 목적에 맞게 제안서를 디자인하여 설득력 있게 제안할 수 있다.
중	다양성 확산으로 인한 개인 및 집단 간의 갈등 양상을 이해하고 의도와 목적에 맞게 제안서를 디자인하여 설득력 있게 제안할 수 있다.
하	다양성 확산으로 인한 개인 및 집단 간의 갈등을 이해하고, 지역 통합과 관련된 제안서를 디자인하여 제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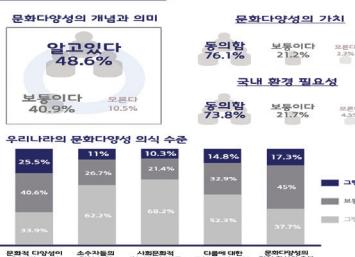
참고 자료

■ 문화 다양성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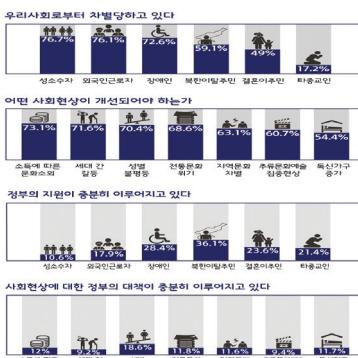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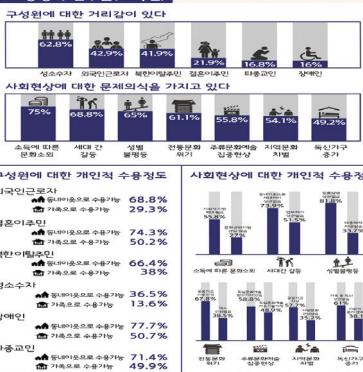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1. 조사 목적
 문화다양성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지를 대상으로 제작된 대국민 문화다양성 지지현황 및 지원방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2. 조사대상
 - 대상인 khẩu: 19세 이상 성인 2,100명
 - 조사기간: 2017년 7월 17일 ~ 2017년 7월 20일
 - 조사방법: 전화면접
 - 조사비용: 300원(조사비) + 300원(설문비) + 300원(설문비+조사비)
3. 조사기간
 2017년 7월 17일 ~ 2017년 7월 20일
4. 조사방법
 전화면접
5. 조사비용
 300원(조사비) + 300원(설문비) + 300원(설문비+조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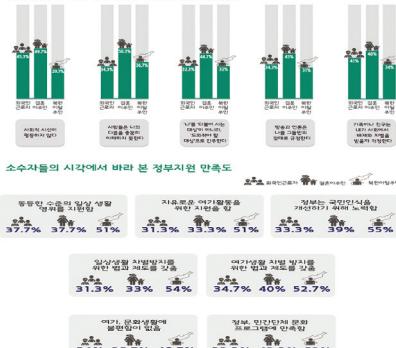
문화다양성 인식수준(대국민)



문화다양성 구현수준(대국민)



소수자들의 시각에서 느끼는 우리사회 포용정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참고 자료

■ 영국 민주주의의 실패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가 말하는 브렉시트와 민주주의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둘러싸고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 가운데 가장 바보 같았던 것은 한 국가가 유럽연합에서 찢어져 나오는 데 있어 애초부터 말도 안 되게 낮은 장벽을 뒀다는 점이었다. 23년간의 둑지를 떠나는 데 필요한 것은 다수의 표뿐이었다. 투표 참여자가 유권자의 70%라고 했을 때 브렉시트를 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은 겨우 유권자의 36% 뿐인 셈이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공화국식 *‘러시안 룰렛 게임’일 뿐이다. 엄청난 결과를 불러 올 판단이 그에 응당한 견제와 균형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다. 브렉시트 재투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마땅한 대책이 아니다. 영국 의회의 다수가 브렉시트를 지지했어야 했나. 그것도 아니다. 이번 국민투표를 앞두고 영국 국민들이 자신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았을까. 단연肯대 아니다. 사실 이 투표가 세계 무역 시스템에 그리고 영국 국내의 정치적 안정성 측면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지금 분명한 것은 그 결과가 썩 좋은 그림은 아닐 것이란 점이다.

서구의 시민들은 우리가 평화로운 시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지 알아야 한다. 변화하는 환경과 역시 빠르게 변하는 우선순위는 전쟁의 발발 없이도, 지금 히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거쳐서도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52%의 득표를 통해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려도 괜찮은가?

내구성 측면에서 봤을 때,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것보다 웬만한 국가들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게 더 어렵고 까다로울 것 같다. 물론 브렉시트 지지자들이 이토록 쉬운 게임의 룰을 만든 것은 아니다. 2014년 스코틀랜드의 독립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한 선례가 있고 이에 앞서 1995년 케벡의 전례가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 러시안 룰렛 게임에서 실제로 충탄이 발사돼 치명상을 입힌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장전돼 있던 단 한 알의 총알이, 이번 브렉시트에서 드디어 걸린 셈이다. 그리고 이젠 게임의 룰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왔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 의해서든, 오직 ‘다수의 룰’에 따라 결정했다고 해서 이것이 ‘민주주의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란 용어를 왜곡하는 것이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균형과 견제하는 시스템을 함께 발전시켜왔다. 소수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막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에 의한 성급한 결정을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정이 거대하고 파급력이 큰 것일수록 결정을 내리기까지 거쳐야 하는 장벽은 높다.

헌법 개정 등 법률 제정이 예산안 통과보다 까다로운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한 나라가

지역별로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투표가 음주 연령을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쉬워선 안 된다.

브렉시트 안 가결 이후 유럽은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의 탈퇴 러시에 직면했다. 지금 시급한 문제는 이 같은 탈퇴를 결정지을 만한 더 나은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많은 정치학자들을 만나 물어봤지만 안타깝게도 답은 하나, 단기적 방안은 없어 보인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겨우 51%를 넘기는 수준이 아닌 ‘압도적 다수’를 요구한다. ‘압도적 다수’에 있어서 딱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통상적인 원칙은 이 다수가 명백히 안정된 수로서 과반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앞날을 결정지을 기본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다. 이런 결정을 감정적 판단에 치우쳐 얇디 얇은 소수 의견에 기반을 두고 이뤄져선 안 된다. 영국 경제가 브렉시트 이후 당장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침체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초래될 경제적·정치적 혼란이 브렉시트에 한 표를 행사한 이들에게는 ‘구매자의 후회(물건을 사고 난 뒤 잘못 산 것 같아 후회하는 것)’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투표의 후폭풍은 예측 불가하다.

영국 국민투표는 유럽 전체를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세계가 이에 어떻게 대처하고 영국 정부가 스스로 재건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앞으로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이다. 단순히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번에 목도했듯이 단순한 ‘과반수 룰’이라는 민주주의의 표준 규약은 혼돈의 공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러시안 룰렛 게임: 회전식 연발 권총의 여러 개의 약실 중 하나에만 총알을 넣고 총알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탄창을 돌린 후, 참가자들이 각자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는 목숨을 건 도박이다.

출처: 시사저널(2016. 7. 1.). 브렉시트 결정, 민주주의의 오류에 빠졌다. (인터넷 기사 검색일: 2020. 2. 18.).

참고 문헌

- 뉴시스(2019. 8. 12.). 광주 이슬람 출신 일부 초등생, 할랄식품 없어 점심 걸려. (인터넷 기사 검색일: 2020. 2. 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역대선거. (인터넷 검색일: 2020. 2. 28.).
<http://info.nec.go.kr/>
- EBS다큐프라임 민주주의 제작팀 · 유규오(2016년). 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후마니 타스. pp. 130–133.의 내용 일부 수정.
- 온–나라 정책연구.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인터넷 검색일: 2020. 2. 18).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691&pDataCD=0406000000&pType=02
- 시사저널(2016. 7. 1.). 브렉시트 결정, 민주주의의 오류에 빠졌다. (인터넷 기사 검색일: 2020. 2. 18.).

민주 사회의 가치와 토의 · 토론 태도

1 공감과 존중이 넘치는 토의 · 토론 실천 약속 정하기

성취기준	[12시토02-02] 민주시민의 의미와 민주 사회의 가치를 고려하여, 차이와 다양성 인정 및 공감과 상호 존중을 위한 토의 · 토론 태도와 규칙을 결정한다.
관련 교과 성취기준	[12실국04-01]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로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한다.

원격수업 활용 Tip

- [즐거운 토의 · 토론을 위한 걸림돌과 디딤돌]의 ‘활동 1’의 제시문은 영상으로 대체하여 영상에 대한 의견을 구글 설문 도구로 취합한다. ‘활동 2’는 패들릿을 활용하여 걸림돌과 디딤돌에 대해 글을 작성할 수 있는 활동으로 안내한다.
- [즐거운 토의 · 토론을 위한 규칙 정하기]의 ‘활동 1’, ‘활동 2’는 디딤돌과 걸림돌에 관한 키워드를 멘티미터 워드클라우드, 카톡 등의 온라인소통 도구로 표현하는 활동을 한다.



생각열기

(1) 다음 대화에서 가장 듣고 싶은 대답과 가장 듣기 싫은 대답을 구분해 봅시다.

▶ 엄마! 성적표 여기 있어요. 성적이 너무 떨어졌어요.

- ① 이것도 공부라고 했니?
- ② 그래도 걱정은 되나 보지?
- ③ 잘하려고 애썼는데 도리어 성적이 떨어졌으니 실망이 크겠구나.

가장 듣고 싶은 대답	가장 듣기 싫은 대답
③	①

▶ 공부만 하려면 잡념이 들어요. 시험은 가까워 오는데 큰일 났어요.

- ① 공부가 하기 싫으니 잡념이 들지. 넌 어째 그 모양이니?
- ② 잡념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단 말이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 봐.
- ③ 이렇게 중요한 때에 집중이 잘 안되니 속이 타겠구나.

가장 듣고 싶은 대답	가장 듣기 싫은 대답
③	①

▶ 친구들하고 바닷가로 캠핑 가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꼭 보내 주셔야 해요.

- ① 넌 매일 놀 궁리만 하니? 공부는 언제 하려고?
- ② 이번엔 친구들하고 캠핑을 꼭 가고 싶은 모양이구나.
- ③ 친구들도 사귈 겸 꼭 가고 싶은데 안 보내 줄까 봐 걱정되는구나.

가장 듣고 싶은 대답	가장 듣기 싫은 대답
③	①

▶ 엄만 왜 맨날 나만 야단쳐요? 잘못한 건 내가 아니라 동생들인데.

- ① 어쭈, 이 녀석! 이젠 엄마한테 말대꾸까지 하며 대드네.
- ② 네가 제일 말이니까 대표로 야단맞는 건데, 그게 그리 억울하나?
- ③ 동생들이 잘못한 것도 네가 야단을 맞으니 무척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겠다.

가장 듣고 싶은 대답	가장 듣기 싫은 대답
③	①

▶ 저는 그냥 공부가 싫어요. 하나도 모르겠고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너무 답답해요.

- ① 그래도 공부를 해야지. 너 공부 안하고 계속 그렇게 장난만 치면 엄마한테 전화한다.
- ② 공부는 안 해도 좋아. 하지만 다른 애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얌전히 앉아 있어.
- ③ 이해도 안되는 수업을 들으며 명하니 앉아 있자니 답답해서 자꾸 장난을 치게 된다는 말이지?

가장 듣고 싶은 대답	가장 듣기 싫은 대답
③	①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8). 어울림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고등학교 학생용). 한국교육개발원.

(2) 다음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적고 발표해 봅시다.

듣고 싶은 대답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런 대답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상대방의 입장(기분, 상황, 동기, 노력 등)에서 상황을 제시하며 공감하고 있다. 비록 상대방의 생각이 나와 다르더라도 협력해서 함께 계속 대화를 하고 싶어질 것이다.
듣기 싫은 대답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런 대답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편견, 고정 관념이 있다.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고 있다. 비록 상대방의 생각이 나와 같다고 하더라도 함께 대화하는 데 불편할 것이다.
즐거운 대화를 위해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대화는 상대에 대한 나의 진솔한 태도를 통해 생각을 주고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생각을 헤아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1. 즐거운 토의·토론을 위한 걸림돌과 디딤돌



활동 1

'다름'과 '틀림'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다름과 틀림에 대하여

우리는 '다름'과 '틀림'을 너무 혼하게 혼용하고 있다. ①'다르다'고 표현해야 될 상황에 서 '틀렸다'고 표현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를 보면, 다르다는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이고, 틀리다는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 바라거나 하려는 일이 순조롭게 되지 못하다'로 되어 있다. 의미만 통하면 되지 뭐 어떠냐라는 반응도 있겠지만,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이고 이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많은 사람의 행동과 생활이 바뀌는 것이다.

'너와 내가 다르다'는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면 나는 100% 옳고 당신은 100% 잘못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살이에 어찌 100% 옳고, 100% 틀린 것

이 있을까. 필자도 '다르다'와 '틀리다'를 혼용한 때가 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다르다'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 오고 있다. 아니 의식적으로 '틀리다'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개인적 경험으로 인해 '틀리다'보다 '다르다'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기에 더 편해졌기 때문이다. 내가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다르다'에는 나와 당신이 주고받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옳고 당신이 틀렸다면 서로 주고받을 게 없지만 서로 다르다고 하면 여러 가지를 주고받고 어려운 문제도 잘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옳고 그름이나, 무엇인가 협상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49 대 51의 원리를 떠올린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 100%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동료나 조직 내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내가 2개를 받거나 내가 2개를 주면 일이 해결된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어떤 대화나 협상은 이뤄질 수 없다. 다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한 번은 거쳐 가야 할 과정이 있다. 그것은 대화이다. 나와 그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어찌 눈빛만 보고 알 수 있으랴. 목표는 같지만 과정이 다를 수 있고, 과정은 비슷하지만 목표가 다른 경우도 있다. 암묵적인 동의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 상대의 의도를 알기가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토론 문화가 성숙되지 않아 10분만 이야기하다 보면 의견 절충이 아니라 싸움이 되고 만다.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⑤) 때문이다. 잠시만 그 사람 주장의 이유를 들어보자. 그러면 내가 그에게 무엇을 더 주고, 내가 무엇을 받을지 알게 된다.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을 조율하는 경험을 여러 차례 하게 된 후 얻게 된 교훈이 있다. 그것은 여러 사람의 다른 의견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 조율하기까지 각자의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서로 동의하는 순간 크고 멋진 일들이 일어난다.

'다름'에 대한 우스운 일화가 있다. 한 번은 아이가 맛있는 것을 먹는 걸 보고 그 중에서 가장 맛없어 보이는 하나를 살짝 빼앗아 먹은 적이 있다. 나는 제일 맛있는 것은 먼저 먹고 그 다음 하나씩 먹는데, 아이도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는 울면서 "제일 맛있는 것을 마지막까지 남겨두는데 그걸 훌라당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다. 아이는 나와 다른 시선으로 살고 있음을 몰랐던 거였다.

현재 우리 사회가 인정해야 하는 다름의 시선이 있다. 한국인과 외국인 이민자, 노인과 젊은이, 역사에 대한 시각, 부모와 자식, 나와 동료 등. 다름을 인정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갖고 있는 것들이다. 우리의 말과 언어에서 틀림보다 다름이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사용된다면 우리의 행동에서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10명이 모이면 10개의 시선이 있고, 100명이 모이면 100개의 시선이 있다.

'다름'. 그 단어에는 (②)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출처: 국제신문(2016. 6. 19.). 다른과 틀림에 대하여. (인터넷 기사 검색일: 2020. 2. 10).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160620_22029193910

(1) 짹과 함께 ⑦의 사례에 해당하는 사회 현상이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 봅시다. 우리는 왜 ⑦처럼 '다름'과 '틀림'을 잘못 표현할까요?

사회 현상: 곁으로 드러나는 차이에 대한 편견으로 사회적인 차별을 당하는 집단이 발생(차이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기도 함)

이유: 성이나 피부색, 신체적 특징이 나와 다르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편견 때문

(2) 문맥에 맞게 ⑤과 ⑥에 들어갈 내용을 적어 봅시다.

- ⑤ 일방적으로 내가 옳음을, 당신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기
- ⑥ 나와 다른 너를 서로 존중하고 배려



(3) 토의·토론 과정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관점(주장, 의견)을 마주하게 될 때 '다름'을 이유로 그들의 관점을 무조건 존중할 수 있을까요? 존중할 수 없는 틀린 생각이 있을까요?

나와 생각이 다른 의견이라고 해서 모두 존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모든 인간(생명)은 존엄하다는 보편적 윤리는 토론의 전제이지 대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윤리적 상대주의를 경계하지 않으면 약자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공공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입장에 선 주장이나 의견은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활동 2

토의 · 토론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해 봅시다.

(1)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토의 · 토론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모둠원별 의견

★★★	★★★	★★★	★★★
토의 · 토론은 상대방을 이겨야 한다는 인식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용어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사용	포스트잇에 키워드를 1개씩 써서 붙이세요.	포스트잇에 키워드를 1개씩 써서 붙이세요.
상대방 의견에 대한 논리적 반박 대신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는 대화	출처가 불분명한 소문이나 정보를 주장의 근거로 사용	포스트잇에 키워드를 1개씩 써서 붙이세요.	포스트잇에 키워드를 1개씩 써서 붙이세요.
상대방의 의견은 듣지 않고 내 의견만 제시하는 대화	포스트잇에 키워드를 1개씩 써서 붙이세요.	포스트잇에 키워드를 1개씩 써서 붙이세요.	포스트잇에 키워드를 1개씩 써서 붙이세요.

(2)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토의 · 토론을 돋는 ‘디딤돌’은 무엇인가요?

모둠원별 의견

★★★	★★★	★★★	★★★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닌 나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대화로 인식하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에 대한 단호한 태도	포스트잇에 키워드를 1개씩 써서 붙이세요.	포스트잇에 키워드를 1개씩 써서 붙이세요.
나의 논증에 대한 논리적 허점을 비판한 의견 존중하기	주장이나 의견이 사실에 기초하였는지 살피는 비판적 사고	포스트잇에 키워드를 1개씩 써서 붙이세요.	포스트잇에 키워드를 1개씩 써서 붙이세요.
나와 다른 관점에 있는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포스트잇에 키워드를 1개씩 써서 붙이세요.	포스트잇에 키워드를 1개씩 써서 붙이세요.	포스트잇에 키워드를 1개씩 써서 붙이세요.

2. 즐거운 토의·토론을 위한 규칙 정하기



활동 1

다음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한 토의·토론 규칙을 정해 봅시다.

- (1) 모둠원의 아이디어를 민주 사회의 가치를 나눠 유사한 것끼리 분류하고 즐거운 토의·토론을 위한 약속을 제안해 봅시다.

걸림돌	디딤돌

토의·토론 실천 약속





활동 2

공감하며 상호 존중하는 토의 · 토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실천 약속을 비교 분석 기법으로 정해 봅시다.

공감과 존중이 있는 토의 · 토론을 위한 실천 약속 정하기

()학년 ()반 ()번 성명 () / ()모둠

수행 절차: (개인 활동) 우리 모둠원이 제안한 토의 · 토론 실천 약속들(A~F)을 비교하여 점수 부여하기
→ (모둠 활동) 모둠원 모두가 모든 대안들을 토의 · 토론으로 상호 비교하여 점수 부여하기
→ 총점순으로 실천 약속 3개를 정하여 칠판에 적기 (→ 학급 전체 실천 약속 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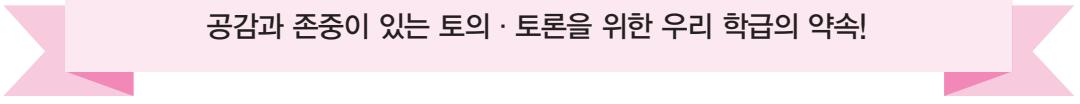
공감과 존중이 있는 토의 · 토론을 위해 모둠별로 제안한 실천 약속

(A) _____ (B) _____ (C) _____
(D) _____ (E) _____ (F) _____

	A	B	C	D	E	F
A						
B						
C						
D	두 과제 [A], [B]의 차이가 없을 때 = 0 과제 [A]가 더 좋을 때 = A1					
E	과제 [A]가 월등히 좋을 때 = A2					
F	과제 [B]가 월등히 좋을 때 = B1 과제 [B]가 월등히 좋을 때 = B2					
총계						

공감과 존중이 있는 토의 · 토론을 위해 우리 모둠이 제안하는 실천 약속 3가지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공감과 존중이 있는 토의·토론을 위한 우리 학급의 약속!

실천 약속

제안 모둠	내용	공감도
		☆☆☆☆☆
		☆☆☆☆☆
		☆☆☆☆☆
		☆☆☆☆☆
		☆☆☆☆☆
		☆☆☆☆☆
		☆☆☆☆☆
		☆☆☆☆☆
		☆☆☆☆☆

참고 자료

■ ‘여행지 선택을 위해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까?’

	비용	숙박 장소	음식	구경거리
비용		①비용 2	②숙박 장소 0	③구경거리 1
숙박 장소			음식 1	구경거리 2
음식				음식 1
구경거리				
결론	비용 2 결론: 여행지 선택에서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구경거리!	숙박 장소 0	음식 2	구경거리 3

· 1단계: 브레인 스토밍하기

비교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열거(1인당 3~5개 정도)한다. 자신이 적은 내용을 설명하고 모둠 안에서 비슷한 내용끼리 분류한 뒤, 비교 분석표에 들어갈 대안을 합의하여 선정한다.

· 2단계: 비교 분석표의 가로축과 세로축에 대안 적기

모둠에서 합의하여 선정한 대안을 비교 분석표의 가로축과 세로축에 동일하게 적는다.
위 사례에서는 모둠에서 합의한 대안은 ‘비용’, ‘숙박 장소’, ‘음식’,
‘구경거리’이다. 내용이 길 경우 기호로 표시해도 된다.
이때 비교 대상은 3개 이상 10개 이하가 적절하다.



· 3단계: 개인별로 비교하고 분석하기

모둠원이 차례대로 비교를 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를 말한다. 위 사례에서 ⑦은 숙박 장소와 비용을 비교하여 볼 때 비용 측면이 숙박 장소 측면보다 2점만큼 우선한다는 의미이고 ⑧은 비용과 음식은 고려의 정도가 비슷하며 ⑨은 구경거리 측면이 비용 측면보다 1점만큼 우선한다는 의미이다. 모둠원 모두는 자신이 선택한 이유(비교 기준)를 말하며 의견을 주고받는다. 단순한 다수결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안에 대해 토의 ·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합당한 결론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4단계: 모둠원과 함께 비교하고 분석하기

모둠원이 각 대안을 비교한 내용 중 하나를 거수로 선택한다. 거수 결과에 따라 점수를 달리 부여한다. 예를 들면 만장일치로 하나를 선택하면 2점, 한 명이라도 다른 선택을 했으면 다수가 선택한 것에 1점, 동일하게 선택하면 0점을 부여한다.(만장일치가 아닐 경우 비교 기준에 대해 토의 · 토론하고 다시 거수할 수 있다.)

점수 부여 방법

두 기준 [A], [B]의 차이가 없을 때 = 0	두 기준 [A], [B]를 선택한 모둠원이 동수일 때
[A] 기준이 더 좋을 때 = A1	[A] 기준을 모둠원의 다수가 선택했을 때
[B] 기준이 매우 좋을 때 = B2	[B] 기준을 모둠원이 만장일치로 선택했을 때

· 5단계: 총점 구하기

4단계에서 부여한 각 대안별 총점을 구하여 결론 칸에 기록한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대안이 바로 그 모둠의 으뜸 대안이 된다.

출처: 경기도토론헤육연구회(2019). 토론이 수업이 되려면. 교육과 실천.



생각 정리하기

(1) 토의 · 토론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마주하게 될 때 고려할 사항을 정리해 봅시다.

(2) 토의 · 토론 과정에서 어떤 학생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왜 문제일까요?

“저는 장애인의 권익은 보호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어떤 영역에서 자질이나 능력이 정상인과 대등하다면 단지 장애인이라고 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출처: 박효종 외(2002).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인권관련내용 분석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은 노동할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권리를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권리는 비장애인과 능력이나 자질이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로 인식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는 까닭이 자질이나 능력이 같아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을 정상인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하여 마치 장애인은 비정상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3) 공감과 존중이 있는 토의 · 토론을 하기 위해 자신이 특별히 노력하고 싶은 점을 정리해 봅시다.

평가기준

민주시민의 의미와 민주 사회의 가치를 고려하여, 차이와 다양성 인정 및 공감과 상호 존중을 위한 토의·토론 태도 및 지켜야 할 규칙을 결정한다.

상	차이와 다양성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고 존중하는 토의·토론의 태도를 성찰하며 토의·토론에서 노력하고 실천해야 할 규칙을 민주적으로 결정하는데 협력적으로 참여한다.
중	차이와 다양성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고 존중하는 토의·토론 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토의·토론에서 노력하며 실천해야 할 규칙을 민주적으로 결정한다.
하	토의·토론에서 요구하는 공감과 상호 존중의 의미를 이해하며 이를 위한 규칙을 정하는 데 참여한다.

참고 문헌

- 박효종 외(2002).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인권관련내용 분석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한국교육개발원(2018). 어울림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고등학교 학생용). 한국교육개발원.
- 경기도토론헌법연수회(2019). 토론이 수업이 되려면. 교육과 실천.
- 국제신문(2016. 6. 19.). 다름과 틀림에 대하여. (인터넷 기사 검색일: 2020. 2. 10.).

2 토의 · 토론 의제 어떻게 선정할까?

성취기준	[12시토02-03] 민주 사회의 삶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토의 · 토론의 목적(공감과 이해, 의견 나눔, 합의, 논쟁 등)을 고려하여 토의 · 토론 의제를 선정한다.
관련 교과 성취기준	[12화작02-02]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이나 바라는 바를 진솔하게 표현한다. [12화작02-04] 협상 절차에 따라 상황에 맞는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원격수업 활용 Tip

- ‘생각 열기’에서는 바로 과제를 제시하는 것보다 교사가 먼저 음성으로 학생들의 대화를 들려 주고 그 대화의 쟁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준다.
- ‘토의 · 토론 의제에 대한 이해’에 제시된 예시를 바탕으로 각각 살면서 이해, 합의 및 논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돌아가며 얘기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준다.
- ‘토의 · 토론 의제 만들어 보기’에 제시된 그림책을 함께 읽은 후 소집단을 만들어 집단별로 토론(토의)한 후 전체가 모여 소집단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생각 정리하기’는 각자가 생각을 정리한 후 과제로 제출한다.



생각열기

다음 대화 중 학생 A와 학생 B가 각각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학생 A: 내년부터 교복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입을 수 있대.

학생 B: 나도 얘기는 들었어. 그런데 교복이 자율화되면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학생 A: 왜 그렇게 생각해?

학생 B: 교복보다 사복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테니까 부모님의 부담이 늘어날 거야.
그리고 학생과 성인의 구분이 힘들어져 자칫 청소년 탈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학생 A: 난 꼭 그렇게는 생각 안 하는데. 교복도 사복만큼 비싸고, 우리 같은 청소년들은 매년 성장하기 때문에 중간에 교복을 새로 사야 하는 경우도 있어. 또 지금처럼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에 획일화된 교복을 입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 생각해. 좀 더 다양하게 자신을 보여줄 수 있게 교복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난 생각해.

(1) 학생 A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복을 자율화해야 한다.

(2) 학생 B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복을 자율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한다.



1. 토의·토론 의제에 대한 이해



활동 1

우리의 삶과 관련된 여러 영역에서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1)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엄마는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는 아이 담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라 상황이 궁금하기도 하고 좀 엄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상황이라 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내가 때리기는 했다. 그렇지만 그 친구가 먼저 말로 나에게 시비를 걸었던 거다. 선생님이 야단치셔서 내가 잘못한 것을 안다.”며 “죄송해요 엄마”라고 했습니다.

출처: 정혜신(2018). 당신이 옳다. 해냄.

- ①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아이와 대화한다.
- ② 상대방이 잘못해도 참으라고 얘기해 준다.
- ③ 아이가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먼저 위로해 준다.
- ④ 상대방 아이가 시비를 건 것이 사실인지 확인한다.
- ⑤ 먼저 폭력은 쓴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잘못을 바로 잡아준다.

▶ 살면서 공감과 이해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 형편이 어려운 친구를 도울 방안을 마련할 때
-
-

(2) 다음과 같은 대화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고객: 이 청동접시 얼마예요?

주인: 멋진 골동품이죠. 75달러는 주셔야 합니다.

고객: 그런데 여기 흠집이 있잖아요. 15달러에 주세요.

주인: 적당한 값을 부르셔야 흥정이 되지요. 너무 깎으시는군요.

고객: 20달러까지는 낼 수 있지만 75달러는 말도 안 돼요. 정말 받을 가격을 말해 보세요.

출처: 로저 피셔 · 윌리엄 유리(2019). YES를 이끌어 내는 협상법. 장락.

- ① 효율적인 방식이어야 한다.
- ② 자신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
- ③ 협상자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 ④ 현명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 ⑤ 양측의 합리적 이해관계를 최대한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 살면서 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 여행을 어디로 갈지 정할 때
- 친구들과 점심 메뉴를 고를 때
- 부모님과 용돈 액수를 정할 때
- 부모님과 게임 시간을 정할 때

(3) 두 사람은 무엇에 관해서 논쟁하고 있는 것일까요?



학생 A: 넌 동물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학생 B: 응, 동물원은 책에서만 볼 수 있었던 세계 각지의 동물을 볼 수 있게 해 주잖아.
생태교육의 장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

학생 A: 난 그리 교육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 인간을 위해 우리에 갇혀 사는 동물들을
봄으로써 오히려 야생동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고.

출처: 김강석 · 안재정 · 최소영(2015). 생각하는 십대를 위한 토론 콘서트 중 환경 편. 꿈결.

① 동물원은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서

② 동물원은 동물의 야생성을 유지시켜 주는 곳인지에 관해서

③ 동물원은 희귀 동물을 볼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 살면서 어떤 경우에 논쟁을 하게 되나요?



활동 2

목적에 맞는 의제를 만들어 봅시다.

(1) 다음의 주장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보기>에서 찾아봅시다.

주장	목적
000은 사기 혐의가 있다.	④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③/⑥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	⑥
정유회사는 시에 작년 대비 2배의 세금을 내야한다.(세금 인상 협상)	②/③
담배는 건강에 좋지 않다.	④
불편한 교복,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	③
환경 보존이 개발보다 중요하다.	⑥
저소득 소외 계층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	①/③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⑤
한국은 미국에 방위비로 50억 달러를 내야 한다.(방위비 분담금 협상)	②

<보기>

- ① 공감과 이해를 돋기 위해서
- ② 이해(利害)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 ③ 제도(정책)으로 실행을 하기 위해서
- ④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 ⑤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 ⑥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2) 민주시민의 삶과 관련된 여러 영역에서 다음의 목적에 따라 의제를 만들어 봅시다.

▶ 공감과 이해를 돋기 위한 의제

▶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의제

▶ 다양한 문제 중 제도로 만들어 실행해야 하는 의제

▶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의제

▶ 이해(利害)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의제

▶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제

(3) 토의 · 토론 의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토론, 토의, 논쟁, 협상의 특징과 의제 비교하기

	토론	토의	논쟁	협상
목적	자신의 입장을 고수 하며 청중 설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해결 방안에 초점 · 설득, 협의, 정보, 의견 교환 	설득	갈등의 조정과 합의, 타협
성격	대립된 두 가지 주장 중 결론 도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해결 모색	쟁점 중심의 대립적 밀하기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말하기
의견	대립적	대립 없음	대립적	대립적
상호 작용	경쟁적 상호 작용	협력적 상호 작용	경쟁적 상호 작용	경쟁적 상호 작용
의제 사례	학교 내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학교 내 도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학교 내 CCTV를 설치하면 인권이 침해되는가?	학교 내 CCTV를 몇 대나 설치해야 하는가?

출처: 백지원 외(2011). 토론을 알면 수업이 바뀐다. 창비.

- ▶ 토의, 토론, 논쟁, 합의에서 그 바탕이 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이해.

공감과 이해



- ▶ 의제의 유형

- **사실 의제** 사실 여부에 대한 주장이다. 진술의 참, 거짓을 증명하는 주장으로, 주로 ‘~이다./ ~이 아니다.’, ‘~이 있다./~이 없다.’에 대한 것이다. 법정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는 유형이다.

피고 000은 사기 혐의가 있다.

- **가치 의제** 가치 판단에 관한 주장이다. 어떤 가치를 우선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주장으로, 주로 ‘~이 옳다./~이 그르다.’, ‘~이 바람직하다./~이 바람직하지 않다.’ 등을 가려야 한다.

선의의 거짓말은 바람직하다.

- **정책 의제** 정해진 입장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포함하는 주장으로, 주로 ‘~ 해야 한다.’에 대한 것이다. 또한 제시된 방안이 현재의 문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실행했을 때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 논의한 후 그 방안(정책)의 선택을 판단하는 주장이다.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협의(협상)를 위한 의제** 어떤 사람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견을 교환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기 위해서 합의하는 것으로, 나와 상대방이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상반된 이해관계에 처했을 때 합의를 보기 위해 밀고 당기는 대화이다.

한미 간의 무역 협상 / 노사 간 임금 협상

- **토의를 위한 의제** 여러 의견을 견주어 보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협동적인 의사소통’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의제이다.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출처: 백지원 외(2011). 토론을 알면 수업이 바뀐다. 창비.

▶ 좋은 토론 의제의 조건

-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대립 구도가 생겨 서로 부딪치는 쟁점이 있어야 한다.

초등학생의 PC방 출입, 어떻게 볼 것인가?

→ 초등학생의 PC방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 논제는 하나의 주장에 한정되어야 한다.

휴대전화는 학습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 휴대전화는 학습에 도움이 된다.

- 토론하고자 하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한다.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 → 인간의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

-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되어야 한다.

사형 제도를 존속해야 한다. →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찬반 어느 한쪽에 유리한 감정이 담긴 표현은 배제해야 한다.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확대되어야 한다.

→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확대되어야 한다.

출처: 백지원 외(2013). 즐거운 토론 수업을 위한 토론 교과서. 창비.

2. 토의·토론 의제 만들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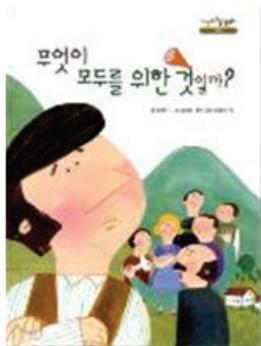


활동 1

‘무엇이 모두를 위한 것인가’를 읽고 각 등장인물의 갈등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무엇이 모두를 위한 것인가?

‘무엇이 모두를 위한 것일까?’는 헨릭 입센의 ‘민중의 적’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스토크만 박사는 자신이 살던 마을에서 온천을 발견하게 되고 마을은 그 온천으로 유명해져 많은 관광 수익을 얻게 된다. 거대한 온천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은 마을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스토크만 박사는 배수 시스템이 심각하게 오염된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가 후브스타드와 아슬락센을 포함한 공동체의 여러 회원들에게 경고를 하자, 그는 마을을 구하게 된 발견에 대해 감사의 말을 듣게 되고 동시에 관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시장인 그의 형이 오염처리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에게 그의 진술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한다. 게다가 시장은 스토크만 박사의 발견들에 대해 납득을 하지 못한다.



두 형제가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지만 스토크만 박사는 적어도 후브스타드의 신문은 그를 지원할 거라는 희망을 가진다. 그렇지만 시장은 후브스타드와 아슬락센으로 하여금 스토크만 박사의 반대편에 설 것을 설득시킨다. 박사는 온천에 대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마을 모임을 열게 되지만 아슬락센과 시장이 그가 말하는 것을 저지하려 한다. 그러자 스토크만 박사는 마을 협회와 다수의 횡포를 비난하는 입장 연설을 시작한다. 관중들은 그의 연설을 매우 불쾌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다음날 아침 박사의 집까지 크게 훼손된다.

시장은 박사의 행동들이 단지 모텐 킬의 돈을 더 챙기려는 계획이었다며 의심을 품고, 킬 자신도 스토크만 박사에게 그러한 계획을 곧 제안하려 한다. 그렇지만 박사는 그러한 모든 제안을 거부하고 마을에 남아서 권위에 도전하기로 결정한다. 그의 가족은 그를 열심히 응원한다. 홀로이 견디는 사람이 바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그는 말한다.

출처: 네이버지식백과. 민중의 적(인터넷 검색일: 2020.2.2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73417&cid=41773&categoryId=44401>
 윤해주 글 · 송정화 그림(2011). 무엇이 모두를 위한 것일까. 느낌표! 철학동화.

(1) 각 인물들의 갈등 상황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고, 짹과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등장인물	갈등 상황
신문 기자	진실을 알리는 기사를 써야 할까? 포기해야 할까?
시장	
마을 사람들	
스토크만 박사	

(2) 각 인물들이 갈등 상황에서 한 선택으로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등장인물	선택	얻는 것	잃는 것
신문 기자	진실을 알리는 기사를 포기한다.	일자리 유지/마을의 혼란 방지	기자의 양심/진실
시장			
마을 사람들			
스토크만 박사			



활동 2

각 인물들의 선택을 고려하여 토의·토론을 위한 의제를 만들어 봅시다.

(1) 등장인물별 갈등을 의제로 작성해 봅시다.

등장인물	의제
------	----

의제 형태: () 가(이) ()한 것은 바람직하다./옳다.

신문 기자	- 신문 기자가 기사를 포기한 것은 바람직하다.
시장	
마을 사람들	
스토크만 박사	

(2) 위에서 만든 논제 중 모둠 토의를 통해 함께 토론하고 싶은 의제를 하나 고르고, 의제의 유형과 선택한 이유를 말해 봅시다.

모둠 대표 의제	
의제 유형	
선택 이유	



생각 정리하기

(1) 주변에서 잘못된 상황을 보고도 귀찮거나 무서워서 그냥 지나친 적은 없나요?

(2)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라면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3)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수의 판단이 항상 옳은가요?

▶ 위의 활동을 바탕으로 삶과 관련된 상황들로 의제를 만들어 봅시다.

①	
②	
③	

평가기준

민주 사회의 삶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토의·토론의 목적(공감과 이해, 의견 나눔, 합의, 논쟁 등)을 고려하여 토의·토론 의제를 선정할 수 있다.

상	민주 사회의 삶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토의·토론의 목적(공감과 이해, 의견 나눔, 합의, 논쟁 등)을 고려한 토의·토론 의제를 선정할 수 있다.
중	민주 사회의 삶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토의·토론 의제를 선정할 수 있다.
하	삶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토의·토론 의제를 선정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백지원 외(2011). 토론을 알면 수업이 바뀐다. 창비.
- 윤해주 글·송정화 그림(2011). 무엇이 모두를 위한 것일까. 느낌표! 철학동화.
- 백지원 외(2013). 즐거운 토론 수업을 위한 토론 교과서. 창비.
- 김강석·안재정·최소영(2015). 생각하는 십대를 위한 토론 콘서트 중 환경편. 꿈길.
- 정혜신(2018). 당신이 옳다. 해냄.
- 로저 피셔·윌리엄 유리(2019). YES를 이끌어 내는 협상법. 장락.
- 네이버지식백과. 민중의 적 (인터넷 검색일: 2020. 2. 2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73417&cid=41773&categoryId=44401>

③ 토의 · 토론 의제에 맞는 자료 조사 및 분석하기

성취기준	[12시토02-04] 민주 사회의 가치를 고려하여 토의 · 토론 의제에 맞는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토의 · 토론 절차에 맞게 정리한다.
관련 교과 성취기준	[10국01-03] 논제에 따라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에 참여한다.

원격수업 활용 Tip

1. 온라인 수업에서는 채널을 2개로 설정하여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 전체 수업 차시 안내, 본 차시 수업의 기본 개념 원리, 동기 유발, 수업 주제 동영상 자료를 공유한다. 동시에 다른 채널(밴드, 톡모임, 클래스룸)에서는 학생의 진행 사항 확인, 간단한 질문이나 답변으로 상호 작용을 도모할 수 있다.
2. 학생들이 수업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학생 입장시 수업 전-수업 중-평가하기 등 과제를 안내 한다.
3. 온라인에서는 모둠 구성을 소희의별로 나눠 구성하고 사전에 학생 의견 수렴을 통해 학생의 성향과 수준에 맞는 역할을 분배한다. 소희의방에서 이끌이, 기록이, 공감이, 입큰이(발표자) 등 촘촘하게 역할을 분배하여 특정 학생의 독점 진행과 무임승차를 예방할 수 있다.
4. 구글 설문 품을 통해 참여형으로 모둠별 의견을 공유할 수 있고 패들릿을 활용하면 접착 메모지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러한 도구 활용의 팁도 사전에 안내하면 원활한 진행을 도울 수 있다.
5. 학생 개별 의견 개진이나 댓글 달기 기능을 통해 교사-학생, 학생-학생의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 학생의 온라인 댓글 쓰기에 교사 댓글을 추가하여 피드백을 실시할 수 있다.
6. 모둠 활동 시에 교사는 소희의방에 수시로 참관하며 학생들의 학습 진행과 피드백할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학습 과제는 클래스룸에 제출하도록 하여 학습자의 학습 상태 확인 및 학습 결과를 공유한다.





생각열기

다음 두 뉴스 기사의 정보 내용을 정리하고 진실 보도의 중요성에 대해 모둠 토의해 봅시다.

[뉴스 기사 1]

NEWS

“아이만 내렸어요!”, 엄마의 절규에도...
240번버스의 만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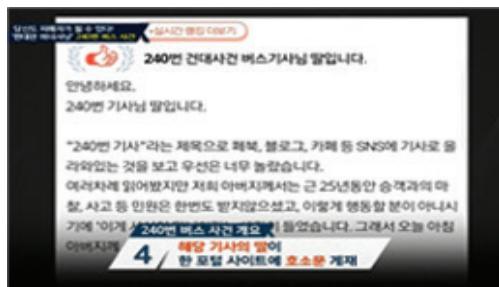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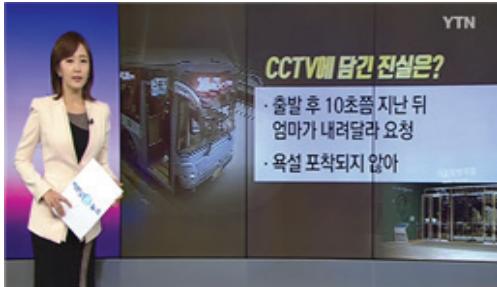
▶ 위 두 뉴스를 읽고 K-L-W 활동을 통해 진실한 정보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

KNOW(새롭게 알게 된 것)	LEARN(이미 알고 있는 것)	WANT(더 알고 싶은 것)
가짜 뉴스의 확산은 무분별한 받아쓰기의 언론에 책임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를 온라인을 통해 본다.	가짜 뉴스를 변별하는 방법 정보의 적절성 판단 방법

[뉴스 기사 2]

NEWS

240번 버스 사건 대반전...
CCTV 공개 안 되는 이유는?



▶ 육하원칙을 적용하여 두 뉴스 기사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구분	내용 정리(육하원칙)
[뉴스 기사 1]	
[뉴스 기사 2]	

1. 토의·토론 의제에 맞는 자료의 적절성 판단하기



활동 1

토론 참여자의 발화 내용이 논제에 적절한지 판단하는 활동을 해 봅시다.

- (1) 다음은 “학교 축제에 연예인을 초청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논제에 관한 토론의 일부입니다.
토론 참여자의 발화 내용을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봅시다.

가



학교 축제의 원래 의도는 학생들이 어울려 교류하며 각 학교만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예인의 공연에 지나친 관심이 쏠리면서 축제의 의도가 빛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축제 예산의 대부분을 공연료로 지출하고 있어 다른 축제 행사에 돌아갈 지원금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 축제에 연예인을 초청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평가: 현재 축제의 모습이 축제의 본래 의도와 어긋나 있음을 제시하고, 더불어 과도한 예산 지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는 연예인 초청을 반대하는 근거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나



축제 예산은 축제 때 쓰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연예인 초청에 쓰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나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는 동아리의 축제 행사 지원금을 연예인 초청에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인기 없는 동아리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 연예인을 초청하는 학교 축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동아리의 축제 행사 지원금을 정리하는 행위는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이다. 다른 동아리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저는 신문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요즘 인기 있는 대중가요의 노랫말에 국어 파괴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해괴한 조어, 엉터리 외국어 등으로 뒤틀려버렸다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라도 학교 축제에 연예인을 초청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평가:

라



지난 한 주 동안 학교 축제에 연예인을 초청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블로그에서 블로그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72.8%가 학교 축제에 연예인이 오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약 73%의 사람이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





활동 2

토의·토론에서 자료의 출처 및 의도 파악의 중요성을 익히기 위해
논제에 맞는 자료의 신뢰성과 적절성을 판별하는 활동을 해 봅시다.

- ◆ “북한에 대한 남한의 경제 지원 적절한가?”의 논제에 맞는 토론 자료를 수집할 때, 다음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해 봅시다.

北에 쌀 5만t 보낸다는 정부…2년전 소문이 현실로?



2017년 공공비축미 두 배 매입 쌀값 12만→19만 원대 폭등 원인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대북 식량지원 계획에 따라 북한으로 보내기로 한 쌀 5만t은 2017년 수확한 것이다. 정부는 그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쌀을 시장에서 사들였고 이는 쌀값이 폭등하는 원인이 됐다.

2017년 9월 김영록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7만t의 쌀을 정부가 매입(시장격리)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식량안보를 위해 매년 35만t 안팎의 공공비축미를 매입하는데 이와는 별도로 37만t을 추가로 사들여 총 72만t을 시장에서 거둬갔다. 37만t은 수확기 격리량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이 조치가 시행되기 전 생산된 2016년산 쌀은 산지가격이 한 가마니(80kg)당 12만 원대였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에서 쌀을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2017년산 쌀 가격은 고공행진했다. 2017년 10월 15만 원대에서 시작해 이듬해 3월 17만 원대에 진입했고 9월에는 18만 원에 근접했다. 치솟은 쌀 가격은 2018년산에도 영향을 줘 현재는 19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정부가 2017년산 쌀을 대량 매입했을 때부터 야권을 중심으로 “대북 지원을 염두에 두고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쌀 가격이 사상 최고인 19만 원대를 기록하자 인터넷과 SNS 등에는 “정부가 북한에 쌀을 몰래 보내 창고에 공공비축미가 남아있지 않다.” “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쌀을 맞바꿨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돌았다.

그때마다 정부는 “정부가 쌀을 매입한 건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이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에 보내기로 한 쌀이 공교롭게도 대량 매입으로 가격 폭등의 단초가 된 2017년산이라는 게 알려지며 정부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대북 지원용 쌀이 2017년산이 된 건 우연의 일치인데 국민이 인터넷에서 떠돌던 괴담을 사실로 받아들일까 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경제(2019. 6. 20). 北에 쌀 5만t 보낸다는 정부…2년전 소문이 현실로?. (인터넷 기사 검색일: 2020. 2. 1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62079351>

(1) 윗글을 바탕으로 토의 · 토론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해 봅시다.

▶ 윗글에 대해 팩트-체크 질문 전략을 활용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해 봅시다.

연번	팩트-체크 질문전략	내용
1	어디에서 만든 자료인가?	
2	동일한 내용의 다른 정보가 더 존재하는가?	
3	기사에 필자의 정보가 있는가?	
4		
5		

▶ 팩트-체크 활동 결과, 윗글이 논제에 맞는 신뢰성 있는 자료인지 판단해 봅시다.

윗글은
논제에 맞는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없다.

왜냐하면

.....

.....

.....

때문이다.

(2) 윗글이 논제에 맞는 적절성이 있는 자료인지 판단하는 활동을 해 봅시다.

▶ (개별 활동) 각자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해 봅시다.

구분	내용	
주장		
근거		
자료의 적절성 판단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근거가 주장과 관련성이 없다
	(이유)	(이유)
논제와 자료와의 관련성	논제에 맞는 자료이다.	논제에 맞지 않는 자료이다.
	(이유)	(이유)

▶ (모둠 활동) 모둠 친구들과 함께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해 봅시다.

구분	모둠 협의 내용
자료의 적절성	
이유	

(3) 논제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찾아서 자료의 신뢰성과 적절성을 평가해 봅시다.

▶ (모둠 활동) 논제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자료를 모둠별로 찾아봅시다.

논제	북한에 대한 남한의 경제 지원 적절한가?		
입장	찬성	적절하다	반대
자료 수집 경로	❶ 인쇄 매체		
	❷ 시청각 매체	다큐 방송 통일전망대	
	❸ 인터넷	인터넷 신문 오마이 뉴스	
	❹ 전문가 면담		
자료 내용 정리	자료1	[주장]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결코 손해 아니다	출처: ❸
		[근거] – 북한의 경제적 중국 종속화 예방 – 통일을 위한 북한 민족의 심리적 동질감 고양	
	자료2	[주장]	출처:
		[근거]	

▶ (모둠 활동) 자료 수집 활동 후 논제와 관련하여 자료의 신뢰성과 적절성을 분석해 봅시다.

구분	신뢰성	적절성
자료1	어디에서 만든 자료인가? 필자의 정보가 있는가? 주장에 적합한 자료인가?	제시한 근거가 주장에 타당한가? 주장과 근거의 조작이 체계적인가? 사용한 표현이 논리적이고 명료한가?
자료2		

2. 토의·토론 의제에 맞는 자료 수집 및 선별하기



활동 1

토의·토론 의제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여 선별하고 조직하여 체계화하는 활동을 해 봅시다.

- (1) “학교에서 개인컵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제로 주장하는 말하기를 할 때, 자료를 수집하는 경로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적어 봅시다.

인쇄 매체 백과사전, 신문, 책, 잡지 등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정보의 신뢰성이 높다.
시청각 매체 텔레비전 방송, 영화, 음악, 그림, 만화 등		
인터넷		
전문가 면담		
전문 기관 방문 환경단체, 환경관, 도서관, 기념관 등		

(2) ‘학교에서 개인컵 사용 의무화’를 주장하는 말을 하기 위해 (1)처럼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수집된 정보를 분류하고 체계화해 봅시다.



(3) 의제, 목적, 청중 등을 고려하여 정보의 분류 기준에 따라 정보를 분류해 봅시다.

분류 기준	정보
문제 제기	④ ⑤
해결 방안	
기대 효과	

(4)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수집한 자료 중에서 유용한 자료를 선정해 봅시다.

수집 자료 선정 기준	개인컵 사용 의무화 용어 정의	문제 상황과 심각성			
자료의 출처가 분명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가?					
최근에 발행한 자료인가?					
주장의 목적과 주제를 나타내는데 효과적인가?					
청중에게 의미 있는 자료인가?					

(5) 청중을 고려하여 의제에 맞게 자료를 구조화하고 배열해 봅시다.





활동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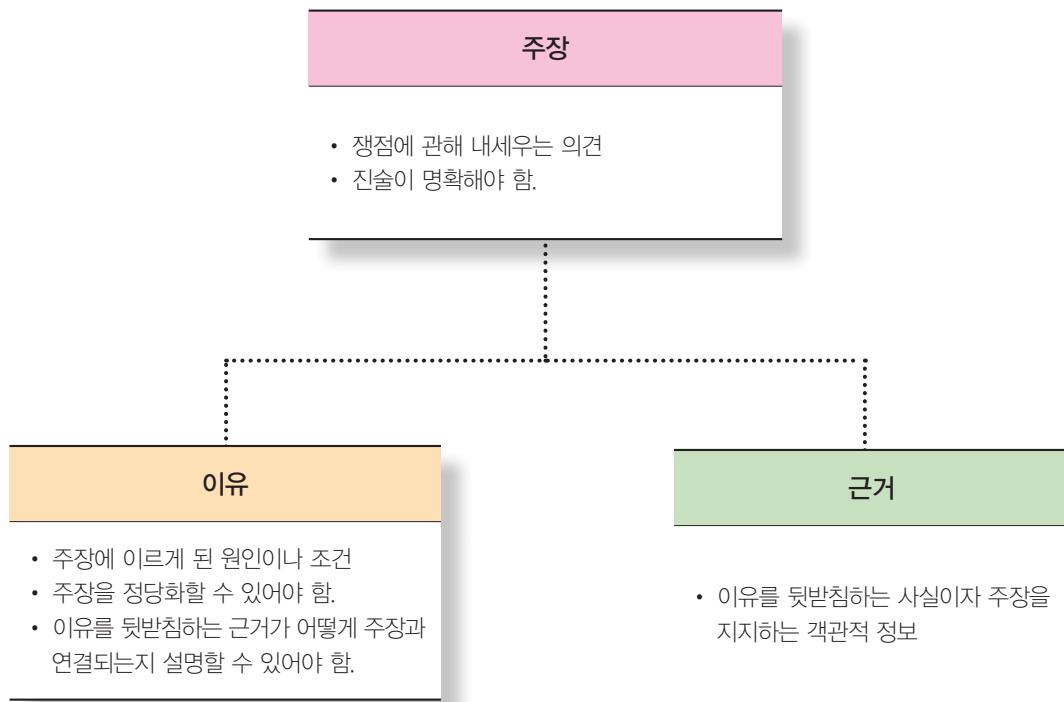
논제에 맞는 필수 쟁점을 선정하고 논증을 구성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토론 개요서를 작성해 봅시다.

- ◆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돋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도입해야 한다.”의 논제로 찬반 입론을 구성하려고 할 때, 다음을 참고하여 논제에 맞는 자료를 조사하고 절차에 맞게 정리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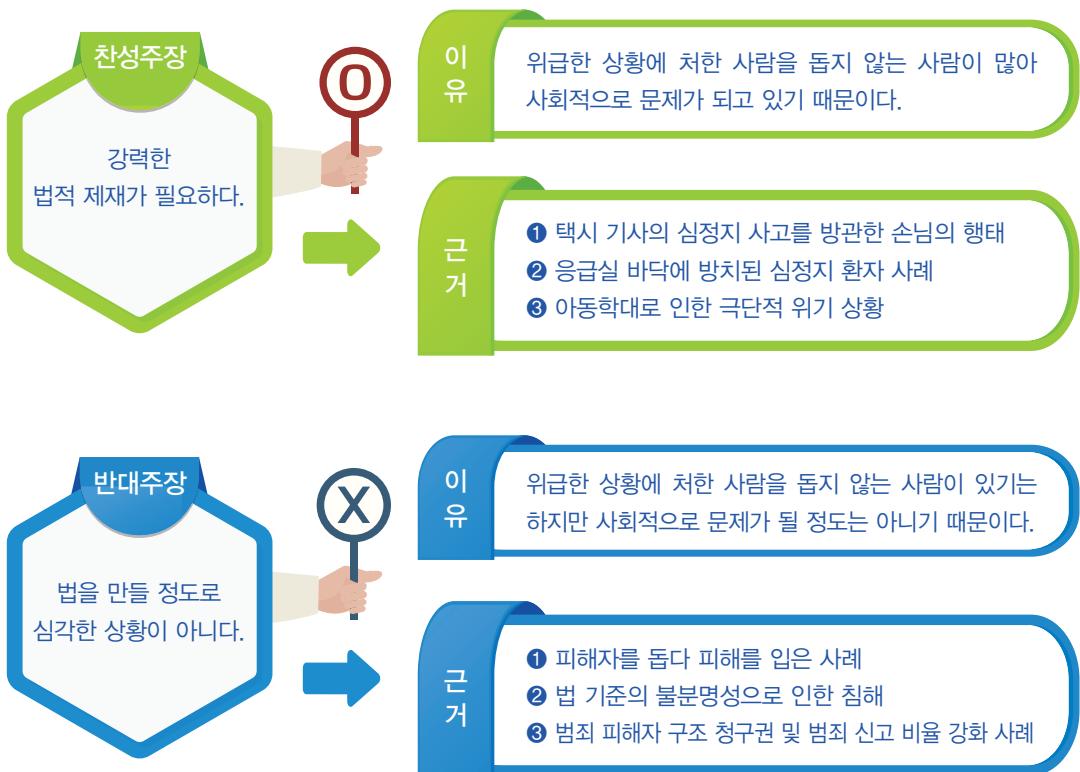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

문제	문제의 심각성, 중요성, 시급성, 상황의 지속성 등에 관한 쟁점이다.
해결 방안	제시된 방안의 문제 해결 가능성 및 실행 가능성에 관한 쟁점이다.
효과와 이익	해결 방안에 따른 효과 및 개선 이익에 관한 쟁점이다.

[논증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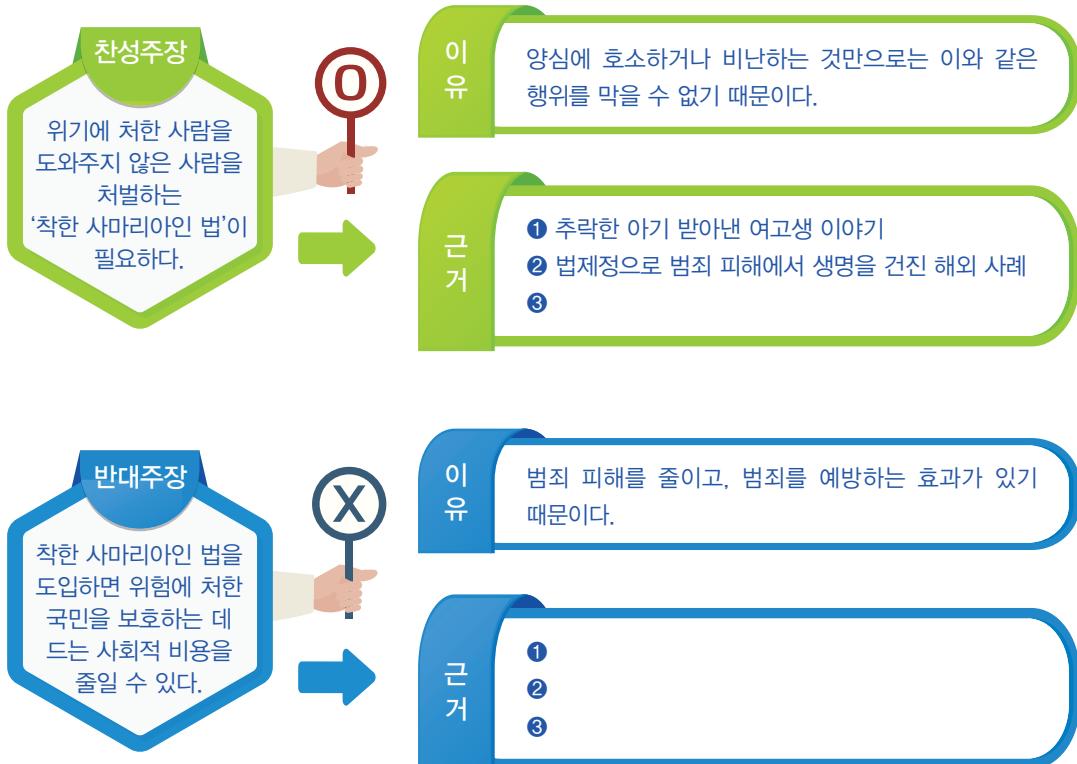
(1)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정한 후 핵심 쟁점을 반영한 첫 번째 입론의 논증을 구성해 봅시다.



(2) 자신이 찬성 측 '두 번째 입론자'라고 가정하고, <보기>의 근거를 참고하여 두 번째 입론의 논증을 구성해 봅시다.

<보기>

- 추락한 아기 받아낸 여고생 이야기 뉴스 영상 자료
- 구조 불이행법의 문제점 관련 신문 기사
- 법으로 범죄 피해에서 생명을 건진 해외 사례
- 법의 오용과 악용을 통한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은 사례
- 법 제정 및 법 공포로 인한 비용이 많이 든다는 통계 자료
- 범죄 감시 고발의 책임과 의무 의식이 높아질 거라는 전문가의 의견



(3) 찬반 핵심 쟁점을 반영한 토론 개요서를 작성해 봅시다.

핵심 쟁점	찬성 측	반대 측
문제	<p>주장: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p> <p>이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돋지 않는 사람이 많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p> <p>근거: 위급한 상황에서 주위에 도움을 요청 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해 결국 사망한 최근의 여러 사고 자료</p>	<p>주장: 법을 만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p> <p>이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돋지 않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이다.</p> <p>근거: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우리나라의 범죄 신고 및 피해자 구조 비율</p>

해결 방안	주장: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필요하다. 이유: 양심에 호소하거나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이와 같은 행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주장: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돋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지 않다. 이유: 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양심에 따라 선택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근거:
효과와 이익	주장: 이유: 근거:	주장: 이유: 근거:



생각 정리하기

(1) 다음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자료로 가장 적절한 번호를 골라 봅시다.

▶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고,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 ① 현장의 모습을 찍어 놓은 사진
- ② 대통령의 의견
- ③ 앞으로 5년이 지나서 발간될 회고록
- ④ 신문 기사의 내용



▶ 교통사고가 난 원인을 파악하려는 자료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고,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 ① 도로 교통 전문가의 추측
- ② 사고 현장을 목격한 중학생의 말
- ③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경찰관의 의견
- ④ 사고 현장 부근에 사는 주민의 말

▶ 경복궁 관람을 마치고 경복궁의 문화재에 대한 견학 기록문을 쓰는 데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자료 2가지를 고르고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 ① 경복궁 문화재와 관련된 기념품들
- ② 경복궁 문화재에 관한 안내 책들
- ③ 경복궁 관광 안내 지도
- ④ 5년간 경복궁 관광객 수에 대한 통계표

(2) 다음 인물이 처한 상황을 지역 사회 관계자의 관점에서 그 적절성을 판단해 봅시다.

몹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세찬 눈보라가 치고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을 만큼 추운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얼어 죽는 일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동네 뒷산 빙터에 조그만 옴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옷을 날마다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아저씨는 경찰에 붙잡혀 갔습니다. 남의 땅에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지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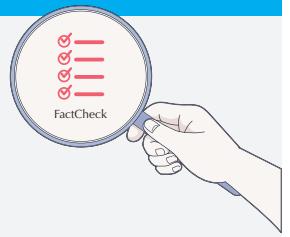
판단자	옳은 행동이다	옳지 못한 행동이다	이유
도움을 받은 사람들			
경찰			
집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			
땅 주인			
재판관			

평가기준

민주 사회의 가치를 고려하여 토의 · 토론 의제에 맞는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토의 · 토론 절차에 맞게 정리할 수 있다.

상	민주 사회의 가치를 고려하여 토의 · 토론 의제에 맞는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토의 · 토론 절차에 맞게 주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중	민주 사회의 가치를 고려하여 토의 · 토론 의제에 맞는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토의 · 토론 절차에 맞게 정리할 수 있다.
하	토의 · 토론 의제에 맞는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허위 정보 판별법

1. 정보의 출처를 찾으세요.

실제 언론사에서 작성한 뉴스가 맞는지, 해당 홈페이지가 확실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언론사는 정작 작성한 적이 없는 가짜 뉴스이거나, 유명한 언론사를 흉내 내는 가짜 뉴스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2. 제목 뒷부분까지 읽으세요.

제목은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으로 달고, 정작 내용은 제목과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본문에서나, 결론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은지 끝까지 읽어 보세요.

3. 작성자를 확인하세요.

누가 쓴 글인지, 글쓴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쓴 글이 확실한지, 혹은 글쓴이가 존재하길 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4. 근거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해당 뉴스를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는 근거자료를 링크로 걸어 두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5. 날짜를 확인하세요.

지금 상황에 적용할 수 없는, 아주 오래전 뉴스를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과거의 뉴스가 사실이었다 해도, 현재 상황을 왜곡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6. 해학, 농담을 구분하세요.

신랄한 풍자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7. 당신의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진 않았나요?

우린 우리가 믿고 싶은 쪽의 뉴스만 찾아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지, 당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8. 전문가에게 물어 보세요.

만약 뉴스의 출처를 확인하기도, 기사를 끝까지 읽기도, 저자를 확인하거나 근거 자료를 확인하기에는 너무 바쁘다면 팩트체크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참고 문헌

- 기사 원문: https://www.ytn.co.kr/_ln/0103_201709121651518594
- sbs 8시뉴스(2017. 9. 12.). 아이만 내려놓고 버스 출발 진실은?. (인터넷 기사 검색일: 2020. 2. 1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91205
- 지식채널e (2017. 12. 7.). 뉴스 문맹 1부. 정말 아무 뉴스나 다 믿는구나. (인터넷 기사 검색일: 2020. 2. 18.). <https://youtu.be/i2Q849EoUNE>
- 기사 원문: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2/2017091202534.html
- 조선비즈(2017. 9. 12.). ‘240번 버스 사건’ 대반전…CCTV 공개 안되는 이유는?. (인터넷 기사 검색일: 2020. 2. 18.)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2/2017091202534.html
- YTN 뉴스(2017. 9. 12.). CCTV에 담긴 240번 버스의 진실. (인터넷 기사 검색일: 2020. 2. 18). <https://www.youtube.com/watch?v=o7wuLxguu5U>
- 박영목(2014).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천재교육. pp. 160–161.
- 한국경제(2019, 6. 20). 北에 쌀 5만t 보낸다는 정부…2년전 소문이 현실로?. (인터넷 기사 검색일: 2020. 2. 1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62079351>
- 박영목(2014).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천재교육. p. 182. 해당 내용을 수정하였음.
- 성정은(2018). 뉴스 비판적 읽기 교육이 중학생의 비판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 논문.
- 네이버 포스트(고교독서평설)
- 미디어리터러시(2018). 가짜 뉴스를 통한 초등 미디어교육.
- 부산 뉴스 리터러시 연구회. (인터넷 검색일: 2020. 2. 18.). <https://dadoc.or.kr/2587>

4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은 어떻게 제시해야 할까?

성취기준	[12시토02-05] 토의·토론에서 나의 말하기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토의·토론 의제와 관련하여 타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
관련 교과 성취기준	[12화작02-02]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이나 바라는 바를 진솔하게 표현한다.

원격수업 활용 Tip

- 주장과 근거를 단순히 음성으로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자료(그림, 도표, 사진, 동영상 등)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다.
- 주제 1에서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말하기 방식의 특징'과 관련된 동영상을 모둠원이 동시에 감상하면서 채팅창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의견을 공유한다. 또한 '나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점검표를 각자 작성하여 화면상에서 공유하면 토론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 온라인 수업에서는 두 번째 주제 활동 1의 '짝 활동'이 쉽지 않다. 따라서 수업 상황을 고려하여 모둠원 전체가 참여하는 활동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한다.
- 토론 활동이 진행되기 전에 사회자를 정해 각 모둠원의 발언 시간, 발언 횟수 등을 조절해서 모든 구성원이 고르게 발언할 기회를 부여한다.
- 온라인 토론 수업이 마친 후, 교사는 수업 마무리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정리하여 안내한다. 특히 핵심 논쟁점을 한 번 더 안내하고 합의된 내용과 아직 합의되지 못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하여 학생들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기회를 갖도록 해 준다.



생각열기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당신의 선택과 그 이유를 적어 봅시다.



미국 대통령이 후보 A는 토론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라고 비난하는 상대 후보에게 “전 당신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엔 인생 경륜이 부족하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라며 위트로 토론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후보 A의 말하기 방식의 장점에 대해 내 생각을 정리해 보자.

내 생각 정리하기	
질문	만약 여러분이 “000직을 수행하기엔 너무 나이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나의 답변	

1. 나의 말하기 방식 분석하기



활동 1

다양한 말하기 방식의 특징을 조사해 봅시다.

- (1) 다음의 여러 가지 사례에서 각 인물들이 어떻게 상대방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었는지
말하기 방식의 특징을 찾아봅시다.

말하기 사례	말하기 방식의 특징
<p>① 피터슨 교수가 말하는 설득의 기술은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방에 대한 이해, 공감, 배려가 중요하다.– 비유적 이야기를 활용한다.– 간결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
<p>② 다음은 스티브 잡스가 1세대 아이폰(2007년)을 공개하는 프레 젠테이션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참고할 수 있는 말하기 방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하여 전달한다.– 핵심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이야기한다.

③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말하기 습관에는 무엇이 있을지 정리해 봅시다.



- 같은 의미라면 긍정적으로 말한다.
- 정확한 숫자를 포함하여 말한다.(넘버 효과)

(2) 공감을 얻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말을 잘하는 비결은 무엇보다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내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주어야 한다. 각자 자기 말만 한다면 의미 있는 대화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말에 정성과 진실이 담겨야 한다. 화려하고 현란한 말하기 실력이 있더라도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결국 듣는 이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진실하고 정성스런 말엔 ‘공감’과 ‘설득력’이라는 힘이 담겨 있다.

‘정확하게 표현하기’, ‘간결하게 표현하기’는 설득력을 얻기 위한 좋은 말하기 습관이다. 자기 자신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보면 된다.

내 생각이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논거는 무엇보다 정확해야 하며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활동 2

나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점검해 봅시다.

- (1) 각 영역별 말하기 관련 점검 질문에 대하여 나의 말하기 방식을 생각하면서 자기 평가를 해 봅시다.

영역	구분	점검 질문	자기 평가
배려하는 말하기	1	상대방 생각이나 의견의 합당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말하는가?	상 / 중 / 하
	2	상대방이 알아듣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는가?	상 / 중 / 하
	3	강하게 말하거나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는가?	상 / 중 / 하
	4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고 말하지 않는가?	상 / 중 / 하
근거 있는 말하기	5	정확한 내용과 사실에 근거하여 말하는가?	상 / 중 / 하
	6	내 생각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는가?	상 / 중 / 하
	7	적절하고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기보다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말하는가?	상 / 중 / 하
	8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가?	상 / 중 / 하
바른 태도로 말하기	9	생각을 잘 정리하여 말하는가?	상 / 중 / 하
	10	'정말 ~', '완전~' 등의 불필요한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는가?	상 / 중 / 하
	11	너무 빠르게 말하거나 목소리가 작지 않는가?	상 / 중 / 하
	12	말의 끝맺음이 분명한가?	상 / 중 / 하

- (2) 나의 말하기 방식 중 장점과 개선할 점을 정리해 봅시다.

나의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개선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2. 공감하면서 말하는 법



활동 1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말하기를 생각해 봅시다.

- (1) 다음에 제시된 '모둠 활동'에 관한 내용을 읽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할지 내 의견을 정리해 봅시다.

A는 다음 주에 지구과학 수업 시간에 실시할 모둠별 발표 평가가 결정이다. 지난 학기에 실시했던 모둠 평가에서 모둠원 중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던 A가 이번에도 같은 모둠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번에 두 친구가 모둠 활동에 무임승차하는 바람에 A와 B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했었고, 결과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특히 C는 모둠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많다.

모둠 활동과 모둠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할까? 꼭 해야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A는 이 친구들에게 열심히 참여해 줄 것을 설득하고자 하는데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내 의견 정리	<p>모둠 활동에 무임승차하는 모둠원 A를 설득하려면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좋을지 정리해 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p>모둠 활동에 모둠 평가에 불만이 있는 B를 설득하려면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좋을지 정리해 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2) 해당 주제에 대해 짹과 의견을 나눈 후 짹의 의견을 정리해 보고, 내 의견과의 차이점을 정리해 봅시다.

짬의 의견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내 의견과의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짬의 의견에 대한 피드백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3) 짹이 나에게 피드백해 준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짬이 피드백해 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활동 2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말하기를 해 봅시다.

(1)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다음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가) 외모 지상주의(Lookism): 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과 성패를 가름한다고 믿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이다. 미국 <뉴욕 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새파이어가 2000년 8월 인종·성별·종교·이념 등에 이어 새롭게 등장한 차별 요소로 지목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패까지 좌우한다고 믿어 외모에 지나치게 지박하는 경향 또는 사회 풍조를 말한다. 곧 외모가 연애, 결혼 등과 같은 사생활은 물론이고 취업, 승진 등 사회 생활 전반까지 좌우하기 때문에 외모를 가꾸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다.



출처: 이홍자(2008). 중·고등학교 토론수업 길라잡이.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나) 외모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병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처음에는 운동이나 가벼운 다이어트 요법 등을 통해 몸매를 가꾸다가, 그래도 안 되면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여 성형수술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몇 번씩이나 되풀이하여 성형수술을 하면서 외모를 가꾸는 데 열과 성을 다한다. 이 과정에서 강박증이 생기기도 하고, 심하면 신체변형 장애까지 일어나게 된다.

한국에서도 2000년 이후 루키즘이 사회 문제로 등장하였는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UN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대비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한 나라이며, 1000명당 16명 정도가 수술을 했고, 서울 여성의 5분의 1이 성형을 했다고 한다. 또한 다이어트 열풍에 휩쓸려 무리하게 살을 빼다가 죽음에 이른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2015년에는 여의도연구원에서 2014년 10월 2일부터 20일까지 전국 4년제 대학교 68개교 재학생 5,617명(남학생 3,403명, 여학생 2,214명)을 상대로 설문을 한 결과 취업을 위해 성형수술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학생의 21.4%가, 남학생은 6.8%가 '있다'고 답하였다.

출처: 위키백과. 루키즘. (인터넷 검색일: 2020. 2. 6.).
<https://ko.wikipedia.org/wiki/%EB%A3%A8%ED%82%A4%EC%A6%98>

▶ 외모 지상주의 문제점 정리하기

-
-
-
-

(2) 외모 지상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외모 지상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기	
-------------------------------------	--

(3) 위에서 정리한 자신의 방안이 다른 모둠원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발표문을 작성해 봅시다.

발표 내용 정리하기	
---------------	--

(4) 모둠별로 발표해 보고, 발표 내용에 대해 평가해 봅시다.

모둠원	발표 내용 요약	평가		
		내용의 충실성	공감 정도	발표 태도
A		3점 2점 1점	3점 2점 1점	3점 2점 1점
B		3점 2점 1점	3점 2점 1점	3점 2점 1점
C		3점 2점 1점	3점 2점 1점	3점 2점 1점
D		3점 2점 1점	3점 2점 1점	3점 2점 1점
E		3점 2점 1점	3점 2점 1점	3점 2점 1점



생각 정리하기

- (1) 토의 · 토론에서 설득력 있게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말하기 방식의 특징은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 (2) 토의 · 토론에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 봅시다.

- (3) 토의 · 토론에서 나의 말하기 방식 중 ‘고치고 싶은 것’을 정리해 봅시다.

평가기준

토의 · 토론에서 나의 말하기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토의 · 토론 의제와 관련하여 타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

상	토의 · 토론에서 나의 말하기 방식을 분석하여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토의 · 토론 의제와 관련하여 타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표현한다.
중	토의 · 토론에서 나의 말하기 방식을 분석하여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주어진 토의 · 토론 의제와 관련하여 타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야 함을 설명할 수 있다.
하	나의 말하기 방식의 문제점을 인지할 수 있으며, 타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1) 자기 스스로 평가해 봅시다.

모둠원	발표 내용 요약	평가
성취 정도	나의 말하기 방식을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였는가?	3 / 2 / 1
	타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자 하였는가?	3 / 2 / 1
참여와 노력	나는 오늘의 짹 활동과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3 / 2 / 1
흥미	나는 오늘의 활동이 재미있었는가?	3 / 2 / 1
만족	나는 오늘의 활동 내용과 수행 결과에 만족한다.	3 / 2 / 1
합계		

(2) 모둠별로 동료 평가를 해 봅시다.

평가 항목 \ 모둠원	()	()	()	()	()
활동 참여도	3 / 2 / 1	3 / 2 / 1	3 / 2 / 1	3 / 2 / 1	3 / 2 / 1
발표 내용의 논리성	3 / 2 / 1	3 / 2 / 1	3 / 2 / 1	3 / 2 / 1	3 / 2 / 1
발표 내용의 정확성	3 / 2 / 1	3 / 2 / 1	3 / 2 / 1	3 / 2 / 1	3 / 2 / 1
의사소통 능력	3 / 2 / 1	3 / 2 / 1	3 / 2 / 1	3 / 2 / 1	3 / 2 / 1
배려 및 협동	3 / 2 / 1	3 / 2 / 1	3 / 2 / 1	3 / 2 / 1	3 / 2 / 1

참고 문헌

- 유튜브. 조던 피터슨 설득의 기술. (인터넷 검색일: 2020. 2. 6).
<https://youtu.be/otktxfsJVCM>
- 유튜브. 스티브 잡스 프레젠테이션-세상을 바꾼 1세대 아이폰. (인터넷 검색일: 2020. 2. 6). <https://youtu.be/DIKbwNJpP9I>
- 유튜브. 상대방의 관점을 바꾸는 4가지 말투 심리학. (인터넷 검색일: 2020. 2. 19).
https://youtu.be/CCym_UTMwVA
- 위키백과. 루키즘. (인터넷 검색일: 2020. 2. 6.).
<https://ko.wikipedia.org/wiki/%EB%A3%A8%ED%82%A4%EC%A6%98>
- 이홍자(2008). 중고등학교 토론수업 길라잡이.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5 토의·토론에 참여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성취기준	[12시토02-06] 토의·토론에서 타인의 주장을 경청하는 나의 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토의·토론 의제와 관련하여 타인의 주장을 공감하면서 듣는다.
관련 교과 성취기준	[10국01-05]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듣고 말한다. [10국01-02]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한다.

원격수업 활용 Tip

- 온라인 토론에서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며 바른 토론 자세로 토론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도록 한다.
- 온라인 토론이라는 특성을 살려 이모티콘 등을 활용한 적절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방법을 지도한다.



생각열기

다음 대화를 읽고 토의·토론에서 갖추어야 할 태도를 생각해 봅시다.

반대 측 토론자: 표준어 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상대측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만약 표준어 규정을 없앤다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생겨날 것입니다.

찬성 측 토론자: 물론 상대측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방언은 그 차이가 적고, 지금도 충분히 각각의 방언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적으로 만든 표준어는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 토론자: 이해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방언만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표준어는 국민들을 단합하게 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 토론자: 반대 측에서 말씀하신 표준어의 기능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글, 한국어를 사용하는 우리 한민족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단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준어의 설정은 비표준어 즉, 방언에 대한 차별을 가져올 우려가 매우 큽니다.

(1) 두 토론자의 토론 태도에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반대 측 토론자는 상대방의 주장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반면, 찬성 측 토론자는 상대방의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이 더욱 타당함을 논증하고 있다.

(2) 두 토론자 중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찬성 측 토론자가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진다. 찬성 측 토론자는 상대 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감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이 더 합당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이를 바탕으로 토의 · 토론에서 공감하는 태도의 필요성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1. 토의 · 토론에 참여하는 좋은 태도는?



활동 1

다음 상황을 보고, 토의 · 토론에 참여할 때의 기본 태도를 생각해 봅시다.

- ◆ 협상을 시작하는 두 상황을 보고 다음 활동을 해 봅시다.

(가) 회사 측: 작년에도 노조 측의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로 인해 협상이 결렬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회사 측에서는 내수 경제의 불황과 신제품 도입에 따른 지출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노조 측: 작년에도 동결한 임금을 올해도 또다시 동결하실 생각이신가요? 수많은 노동자들이 각자 어렵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제품 도입으로 인해 저희 모두는 퇴근도 미룬 채 제품 생산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20% 이상의 임금 인상 없이는 저희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나) 회사 측: 작년 임금 협상에서 양측의 이견이 커서 협상이 결렬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저희도 노조 측의 요구에 귀 기울일 테니 서로의 입장을 조금만 더 생각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내수 경제가 불황 속에 있습니다. 게다가 신제품 도입

으로 회사의 재무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사측에서는 임금 동결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노조 측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조 측: 내수 경제의 불황과 신제품 도입 등의 이유로 회사의 상황이 어려운 것은 저희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노동자들의 삶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한 신제품의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면 서로에게 불이익이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임금을 동결하였으니 올해는 그 부분을 고려하여 작년 대비 20% 이상의 임금 인상을 바랍니다.

(1) 어느 상황에서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예상되나요?

(나) 상황의 협상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위와 같이 예상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 상대측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대화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잘 듣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 지난 해 협상 결렬의 책임을 상대방의 잘못으로만 여기지 않고, 양측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 다음 토론 내용을 읽고 활동을 해 봅시다.

사회자: 찬성 측 제1 토론자께서는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측: 저는 스마트폰이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을 수 있는 앱스토어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분야의 교육용 앱이 5,000여 개 이상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스마트폰이 교육용 도구로 사용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이나 참고 자료를 찾을 때에도 다른 어떤 도구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스마트폰의 손쉬운 접근성은 언제 어디서든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사회자: 그럼 반대 측 제2 토론자께서는 반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측: 앱스토어에 교육용 앱이 5,000여 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들어가 살펴보고 하신 말씀이신가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 앱은 그 중에 몇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게임 관련 카테고리는 확인해 보셨나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 ⑦

찬성 측: 제가 직접 들어가서 앱을 다운 받아보고…….

반대 측: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스마트폰의 장점으로 또 무엇을 말씀하셨지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라 기억도 잘 나지 않는군요.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 ⑧

(1) ⑦에서 토론자의 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 상대방이 대답을 듣지 않고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

(2) ⑧에서 토론자의 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경청하지 않고, 무조건 비판하고 있다.
-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자신의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다.



활동 2

다음 글을 읽고, 토의 · 토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갖춰야 할 태도를 생각해 봅시다.

(1) 글을 읽고 밑줄 친 부분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말은 다름을 전제로 합니다. 다른 생각, 다른 감성을 가진 사람에게 내 생각, 내 느낌, 내 정서를 전달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 말은 상대의 생각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고 상대의 느낌과 감성을 나의 것과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므로 말을 잘한다는 것은 설득을 잘한다는 뜻이고, 감성적 공감과 이입을 잘 끌어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말을 잘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생각과 감성과 정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상대를 설득하려면 상대와 나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나와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 예컨대 그저 조금 다른 건지 확고하게 다른 건지, 그저 냉담한 건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

면 백번 싸워 백번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은 상대를 알아 가는 과정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누구든 설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말부터 하게 됩니다. 상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와 관련 없이 말입니다. 이는 싸울 상대를 전혀 모르고 덤비는 것과 같습니다. 지형지물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군대를 진격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적이 어디에 매복해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돌격을 감행하는 군대치고 싸워 이긴 군대는 없습니다. 돌격하기 전에 먼저 적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면 대체로 상대도 나를 설득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생각과 판단은 있습니다. 토론은 이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과정이지요.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처럼 상대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어찌만 상대도 나처럼 얼굴을 보자마자 말을 꺼내려 할 것입니다. 이는 좋은 기회입니다. 상대의 말을 충분히 들을 기회가 되니까요. 가만히 앉아서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나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연스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설득을 할 때 정말 어려운 상대는 자기 말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출처: 고성국(2016). 10대와 통하는 말하기와 토론. 철수와영희.

- 내가 상대방을 파악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나를 더 잘 파악하게 되어서
- 나의 주장과 근거에서 논리적인 허점을 상대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 나의 상황에 상대방이 공감하게 되면서 상대방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2) 다음 논의 주제 중 하나를 모둠별로 정해 토의해 봅시다.

보기

〈주제 1〉

토의 · 토론에서 상대의 발언을 경청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

〈주제 3〉

토의 · 토론에서 상대방의 발언을 경청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주제 2〉

토의 · 토론에서 상대방의 발언에 경청하지 않는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주제 4〉

타인의 주장을 공감하며 경청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3) 각 모둠의 토의 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정리해 봅시다.

▶ 토의 · 토론에서 상대의 발언을 경청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 상대방의 주장에서 하점이나 모순을 찾기 어렵다.
- 논의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여 나의 주장에도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 상대도 나의 주장을 경청하지 않을 것이다.
- 상대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 토의 · 토론에서 상대방의 발언에 경청하지 않는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상대방이 말을 할 때에 바라보지 않는다.
- 나의 발언을 위하여 상대방의 말을 끊는다.
- 상대가 발언할 때에 나의 발언만 준비한다.
-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 토의 · 토론에서 상대방의 발언을 경청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하는 발언을 한다.
-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빛을 마주친다.
- 상대방이 말한 것을 다시 한 번 재진술하여 확인한다.
-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메모한다.

▶ 타인의 주장을 공감하면 경청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상대방의 주장에서 하점이나 모순을 찾을 수 있다.
- 상대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하게 되어 나의 주장이나 근거를 수정할 수 있다.
- 상대도 나의 주장에 경청하게 된다.
-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하여 토의나 토론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2. 나의 토의·토론 태도 성찰하기



활동 1

모둠 활동을 바탕으로 나의 토의·토론 태도를 점검해 봅시다.

토론자 1	토론자 2	사회자(점검자)

(1)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역할을 정하여 봅시다.

〈주제 1〉 고등학교의 쉬는 시간을 20분으로 늘여야 한다.	〈주제 2〉 수업시간에 휴대폰 사용은 허용되어야 한다.	〈주제 3〉 고등학생에게 한문 교육을 필수로 실시해야 한다.
〈주제 4〉 무감독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주제 5〉 여름 방학을 없애고, 겨울 방학을 늘려야 한다.	〈주제 6〉 고등학생들의 교복을 폐지해야 한다.

(3) 사회자(점검자)는 다음 점검 내용을 기준으로 토론자 1과 토론자 2의 토론 태도를 점검하여 기록해 봅시다.

말하는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았다.	상대방의 말을 끊고 발언했다.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계속 이어나갔다.	상대방이 이미 제시한 주장이나 근거를 제대로 듣지 않거나 잊어버렸다.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과 근거를 분석하지 않고, 준비한 주장과 근거만 거듭 말하였다.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상대의 인신을 공격하는 발언을 하였다.	상대방이 발언을 할 때에 다른 일을 하였다.

▶ <토론자 1의 태도>

- 자신의 발언 준비를 하느라 상대가 발언할 때에 제대로 바라보지 않음
- 상대방의 주장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신이 준비한 내용만 말함

▶ <토론자 2의 태도>

-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말하자 말을 끊고 자신의 발언을 이어나감
- 상대방이 해당 주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주장만 반복하여 말함

(4) 사회자(점검자)와 토론자의 역할을 바꾸어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나’의 토론 태도를 반성해 봅시다.

나의 토론 태도에서 발견된 문제점

-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주장만 반복하여 말함
-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말하자 말을 끊고 자신의 발언을 이어나감



원활한 토론 참여를 위한 나의 반성과 다짐

점검자가 점검한 나의 토론 태도 중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한다’는 내용을 보고 스스로를 되돌아보았다. 반대 측의 입장에서는 논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클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긍정적인 근거만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대측이 우려하는 점이 무엇인지 공감하고, 그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우려할 만한 점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다.

또한 토론 중간에 답답한 마음에 상대방의 말을 끊고 내 반론을 제기했는데, 이 역시 상대방에게 무례한 행동이고, 토론을 이어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았다. 다음부터는 토론에 참여할 때에 상대측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해 본다.



활동 2

다음 주제로 모둠별로 토론을 실시하고, 이를 촬영하여 토론 태도를 점검해 봅시다.

〈논제〉

“속담 속의 차별어를 순화하여 사용해야 한다.”

〈1〉

“국세청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위기 대응 과정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어서”

“‘절름발이 내각’으로 정권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들은 모두 신문 기사에서 인용한 표현들인데, 어딘가 부족한 데가 있음을 굳이 장애를 빗대서 표현하고 있다. 공적인 매체에서 이렇게 써도 좋을까. 우리 사회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배려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장애 관련 용어도 가려 쓰려고 한다. 그러나 속담과 같은 비유적 표현은 굳어져 있기 때문에 무의식중에 사용되는 예가 많다. 해당 장애인이 이런 표현을 본다면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다수가 공감하는 그럴듯한 표현이니 잠시 눈을 감거나 귀를 막으라는 식의 논리는 자칫 다수의, 힘 있는 쪽의 횡포가 될 수도 있다. 위의 표현은 이렇게 고쳐 보면 어떨까.

“국세청이 말 못할 고민에 빠졌다.”

“위기 대응 과정은 주먹구구식이어서”

“엉성한 내각으로 정권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언론 등 공공성이 짙은 매체는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속담 등 비유적 표현이더라도 사용하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여 가려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속담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오는 쉬운 격언이나 잡언’을 가리키는 말로 관용표현에 해당한다. 속담은 하나의 말 덩어리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 속에는 우리 민족의 삶의 태도와 정서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가령 ‘식은 죽 먹기’라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빔다

말 속에는 우리 민족의 식생활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뜻의 영어는 ‘a piece of cake’라고 할 수 있으니 두 나라의 식문화가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다.

속담은 쪼개거나 변형하면 원래의 의미를 완전히 잃게 된다. 가령 ‘식은 죽 먹기’를 반대로 말하려고 ‘뜨거운 죽 먹기’라고 한다거나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더욱 강조하려고 ‘메추리알로 바위치기’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속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단어가 지닌 의미를 이해하기보다 문장 전체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고, 그 속에 담긴 조상들의 삶에 대한 태도를 우선 이해해야 한다.

(1) 촬영된 토론 영상을 보며, 다음의 점검표에 각 토론자들의 토론 태도를 점검해 봅시다.

점검 내용	찬성 측 제1 토론자	반대 측 제1 토론자	찬성 측 제2 토론자	반대 측 제2 토론자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는 행동(눈 마주침, 고개 끄덕임 등)을 하며 토론에 참여했나요?	☆☆☆☆☆	☆☆☆☆☆☆	☆☆☆☆☆☆	☆☆☆☆☆☆
상대방의 주장과 의견을 집중하여 들으며 토론에 참여하였나요?	☆☆☆☆☆☆	☆☆☆☆☆☆	☆☆☆☆☆☆	☆☆☆☆☆☆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발언하였나요?	☆☆☆☆☆☆	☆☆☆☆☆☆	☆☆☆☆☆☆	☆☆☆☆☆☆
상대방의 주장에 공감하며 토론에 참여하였나요?	☆☆☆☆☆☆	☆☆☆☆☆☆	☆☆☆☆☆☆	☆☆☆☆☆☆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이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나요?	☆☆☆☆☆☆	☆☆☆☆☆☆	☆☆☆☆☆☆	☆☆☆☆☆☆



생각 정리하기

(1) 친구와 의견이 다를 때에 나의 태도로 인하여 대화가 단절된 경험이 있나요? 그때의 나의 태도를 자세하게 설명해 봅시다.

- 친구와 수행평가 준비 일정을 짤 때에 서로 의견이 달랐는데 친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나의 주장만을 내세우다가 대화가 단절되었고, 그 수행평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2) 누군가가 나의 의견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일 때, 나의 마음은 어떠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만족스러울 것 같다.
- 상대방의 처지도 함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3) 경청하는 태도, 공감하는 태도는 토의, 토론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 토론에서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면서 보다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효율적으로 토론할 수 있을 것 같다.
- 토의를 할 때에는 공동체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원활한 대화를 위한 경청과 공감

토의·토론, 논쟁, 합의에서 그 바탕이 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공감하고 이해하려면 우선 상대방의 발언을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면 원활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 또한 토의·토론, 논쟁, 합의 등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된다. 나아가 자신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원만한 합의나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

경청



공감과 이해



토론 / 논쟁

토의

합의

평가기준

토의 · 토론에서 타인의 주장을 경청하는 나의 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토의 · 토론 의제와 관련하여 타인의 주장을 공감하면서 듣는다.

상	토의 · 토론에 참여하는 자신의 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의 말에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로 토의 ·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중	토의 · 토론에 참여하는 자신의 태도를 분석하고 성찰하여 경청하는 태도로 토의 ·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하	토의 · 토론에 참여하는 자신의 태도를 분석하고, 반성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2010). 이런 말에 그런 뜻이?. 국립국어원.

6 토의·토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성취기준	[12시토02-07] 민주 사회의 가치를 고려하여 논리적 타당성 및 공감적 태도를 바탕으로 협상, 조정, 중재, 합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사소통한다.
관련 교과 성취기준	[12화작02-02]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이나 바라는 바를 진솔하게 표현한다. [12화작02-03] 상대측 입론과 반론의 논리적 타당성에 대해 반대 신문하며 토론한다. [12화작02-04] 협상 절차에 따라 상황에 맞는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원격수업 활용 Tip

1. 온라인 토론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지침, 금지어 선정(욕설, 비하 발언, ○○ 등 자음만 사용 금지 등) 등의 작업을 학생들이 직접 실행해보도록 하는 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효과도 나타난다.
2. 온라인 수업에서 모둠별로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단톡방,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 엔진 문서 프로그램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한다.
3. 모둠 활동을 할 때, 구성원의 발언 기회를 골고루 제공할 수 있도록 교사가 사전에 토의 방식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학생 중에서는 의미 없이 ‘ㅋㅋ’ 혹은 이모티콘을 남발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제재나 안내가 필요하다. 역할 놀이의 경우 사례를 분석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 많이 활용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오프라인 보다 쉽게 다양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모둠 활동 시 구성원이 동시에 문서를 수정하거나 댓글로 의견을 바로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5.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 조정, 중재를 위한 시나리오 작성 활동, 활동 후 느낀 점, 새로 배운 점을 정리하는 활동, 다른 모둠의 활동을 감상하고 본인 모둠의 시나리오를 재 수정하는 활동은 온라인에서 실시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시나리오를 실연하는 활동 및 이를 감상하는 활동을 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6. 학생들이 실시간 채팅방이나 화상 수업방에서 팀원들이 낭독하고 다른 구성원은 이를 경청하도록 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에 모둠원이 함께 제작한 역할놀이 영상을 일부 공개 형태로 올리고 링크를 온라인 수업 사이트에 공유하는 방식을 활용 하여도 좋다.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의 경우 댓글 달기 기능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생각열기

자료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 이유와, 해결된 이유에 대해 말해 봅시다.

대한민국 정부는 전염성이 강한 신종 바이러스 질병 발원지에 거주하던 교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에 전세기를 파견하였다. 또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교민들을 일정 기간 격리하고, 임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A지역과 B지역의 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A지역과 B지역 주민들은 인근에 어린이 학교가 있다는 점, 충분한 사전 논의가 없어서 주민들이 불안하고 지역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들어 반대 시위를 진행하였다. 물리적 충돌까지 나타나며 갈등이 고조되었으나 해당 교민이 도착하기 직전, 지역 주민들이 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철회하였다. 수용반대주민대책위원회장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애초부터 교민 국내 귀환 자체를 반대했던 것은 아니다. 정부의 임시 수용 시설 결정 과정, 대책 등이 너무 미흡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민은 “교민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받아들였다. 그들이 안전하길 바란다.”며 다만 “정부의 추가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및 대책 발표를 실시하였다.

(1) A지역과 B지역 주민들이 임시 수용 시설 결정에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근에 어린이 학교가 있어서 전염병 확산에 대한 불안이 있다. / 정부가 해당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 지역 경제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2) A지역과 B지역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철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염병 발생 지역 교민들의 입장에 대하여 공감하고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수용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 협상 및 논의가 미비하였음을 지적하였다.

1. 민주 사회의 가치 고려하기



활동 1

갈등 해결을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민주 사회의 가치를 찾아봅시다.

(1) 아래 문장은 민주 사회의 가치와 관련된 서술입니다. 이 중 갈등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가치 1개를 팀에서 정하고, 선정 이유를 적어 봅시다.

- ① 개인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더 나아가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를 보장한다.
- ②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평등을 추구한다.
- ③ 사회 구성원들의 차이와 다양성을 개인적인 차원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한다.
- ④ 개인의 인권과 시민권을 침해하거나 감시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 ⑤ 분쟁을 제도화된 수단으로 해결하여 입헌민주주의의 건전한 기능을 촉진하도록 한다.

(우리 팀에서 정한 가치: ④—갈등은 인권 침해와 가장 연관성이 크기 때문이다.)

(2) 글에 나타난 갈등 해결을 위한 원칙 6가지를 적어봅시다.

바람직한 갈등 해소를 위한 원칙에는 여러 논의들이 있지만 큰 범위에서 공정성, 효율성, 안정성, 창의성이 있다.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협상 결과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결과에 대한 순응도가 낮아진다. 공정성은 갈등 당사자들의 인식이 중요한데, 갈등 당사자들이 균등한 정보와 기회를 가졌다고 인식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개적인 논증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효율

성은 갈등 해소 과정이 한정된 자원에 재한을 받는 것과 연결된다. 갈등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과 경제력을 쓸어 부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안정성은 지속 가능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다.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이나 실행할 수 없는 대안은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창의성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정 관념에서 벗어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갈등 해소는 한쪽의 희생을 통한 합의의 창출이 아니라 모두가 지속 가능하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충족하는 절차와 방안을 고안해 내는 것이다. 또 갈등 사안에는 표면적 이유와 함께 갈등 당사자들의 경험을 함축한 역사적 원인이 함께 작용한다는 점(함축성)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 형성된 인간관계에 의해서 신뢰와 협신의 태도가 형성되고, 그것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효율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관계성 역시 중요한 원칙에 해당한다.

(공정성, 효율성, 안정성, 창의성, 함축성, 관계성)

(3) 다음 대화에서 중시된 갈등 해소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윗집: 저희 집 아이가 어려서 주의를 주어도 뛰어서요, 항상 죄송합니다.

아랫집: 공동 주택이 방음이 허술해서인지 발소리가 들리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봄온 사이인데다가 아이들은 그 연령대에 뛰면서 크니까요.

윗집: 항상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음이 가장 부담되는 시간이라도 말해 주시면 저희가 아이한테 규칙을 안내할게요.

아랫집: 그러면 저녁 9시 이후에는 소음을 줄여 주세요. 노력해 주실 거란 걸 믿고 있어요.

(윗집과 아랫집 간에 신뢰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으므로 관계성을 바탕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활동 2

민주 사회의 가치를 고려한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주장해 봅시다.

(1) 민주 사회의 가치를 고려하여 의사소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 민주 사회의 가치를 고려하여 의사소통하기 위해 가져야 할 생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봅시다.

명제	선택
사람의 생각은 서로 다르므로 이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사회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갈등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결론이든 자체 전제하에서는 타당성을 가지므로 타인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경청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	
어떤 생각도 절대적인 참은 아니다.	
사익과 함께 공익도 고려해야 한다.	
민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과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다수의 구성원이 소수에게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도록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 우선하는 방안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갈등과 관련된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도 공유할 수 있는 상위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토의하고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은 민주 사회의 가치를 고려한 활동이다.	

- ▶ 위에서 각자 선택한 답안을 바탕으로 짹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개인이 갈등을 경험한 사례나 알고 있는 사회적 이슈 등을 근거로 하여 왜 그렇게 생각하였는지 정리해 봅시다.

– 선택: ‘어떤 결론이든 자체 전제하에서는 타당성을 가지므로 타인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경청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

– 근거: 수행 평가할 때,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토의하는 활동이 있었다.

친구들과 토의하던 중 우리학교의 화장실에 안심 벨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하기 위해 인근 경찰서를 방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모둠 내 다른 친구들은 갑자기 화장실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며 놀리거나 무시했다. 그러나 나는 비판이나 비난을 하기 전에 이야기를 들어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친구에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질문했다. 그랬더니 학교 화장실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겁이 났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다른 친구들은 이야기를 듣고 설불리 판단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함부로 배척하거나 맹신하지 말고, 편견 없이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배웠다.

(2) 의사소통에서 생기는 장애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봅시다.

▶ 대화에서 토론에 장애가 발생한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길거리 흡연 반대 입장: 흡연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데 그것을 권리라고 인정해야 합니까? 간접 흡연이 비흡연자의 건강을 해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흡연을 하면 임산부는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길거리 흡연 찬성 입장: 아니 잠깐만요. 간접 흡연이 건강을 해친다는 조사는 어디에 출처가 있나요. 제가 확보한 조사 내용은 다른 결론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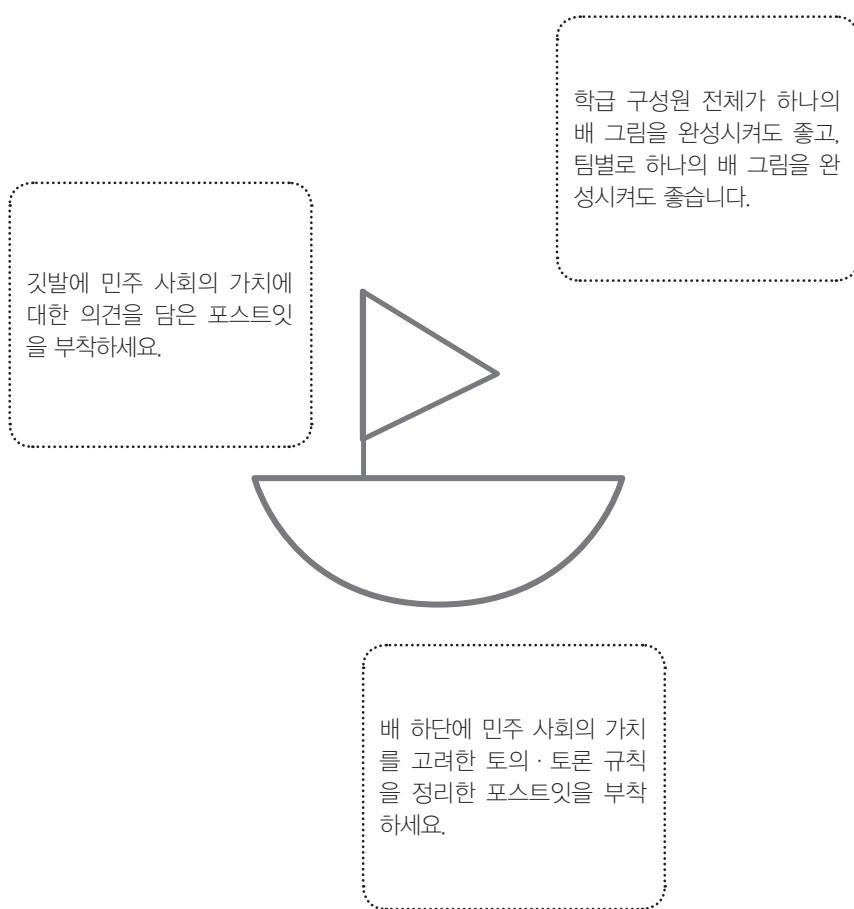


- 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고 감정 이입하며 듣지 않아서
- ② 자기 방어를 하느라 토론 규칙을 지키며 듣지 않아서
- ③ 상대방 발언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의도를 추리해서
- ④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개인의 감정을 앞세워서
- ⑤ 화자의 발언을 비판하기 위하여 발언이 지닌 공정성을 평가해서

▶ 대화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상의 규칙을 1가지 정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상대방의 입장, 감정, 발언의 맥락을 고려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의사 발언 기회를 방해하지 않는다.(허용된 시간 안에 발언할 때 끼어들기 금지, 빈정거리기 금지)

- ▶ 표에 자신이 선택한 내용과 동료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학급 구성원이 함께 민주 사회의 가치를 정리한 후, 이를 고려하기 위한 토의 · 토론 규칙을 3가지만 정해 봅시다.



2. 협상, 조정, 중재, 합의를 위한 의사소통하기



활동 1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합의적 의사소통이 필요한 상황을 분석해 봅시다.

(1) 자료 ①에 대한 설명을 읽고 해당 갈등의 양상을 파악해 봅시다.

자료 ①

· 20□□년 **시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회에서는 올해의 축제 목표를 '마을 공동체 만남의 장으로서의 학교'로 정하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과 성과를 나누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알렸다. 또 축제에 참여를 희망한 동아리 부장들에게 부스 운영을 위한 장소 배치는 학생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긴 후, 높은 점수를 얻은 동아리의 희망 순위를 우선 고려하여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 학생회는 교내 동아리 부장들에게 아래와 같이 기준을 안내하였다.
 <축제 참여 동아리가 희망하는 부스 운영 장소 배치를 위한 점수 기준>

기준	배점 방식
전년도 활동에 대한 학생 모니터링 점수(20점)	
부스 콘텐츠와 축제 목표와의 일치성(20점)	
마을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를 위한 노력(20점)	
예산 집행 및 안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계획서의 완성도(20점)	해당 항목의 점수는 상(20), 중(15), 하(10)로 평가하며 자료가 없으면 0점 처리함
부스 콘텐츠의 완성도(20점)	

· 일부 동아리에서 학생회의 부스 운영 방식에 대한 항의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과학 동아리 부장은 점수 기준이 신생 동아리에게 불리하다며 제비뽑기가 공정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7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문예창작부의 부장은 학생회가 제시한 기준에 만족하고 있다. 또 법 동아리 부장은 부스 콘텐츠 특성상 주목을 받아야 하는 동아리에게 접근성이 좋은 위치를 우선 배정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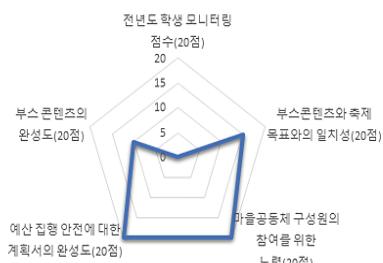
(2) 자료 ②는 위의 사례에 등장하는 측의 입장을 정리한 카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주장을 파악해 봅시다.

자료 ② : 인물 카드 뒷면 (앞면에는 팀원이 본인 얼굴과 성명 적기)

· **학생회장:** 학교 축제는 학생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함. 학생이 뽑은 대표인 학생회에서 결정된 기준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봄. 동아리부장들은 해당 동아리 부스의 흥행만을 원하므로 이들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방문객이 많이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가 되기를 희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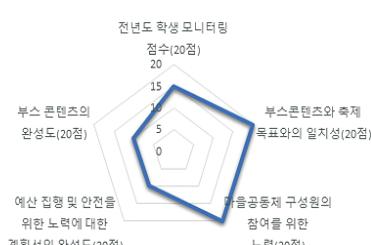
· **축제 운영 업무 담당 교사:**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함. 축제에서의 부스 운영과 관련한 갈등 역시 교사가 개입하기보다는 학생들이 합의하여 평화롭게 해결하기를 희망함. 학교 축제에 방문객이 많이 오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교육 성과를 지역 사회 구성원과 나누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또 특수 학급 학생이 운영하는 동아리는 우선 배려해야 한다고 봄

과학동아리-과학체험카페 운영



· **과학 동아리 부장:**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직접 동아리를 만들었으며, 과학 체험 카페를 운영하여 축제 때 최대한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여 신생 동아리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그러나 학생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전년도 학생 모니터링 점수의 배점이 20점이어서 신생 동아리가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점에 화가 남. 구성원의 참여를 위한 노력에 더 많은 점수를 주어야 하며, 아니면 제비뽑기가 차라리 공평하다고 생각함

법동아리_학교 폭력 문제 홍보 캠페인



· **법 동아리 부장:** 캠페인의 특성상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배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점수와 관계없이 활동의 특성을 더 고려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특히 학생회의 기준 중 구성원의 참여를 위한 노력, 목표와의 일치성이 높은 콘텐츠를 제시한 동아리가 우선적으로 배려받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함. 축제가 흥행하기 위해서는 목표에 적합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봄

(3) 다음 자료를 읽고 협상, 조정, 중재의 의미를 이해한 후 활동을 해 봅시다.

갈등 해소를 위한 가장 강제적인 방법은 사법적인 재판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개인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라고 하여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한 합의나 제3자의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각 방법상의 특징에 대한 표의 설명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방법을 옳게 써 봅시다.

	협상	조정	중재
절차 개시 요건	당사자 합의 필수	일반적으로 당사자 합의 필수	일반적으로 당사자 합의 필수
제3자의 관여 여부	관여하지 않음	관여	관여
제3자의 선정 절차	없음	당사자 합의	당사자 합의
제3자의 역할	없음	당사자 합의 도출	판정
절차의 내용	의견 제시, 타협, 자율적 의견 조율	이해, 조정인 조언에 의한 의견 조정	사실 확인, 이해관계 조정
분쟁 해결의 방식	당사자 합의	조정인의 조정하의 당사자 합의	당사자들의 증거 자료에 입각한 중재인의 판정
결정의 구속력	없음(소송 가능)	없음(소송 가능)	일반적으로 있음

- ▶ 자료 ①에서 나타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분쟁 해결 방법은 협상, 조정, 중재 중 무엇일까요? 짹과 함께 각 해결 방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분쟁 해결 방법을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를 1줄 이내로 적어 봅시다.

조정이 가장 적절하다. 학생회장의 생각처럼 각 동아리 회장 모두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생이 뽑은 대표가 조정자로서 갈등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평화로운 해결 방식이라고 본다.



활동 2

역할놀이를 통해 합의적 의사소통을 실행해 봅시다.

- (1) 자료 ①을 읽고, 갈등 사례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갈등 해소 방법을 협상을 통한 합의, 조정, 중재 중 1가지를 선택해 봅시다. 그리고 사례와 관련된 등장인물의 입장을 정리한 카드를 각자 읽어 보고 역할을 나누어 봅시다. 카드에 없는 역할을 추가하여도 괜찮습니다. 토의를 통해서 등장인물들이 협상이나 조정, 중재 등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결말의 역할극 시나리오를 만들어 봅시다. 각 등장인물의 대사와 선택은 카드 내용과 일관성이 있도록 구성하되, 결말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를 채워 봅시다.

주제	민주 사회의 가치를 고려하여 (협상, 조정, 중재)을/를 통해 학교 축제 부스 배치와 관련한 갈등 해결하기
역할극 제목	상생(相生). (: 상대방의 신발을 바꿔 신고 이야기할 때, 생글생글 웃음이 나는 학교 축제를 운영한다는 의미임)
줄거리 (전체 줄거리)	고등학교 학생회에서는 올해의 축제 목표를 '마을 공동체 만남의 장으로서의 학교'로 정하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과 성과를 나누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알렸다. 또 축제에 참여를 희망한 동아리부장들에게 부스 운영을 위한 장소 배치는 학생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긴 후, 높은 점수를 얻은 동아리의 희망 순위를 우선 고려하여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준에 대한 동아리 간의 반발과 갈등이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담당 교사와 논의하였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학생회장에게 담당 교사는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과정'을 설계하고 경험하는 것 자체가 배움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방식을 논의해 보라고 권유한다. 학생회장은 동아리 회장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열자고 주장한다. 동아리 회장들은 각자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희망하는 동아리 부스 배치 기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나 현재의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면 제비뽑기를 희망하는 과학동아리 회장과 축제 목표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시한 동아리에게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법동아리 회장 간의 갈등이 격화된다. 동아리 회장들은 당사자 간의 협상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을 합의하고, 축제 부스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동아리 회장들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조사하고 축제 목표에 적합한 배치 기준을 다시 만들기로 한다.

<p>갈등 및 장면 설명 (혹은 극 갈래 전환 장면 설명)</p>	<p>#1. 갈등 상황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당황하면서 교사의 도움을 받으려 온 학생회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축제 담당 교사</p> <p>#2. 동아리 회장들과 학생회 간의 협상 회의장에 들어서기 전, 신생 동아리에게 불리한 기준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학 동아리 회장, 이에 대한 고민을 듣는 학생회 서기는 축제의 목표가 적힌 현수막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씬</p> <p>#3. 제비뽑기를 희망하는 측, 현재의 기준 유지를 옹호하는 측, 축제 목표와의 일치성이 높은 콘텐츠를 운영하는 부스에 대한 우선권을 더 주자는 측 등 각자의 입장에 대한 이유를 들고 동아리 회장과 학생회 임원들이 축제 목표를 성찰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협상 씬</p> <p>#4. 공정성을 위하여 축제에서 부스를 운영하지 않는 동아리 회장으로 구성된 조정 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이들이 현재의 기준과 각 동아리의 입장을 고려하여 새로운 조정안을 제시하도록 하자는 주장을 들으며 모두 박수치는 씬</p>
<p>담당 팀원 (가능한 팀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함)</p>	<p>1. 학생회장 2. 학생회 서기 3. 법 동아리 회장 4. 과학 동아리 회장 5. 축제 부스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댄스 동아리 회장 6. 축제 운영 담당 교사 *시나리오는 2~4 페이지/7분 분량으로 구성합니다.</p>

(2)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역할극을 팀별로 수행해 봅시다. 다른 팀의 역할극을 보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 및 자신과 갈등하는 역할의 구성원이 어떻게 협상에 임하는지 관찰하고 민주적인 협상 혹은 조정, 중재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성찰해 봅시다.

▶ 다른 팀의 역할극을 관람하고, 내가 맡은 역할이 갈등 해결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내가 맡은 역할과 갈등 관계에 있는 역할이 원하는 바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느낀 점을 정리해 봅시다.

다른 팀 역할극 제목	내가 맡은 역할과의 비교 (갈등 해결에 대하여 어떻게 입장을 표현하고 있나요?)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역할 파악 (이들의 주장과 근거는 무엇인가요?)

▶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 간에 공유하고 있는 가치를 확인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상호 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표현하는 활동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팀을 고르고, 선정 이유를 쓰세요.

(3) 시나리오를 다시 만들어 봅시다. 다른 팀의 역할극을 보고 느꼈던 점을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시나리오를 보완하여 정리해 봅시다.

▶ 우리 팀에서 협상과 관련하여 표현한 대사, 결말 처리와 관련하여 잘한 점, 부족한 점,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토의해 보세요. 특히 자신이 맡은 역할,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역할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토의 활동에 참여해 봅시다. 그리고 그 내용을 표에 정리해 봅시다.

성공적인 협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상을 표현하는 시나리오 보완하기	<p>서로 다른 입장과 그 배경에 대하여 공감하고 배려하는 대사가 포함되었나요? (함축성, 관계성)</p>	<p>우리 팀의 잘한 점: 부족한 점: 보완할 점:</p>
	<p>각자의 입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균등하게, 그리고 타당하게 제시되었나요? (공정성)</p>	<p>우리 팀의 잘한 점: 부족한 점: 보완할 점:</p>
	<p>임시방편이 아닌,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았나요?(안정성)</p>	<p>우리 팀의 잘한 점: 부족한 점: 보완할 점:</p>
	<p>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서 다른 방향에서 해결 방안을 찾고자 했나요?(창의성)</p>	<p>우리 팀의 잘한 점: 부족한 점: 보완할 점:</p>
	<p>강자, 혹은 다수의 구성원이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려는 노력이 보였나요?</p>	<p>우리 팀의 잘한 점: 부족한 점: 보완할 점:</p>
	<p>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공익 추구)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였나요?</p>	<p>우리 팀의 잘한 점: 부족한 점: 보완할 점:</p>



생각 정리하기

(1)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장과 주장의 배경을 이해하는 ‘공감적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 일까요?

(2)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중에는 협상 외에도 조정, 중재 등이 재판 등 법적 절차를 제외한 대안적 해결 방식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해결 방식을 선택할 때 유의할 점이 무엇일까요?

평가기준

민주 사회의 가치를 고려하여 논리적 타당성과 공감적 태도를 바탕으로 협상, 조정, 중재, 합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다.

상	민주 사회의 가치를 고려하여 논리적 타당성과 공감적 태도를 바탕으로 협상, 조정, 중재, 합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다.
중	민주 사회의 가치를 고려하여 논리적 타당성과 공감적 태도를 바탕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하	민주 사회의 가치를 파악하고, 논리적 타당성과 공감적 태도를 바탕으로 의사소통하는 활동이 필요함을 이해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한겨레 신문(2020. 1. 31). 진천 · 아산 주민 ‘우한 교민들 편히 쉬다 가길’ 수용반대 철회. (인터넷 기사 검색일: 2020. 2. 5.) <http://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926380.html#csidx0e052d09e1983ceb5fd606fdc0d7739>
- 김순영 외(2016). 민주시민교육 표준모델(중고등학생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김영숙(2015). 갈등 해소와 대체적 분쟁 해결.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배광호(2017). 중 · 고교 선생님을 위한 토론 수업 34차시. 뜨인돌.
- 박영민(2017).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비상 애듀.

민주시민교육과 토의 · 토론 실천

1 우리 지역의 건축물에 담긴 의미와 삶의 모양

성취기준	[12시토03-03] 지역 사회에서의 삶과 관련한 토의 · 토론 의제를 선정하여, 관련 지식을 활용하고 민주 사회의 가치와 토의 · 토론 태도를 적용하여 토의 · 토론한다.
관련 교과 성취기준	[12미01-02]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는 시각문화의 가치와 역할을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다. [12미01-03] 현대의 사회현상과 문제를 이해하고 미술을 통한 참여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원격수업 활용 Tip

- 원격 수업은 등교 수업에 비해 다양한 자료의 ‘검색’ 및 ‘확인’, ‘검증’ 등이 편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점을 활용하여 수업에서 제시되는 자료나 참고 작품 등을 충분히 찾아 이해하고 분석 또는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본 수업에서는 <카사 밀라>와 관련된 자료, 안토니오 가우디와 관련된 건축 이야기, QR 코드로 제시된 산토리니에 대한 영상 자료나 부산 감천 마을 등의 자료를 보고 논할 수 있다.)
- 학습지를 ‘구글 스프레드시트’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쌍방향 기록 및 소통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 지역 사회의 자료 조사 시 온라인 기사나 블로그 등의 검색 외에도 온라인 지도 검색을 활용한다면 지역의 공간, 각종 건물과 기관 등의 위치를 한눈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열기

아래 두 가지 '같은 이름, 다른 건축물'의 차이점을 찾아보고
이처럼 다른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를 적어 봅시다.



카사 밀라(Casa Mila: 밀라의 집). (건축기간: 1906~1912). 스페인 바르셀로나. 안토니오 가우디.



출처: 풀빌체 까사밀라(조감도). (건축기간: 2012~2013). 대구 신천역 풀빌체 까사밀라 '입소문'. 경북일보.
(인터넷 기사 검색일: 2020. 1. 13.).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7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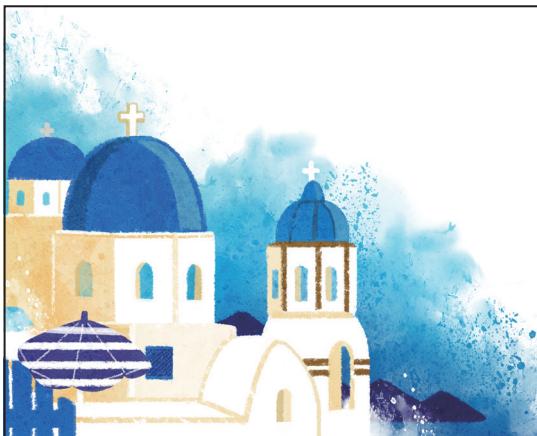
두 건축물이 다른 점	두 건축물이 다른 이유
곡선 위주의 건물과 직선 위주의 건물	직선형 건물은 쓸모나 편리성이 뛰어나다 곡선이 많은 건물은 자연형에 가까워 보기 편하다
공간의 효율성과 보기 좋은 것의 차이	
	비용 절감, 더 많은 수익 인간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1. 건축물과 지역성 관계 탐구하기



활동 1

건축물이 지역의 특성과 어떤 점에서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해 봅시다.



지중해 푸른 바다색을 닮은 지붕과 맑은 공기와
쾌청한 날씨를 닮은 하얀색 건물들이 비탈 위에
옹기종기 붙어있어 독특한 느낌으로 신혼여행 등
인기 관광지이다.



영상 자료는 QR코드로 확인

그리스 산토리니섬 티라(Thira)마을



1950년대 6.25 피난민들이 모여들어 만들어진
판자촌이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지역 재생 사업이
이루어진 후 유명 관광지로 변화되었다.



영상 자료는 QR코드로 확인

부산 감천 문화마을 홈페이지 <https://www.gamcheon.or.kr/>

- (1) 건축물은 자연 환경과 삶의 모습을 담아냅니다. 지역의 특성이 짙은 색채로 남아 관광지가 된
다음의 두 마을을 비교하여 어떤 점이 건축물에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봅시다.

	현재의 마을 모습을 갖추게 된 배경과 이유
그리스 산토리니섬 티라(Thira)마을	
부산 감천 문화마을	

- (2) 위에서 소개한 두 곳 이외에 지역 특성이 짙은 색채를 보이는 건축물을 가진 공간을 찾아서
소개해 봅시다.

예) 통영 OOO 벽화마을, 서울 OO벽화마을, 군산 OOO역사의 거리



활동 2

건축물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시다.

- (1) (짝과 함께 토론) 삶의 태도와 가치가 건축물을 중심으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치

경제적으로 절약하거나 경제적 이득이 우선되어야 한다.

(생활 속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이나 결과

공간을 최대한 아끼거나 더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을 디자인한다.



- (2) 내게 영향을 준 건축물이 있다면 소개해 봅시다.

2. 자료 조사하기



활동 1

우리가 사는 지역, 마을, 공동체의 특성이나 특징을 알아보고
우리 지역의 건축물 찾아봅시다.

- (1) 우리가 사는 지역, 마을, 공동체의 특성이나 특징을 찾아봅시다.

	예) 고속도로와 기찻길 등 교통의 요지
우리가 사는 지역, 마을, 공동체의 문화적 특성	
우리가 사는 지역, 마을, 공동체의 지리적, 경제적 특성	
그 외 특징적인 점이나 지역을 흥보하고 싶은 점 등	

(2) (멋지지는 않지만, 현실적 이유로 구현된) 지금 거주하는 우리 동네의 흔한 건축물을 관찰하여 토론해 보고 싶은 건축물을 기록해 봅시다.

(사진 촬영 후 수업용 온라인 게시판⁴⁾에 업로드)

대상 :	간단히 스케치
논해 보고 싶은 부분 :	

대상 :	간단히 스케치
논해 보고 싶은 부분 :	



활동 2

우리 지역에서 지역의 특성을 잘 담은 건축물이나 마을 경관을 조사해 봅시다.

건축물 이름 (또는 위치)	독특한 이유와 내용
예) 전주 한옥마을과 경기전, 전동성당	전통 한옥이 지역의 관광 상품이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경기전, 전동성당이 독특한 조선의 왕조를 낳은 집안과 당시의 건축물, 유적 등이 잘 남아 있어 지역 환경과 어우러짐

4) 단체 SNS 및 클라우드, 학교 홈페이지 등 다양한 학습용 온라인 소통 도구 활용 가능

3. 토의 · 토론하기



활동 1

토의 · 토론을 통해 지역사회의 특징이나 우리 삶을 담은 건축물 디자인을 제안해 봅시다.

- (1) (모둠 토론) 지역 사회가 가지는 특징이나 우리의 삶을 담은 건축물을 디자인하기 위해 현실적인 조건으로 고려할 점을 정리해 봅시다.

고려할 점	지역성 :
	공공성 :
	예술성 :
	경제성 :
	그 외 1: 예) 접근성, 교통 등
	그 외 2 :

- (2) (모둠 토론) 지역 사회가 가지는 특징이나 우리의 삶을 담은 건축물을 디자인하기 위한 제안서를 만들어 발표해 봅시다.

건축물명 :	〈제안서〉
건축물의 특징 및 제안 내용 :	
반영하고픈 지역 특성이나 특징 :	

재료적 특징 및 기타 내용 :

건축물 디자인 (스케치)



생각 정리하기

(1) 다음 자료를 읽고 글을 써 봅시다.



'카사 밀라⁵⁾'는 가우디가 약 100년 전에 설계 건축한 주거용 건물이지만 주위 건물들은 현재까지도 '카사 밀라'와 같은 곡선이나 자연형 또는 독특한 모양을 띠지 않고 있다. 대다수 건축물이 가지는 경제적 효율성 위주의 현상은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구체적인 건축물의 예를 들어 논하시오.

5) 카사 밀라(Casa Mila), 1906~1912, 스페인 바르셀로나, 안토니오 가우디

평가기준

지역성과 건축물의 관계를 이해하고, 지역성이 담긴 새로운 건축물을 의도와 목적에 맞게 디자인하여 설득력 있게 제안할 수 있다.

상	지역성과 건축물의 관계를 이해하고,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성이 담긴 새로운 건축물을 협력적인 토론을 통해 창의적이고 의도와 목적에 맞게 디자인하여 설득력 있게 제안할 수 있다.
중	지역성과 건축물의 관계를 이해하고, 지역성이 담긴 새로운 건축물을 의도와 목적에 맞게 디자인하여 설득력 있게 제안할 수 있다.
하	지역성과 건축물의 관계를 이해하고, 지역성이 담긴 새로운 건축물을 디자인하여 제안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카사 밀라(Casa Mila)



〈평면에서 공간으로〉

가우디에게는 장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구리로 솔과 그릇 등을 만드는 구리 세공업은 가우디의 증조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세습된 직업이었다. 가우디의 어머니 또한 장인 집안의 딸이었으므로 가우디는 부모 모두에게서 장인의 피를 물려받은 셈이다. 아버지는 '솔 대장간의 음악 소리'라는 이름을 가진 작업실에서 매일 같이 그릇을 만들었다. 일감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다섯 식구의 생활을 감당하기엔 항상 돈이 부족했고, 그래서 가우디의 집안은 늘 가난했다. 가우디는 어린 시절부터 줄곧 아버지의 대장간에서 일을 도와드리곤 했는데, 어린 가우디의 눈에는 무엇보다도 종이처럼 얇은 평평한 동판이 아버지의 손을 거치면서 오목한 그릇으로 변해가는 것이 마냥 신기하기만 했다. 가우디의 건축세계가 가지고 있는 3차원적인 공간감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작업장에서 시작되었다. 훗날 가우디는 자신의 선조 모두 공간감을 타고난 사람들이었고, 자신 또한 그러한 능력을 이어받아 공간에 대한 인지 능력이 남달랐다고 설명했다.

나의 공간 인지 능력이 남다른 이유는 내가 솔 전문 대장장이의 아들이자, 손자이자, 증손자이기 때문이다…… 선조는 모두 공간감을 타고난 사람들이었다.

가우디는 아버지로부터 불을 다루는 방법, 구리를 제련하는 방법, 무쇠를 녹이는 방법

등을 배웠다. 아버지를 통해 예술적인 면을 배운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손수 보여 준 기술은 훗날 가우디의 상상력과 결합하여 새로운 예술적 조형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대장간에는 그릇을 만들 때 쓰이는 동판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재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가우디는 이런 여러 특성을 가진 재료들을 다룰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었다. 이는 가우디가 어떠한 재료도 겁을 먹지 않고 사용할 줄 아는 건축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했다. 그렇기에 가우디에게는 무엇이든지 예술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순수한 재료로 보였다.

가우디는 이후 깨진 타일 조각, 질그릇 조각, 거북이 등딱지, 윤나는 금 조각, 쓰다 버린 기계 조각 등 재료를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창조적인 건축가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가우디는 자신이 장인의 아들이기 이전에 카탈루냐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타고났다고 확신하였다. 가우디는 항상 카탈루냐의 우월한 창조성에 대해 말하곤 했는데, 자신의 조형성은 카탈루냐의 자연이 가진 풍부함과 지중해 바다가 주는 풍성하고도 예리한 햇빛 속에서 다져진 감각임을 상기시키곤 하였다. (중략)

「카사 밀라」는 가우디의 공간 조형적 감각을 잘 엿볼 수 있는 작품인데, 이 건물을 공사 할 당시에 있었던 일화를 통해 가우디가 가진 독특한 조형 능력을 엿볼 수 있다. 가우디는 구체적인 설계도 없이도 건축물 전체는 물론 디테일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었던 건축가로 유명했다. 하루는 이를 못마땅하게 본 어느 건축가가 어떻게 설계도를 완성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느냐고 묻자 가우디는 주머니 속에 있던 구겨진 종이를 꺼내 보여주고는 “이것이 「카사 밀라」의 설계도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이제 그만 가 보시죠.(Bon dia I ad éu!)”라고 자신 있게 말해 모두를 당황스럽게 했다고 한다.

출처: 손세관(2004). 안토니오 가우디. 살림출판사. p. 25.



출처: 포 에스트라다(2015). 위대한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하루. 책속물고기.

■ 전주 경기전(全州慶基殿)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조선 전기 제1대 태조의 어진을 모신 사당. 묘사(廟祠). 사적 제339호. 지정면적 4만 9,527.4m². 1410년(태종 10) 어용전(御容殿)이라는 이름으로 완산·계림·평양 등 세 곳에 창건하여 부왕인 태조의 어진(御眞)을 모셨다.

1442년(세종 24)에는 그 소재지마다 이름을 달리하여 전주는 경기전, 경주는 집경전(集慶殿), 평양은 영종전이라 불렀다. 경기전은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1614년(광해군 6)에 중건하였다.

건물의 구성은 본전, 본전 가운데에서 달아낸 현(軒), 본전 양 옆 익랑(翼廊)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두르고 있는 내삼문(內三門)·외삼문(外三門) 등으로 공간을 분할하고 있다. 본전은 남향한 다포식(多包式) 맞배집 건물로, 높게 돋우어 쌓은 석축 위에 앞면 3칸, 옆면 3칸으로 세웠는데 건물 안의 세 번 째 기둥렬[柱列]에 고주(高柱)를 세우고 그 가운데에 단(壇)을 놓았다.

이 단 양 옆에는 일산(日傘)과 천개(天蓋)를 세웠다. 본전 앞에 내단 현은 본전보다 한 단 낮게 쌓은 석축 기단 위에 4개의 기둥을 세우고 2익공식(二翼工式) 포작(包作)을 짜운 맞배지붕 건물이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주경기전 [全州慶基殿].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인터넷 검색일: 2020. 2. 3).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2336>
한국관광공사. 경기전. (인터넷 검색일: 2020.01.14.). <http://www.visitkorea.or.kr>



■ 부산 감천문화마을

생활과 예술의 공전, 감천문화마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감천문화마을은 1950년대 6.25 피난민의 힘겨운 삶의 터전으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족현대사의 한 단면과 흔적인 부산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산자락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계단식 집단 주거형태와 모든 길이 통하는 미로미로(美路迷路) 골목길의 경관은 감천만의 독특함을 보여줍니다.

감천의 이런 특색과 역사적 가치를 살리기 위해 지역 예술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모여 시작한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감천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의 디딤돌이 되었으며 이 사업을 시작으로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2015년에는 140만 여명이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2019년 집계 방문자 수 308만 명²⁷⁾)

어디로든 통하는 감천

감천문화마을은 주민들의 참여로 일궈낸 자랑스러운 문화브랜드입니다. 감천문화마을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보존과 재생이라는 큰 명제를 가지고 생활 문화에 창조적인 예술의 옷을 입혀 생활 친화적인 마을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기 좋은 마을', '방문객에 친절한 마을', '주민 스스로 지속하는 마을'의 3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국의 대표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을 계속 될 것입니다.

출처: 감천문화마을 홈페이지. 마을소개. (인터넷 검색일: 2020. 2. 1.). <https://www.gamcheon.or.kr/>
부산MBC(2020. 1. 20.). 방송내용. (인터넷 검색일: 2020. 2. 1.). <https://busanmbc.co.kr/article/NYCW4tCCVGY>

■ 건축가 ‘안도 타다오의 아름다운 건축물(영상)’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건축 기술이 만나 비, 바람, 물, 햇빛 등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을 만드는 건축가로 유명하며 한국에도 뮤지엄 산 등
여러 곳에 건축물을 남기고 있다.

출처: 안도 타다오(1941~). 일본 건축가.
<https://youtu.be/P0t8Ur4TM2k>



2 우리 곁에 있는 난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성취기준	[12시토03-05] 세계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토의 · 토론 의제를 선정하여, 관련 지식을 활용하고 민주 사회의 가치와 토의 · 토론 태도를 적용하여 토의 · 토론한다.
관련 교과 성취기준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원격수업 활용 Tip

1. 게시판에 논제를 올리고, 그 논제에 대해 지정된 친구가 논제를 수정하도록 한다. 수정된 논제는 투표를 거쳐 학급 논제로 선정한다.
2. 학급 논제에 대한 긍정 입장과 부정 입장의 주장을 댓글로 올리도록 안내한다.
3. 논제-입장-쟁점-주장이 정해지면 작품 속 인물이 속한 국가에서 일어난 인권 뉴스를 찾아 구체적 정보를 찾게 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그룹 토의를 유도한다.
4. 찬성과 반대로 그룹화된 학생들을 구글 행아웃 등을 활용해 토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후 토론 과정을 글쓰기를 통해 정리하여 성찰의 시간을 가진다.



생각열기

다음 사진은 국경을 넘는 난민과 2016 리우올림픽에서 오륜기를 들고 입장하는 난민 선수단의 입장 장면입니다. 난민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첫 번째 사진에서 사람들이 국경을 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리아 국민들이 내전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다.

(2) 두 번째 사진에서 리우올림픽에 출전하는 난민 선수들을 보며 인간 안보의 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말해 보고 그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난민 자신이다. – 개인적 선택에 의해 난민을 결정한 것이라면 난민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타국의 국민의 안전에 대한 갈등이 생길 경우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므로 난민의 무조건적인 수용을 인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국제협력기구들이다. – 생존과 자유, 인권의 보호는 국가의 이익을 넘어 보호되어야 할 인간의 가치이다. 국가의 안전이 아닌 인간 안전이 우선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쟁과 같은 개인의 힘에 의해 조정되는 것이 아닌 원인에서 난민이 발생한다면 이를 중재해야 할 국제기구가 앞서 조정해 주어야 한다.

1. 토의 · 토론 의제 선정하기



활동 1

주어진 자료를 읽고 토의 · 토론을 위한 의제를 질문 형태로 만들어 봅시다.



출처: 표명희(2018).
어느 날 난민. 창비.

2018년의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는, 이주민 200만 시대에 연간 1만 여 명의 난민 신청이 접수되는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난민 문제와 무관하다고 생각 해왔던 한국 사회에 충격을 가져왔다. 2017년에만 1만 명에 가까운 난민이 한국에 정착하길 희망했지만 같은 기간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들은 5%도 안 된다. 이 소설은 다양한 난민의 모습을 보여 준다. 한국 땅에 태어났지만 한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미혼모와 그의 아이 민은 늘 손에 큐브를 들고 있다. 이슬람 국가의 악습에 피해를 받는 난민센터의 1호 난민 찬드라와 옹가는 국가로부터 위협을 받고 결국 난민이 된다. 보트피플로 국적이 없는 난민, 뚜양의 불행, 소수민족인 모사르와 그의 가족과 이민족의 갈등, 그리고 성 소수자 허진수 등 우리 시대, 우리 곁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난민의 모습을 통해 저마다의 사연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들의 존재를 들여다보게 한다.

(1) 책을 읽으면서 떠올린 생각을 개인 질문으로 만들어 보고, 개인 질문을 짹과 대화하며 짹 질문으로 정리해 봅시다.

나의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 신청이 거절된 후의 난민들의 삶은 희망이 없는 것일까? • 난민이란 어떤 사람일까? • •
친구의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 시민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 타국에서 국적을 얻으면 행복하게 될까? •



쫙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가 제도를 통해 사람을 난민으로 살아가도록 할 수 있는가?
쫙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쫙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의 다양한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2) 짹 질문에 대해 모둠원이 대화하여 모둠 질문으로 정리해 봅시다.

모둠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활동 2

모둠별 질문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듣고 토의 · 토론 의제를 선정해 봅시다.

(1) 모둠별 질문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듣고 질문에 반영된 모둠의 관점을 정리해 봅시다.

모둠	질문	질문에 반영된 관점
1		• •
2		
3		
4		
5		
6		

(2) 모둠별로 토의 · 토론 의제에 적절한 질문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모둠	의제 선정과 그 이유
1	
2	
3	
4	
5	
6	
토의 결과	• 6명 중 찬성 표, 반대 표

(3) 선정된 토의 · 토론 의제를 적어 봅시다.

토의 · 토론 의제	•
------------	---

2. 관련 정보 탐색하기



활동 1

토의·토론 의제와 관련하여 토의·토론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탐구해봅시다.

- (1) 『어느 날 난민』을 읽고 등장인물 중 한 명을 선정하고 인물이 처한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을 다음 과정에 따라 탐구해 봅시다.



모둠명		모둠원	
선택한 등장인물			
사건 요약			
인물의 국적 ↓ 국가 기초 조사 ↓ 역할 나누기 (예) *지리적 위치 *역사 *사회문화 *종교 등 (지도, 사진 포함)			
더 찾아보고 싶은 정보			

〈예시〉

찬드라와 인도의 명예살인을 중심으로 살펴 본 정보 예시

(145)

→ 더 살고 싶은점 : 영국의 인도를 지배할 시대, 세계적 정세는 어떤가?

(2) 최근 인권 뉴스를 조사하고, 문제에 대한 원인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모둠원과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모둠명		모둠원					
선택한 등장인물과 국가	찬드라						
선택한 국가의 최근 보도된 인권 관련 뉴스 정리(붙이기) (뉴스의 출처를 밝힐 것)	<p>인도 '최하층 계급' 기독교인 남성, 결혼 후 명예살인 당해</p> <p>출처: 크리스천 투데이(2018. 6. 08.). 인도 '최하층 계급' 기독교인 남성, 결혼 후 명예살인 당해. (인터넷 기사 검색일: 2020. 2. 2.).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13155</p>						
문제의 원인 도출	<p>〈문제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사회의 오랫동안 이어져온 카스트 제도 -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과 악습 - 사람들을 계급에 의해 판단하고 적대시 하는 인권 탄압 - - 						
관점에 따라 문제의 원인 분류	<table border="1"> <thead> <tr> <th>제도에 의한 문제</th> <th>인식에 의한 문제</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r> </tbody> </table>	제도에 의한 문제	인식에 의한 문제				
제도에 의한 문제	인식에 의한 문제						

3. 토의 · 토론하기



활동 1

자신의 가치와 태도를 적용하여 월드 카페 토론 방식으로 토의 · 토론을 해 봅시다.

(1) 월드카페 토론을 하고, 국가적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1 카페에서 나눈 대화〉

질문: 난민의 원인은 누가 제공하는 것인가?

의견과 근거: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계급에 의한 사람을 차별 할 수 없다.(인권의 개념, 인권과 헌법,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등)

〈2 카페에서 나눈 대화〉

질문: 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 시민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의견과 근거:

–국가적 삶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매체와 교육을 통한 홍보가 인권을 회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각국의 다양한 사례,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등)

〈3 카페에서 나눈 대화〉

질문:

의견과 근거:

참고 자료

■ 월드카페 토론이란?

· 개념

사람들이 카페와 유사한 공간에서 창조적인 집단 토론을 함으로써, 지식의 공유나 생성을 유도하는 토론 프로세스

· 진행 방법

① 질문 선정

토론 참여자들이 대화를 나누기 위한 질문을 제안한다. 전체 진행자는 질문을 모아 분류하고 모둠 수대로 배분한다.

② 테이블 배치

4~6명 한 테이블로 배치한다. 테이블에는 기록용 종이, 필기도구, 포스트잇을 준비한다. 편안한 분위기를 위해 적당한 음악을 틀어 놓아도 좋다.

③ 테이블 호스트 선정

테이블 별 호스트를 1인씩 둔다. 호스트는 참가자들의 대화를 톡진하고 공평하게 발언할 수 있게 조정하며, 대화 내용을 정리한다.

④ 대화의 진행

테이블별로 다양한 기록 도구들을 활용하여 30분 내외로 대화를 진행한다. 이때 기록은 모든 사람이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⑤ 호스트 1인만 남고, 참가자들의 테이블 이동

전체 진행자가 음악을 틀면 1차 대화를 끝내고 다음 테이블로 이동한다. 테이블 호스트는 남아서 다음 대화에 참여할 사람들을 기다린다.

⑥ 지속적인 대화 전개(④~⑤)를 2, 3차례 반복)

이동이 끝난 후 호스트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전 대화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한 후 다시 대화를 이어간다.

⑦ 전체 공유

모든 테이블 대화가 끝났으면 테이블 호스트들로 하여금 앞에 나와서 테이블 대화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생각 정리하기

(1) 난민과 나는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2) 난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어떤 가치와 태도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3) 국가적 삶이 나의 삶과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4) 공존하기 위해 어떤 실천이 필요한지 자신의 의견을 말해 볼까요?

민주시민으로 공존을 실천하려면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기 때문이다.

(5) 토의·토론을 하면서 보여 주었던 자신의 참여 태도에 대해 성찰해 볼까요?

내용	정도		
	잘함	보통임	노력 요함
· 토의·토론 의제를 선정할 때 모둠원 간의 협의와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 토의·토론 의제와 관련하여 사실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탐색하였다.			
· 토의·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이나 관점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말하였다.			
· 토의·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타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응호하고자 하였다.			
· 토의·토론 의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사회 공동체의 이익과 관련한 의사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 토의·토론 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나 공공의 선을 위협하는 표현을 하지 않으려 하였다.			

평가기준

세계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토의·토론 의제를 선정하고, 관련 지식을 활용하고 민주 사회의 가치와 토의·토론 태도를 적용하여 토의·토론할 수 있다.

상	세계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토의·토론 의제를 선정하고, 관련 지식을 활용하고 민주 사회의 가치와 토의·토론 태도를 적용하여 토의·토론할 수 있다.
중	세계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토의·토론 의제를 선정하고, 관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토의·토론할 수 있다.
하	세계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토의·토론 의제를 선정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토의·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나우뉴스(2015. 6. 15). 시리아에서 터키 국경을 넘는 난민들. (인터넷 기사 검색일: 2020. 2. 22.). <http://nownews2.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615601007>)
- 네이버 블로그(homo bulla 호모불라). 리우올림픽선수단 입장식. (인터넷 검색일: 2020. 2. 22.).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eehoyeol123&logNo=220781388992>

토의 · 토론 실천을 통한 시민 참여

1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디자인 프로젝트

성취기준	[12시토04-02] 우리 사회에서 개선해야 할 사회 문제를 정하여 토의 · 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행동 실천 방안을 결정하여 시민 참여를 실천하는 프로젝트를 행한다.
관련 교과 성취기준	[12미01-03] 현대의 사회 현상과 문제를 이해하고 미술을 통한 참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원격수업 활용 Tip

- 사회자를 미리 정하고, 발언 방법 및 발언 순서와 같은 참여 규칙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가 참관인으로 참여하거나 회의 내용의 녹화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참여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 모둠 활동 결과 정리 양식을 미리 제공하고, 협력하여 활동 결과를 정리할 수 있도록 역할 배분 또는 개인별 작성 의무 부과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모둠 활동의 결과물을 공유하여 피드백을 통해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의 문서 공유 기능이나 온라인 게시판 댓글 기능을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열기

다음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찍은 사진입니다. “노란 발자국과 양옆을 살펴요” 디자인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출처: 공공소통연구소 공식블로그. 우연히 만난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 in 서울. (인터넷 검색일: 2020. 2. 24.).
<http://blog.naver.com/loudproject/221151799537>

(1) 위의 디자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의 행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횡단보도의 오른쪽에서 길을 건너게 된다.
양옆을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게 된다.

(2) 위의 디자인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보행자 신호를 지키지 않는 차량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 문제 발견하기



활동 1

다음 사진에서 나타난 사회 현상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를 분석해 봅시다.



〈퇴근 시간, 버스정류장의 모습〉

출처: 공공소통연구소 공식블로그. (버스정류장) 기호 하나가 만들어내는 유쾌한 법질서 캠페인. (인터넷 검색일: 2020. 2. 24.).
<http://blog.naver.com/loudproject/220321501769>.

(1) 위 사진에서 나타난 사회 현상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 줄을 선 사람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딪치게 된다.
- 줄을 선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추위에 떨고 있다.
- 줄을 선 사람들이 서로 다른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면 버스 도착 시 질서유지가 안 된다.

(2) (1)의 문제 중 사람들의 행동 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 줄을 선 사람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딪치게 된다.
- 줄을 선 사람들이 서로 다른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면 버스 도착 시 질서유지가 안 된다.

(3) (모둠 활동) (2)의 문제 중 간단한 디자인 설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골라 다음의 표를 완성 해봅시다.

선택한 문제	줄을 선 사람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딪치게 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행동	줄을 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보행 통로를 두고 줄을 서도록 한다.
행동 변화를 위한 디자인 아이디어	 <p>출처: 공공소통연구소 유튜브 채널. (버스정류장) 기호 하나가 만들어내는 유쾌한 법질서 캠페인_팔호라인프로젝트. (인터넷 검색일: 2020. 2. 24.). https://www.youtube.com/watch?v=7XFw2ggEKDM.</p>



활동 2

일상생활 속 문제를 발견해 봅시다.

(1) 학교생활을 하면서 불편했던 점에 대해 떠오르는 대로 포스트잇에 써봅시다.

- 교복이 너무 불편하다.
- 매점이 없어 배가 고프다.
- 교과교실제가 실시되면서 쉬는 시간에 있을 장소가 없다.

(2) (모둠 활동) 학교생활 속 문제를 발견해 봅시다.

▶ 우리 모둠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를 5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1	화장실 변기 속에 쓰레기를 버린다.
2	교복이 너무 불편하다.
3	학교 엘리베이터에 이용 제한이 없어 정말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없다.
4	교과교실제가 실시되면서 쉬는 시간에 있을 장소가 없다.
5	급식실에서 줄을 잘 서지 않는다.

▶ 위에서 제시한 5가지 중 학교 구성원들의 행동 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 화장실 변기 속에 쓰레기를 버린다.
- 학교 엘리베이터에 이용 제한이 없어 정말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없다.
- 급식실에서 줄을 잘 서지 않는다.

▶ 위에서 제시한 문제 중 우리 모둠이 해결을 위해 노력해 볼 문제를 한 가지만 선정해 봅시다.

※ 선정 기준

문제와 관련된 학교 구성원의 수가 많을 것

문제의 양상이 심각하거나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간단한 디자인 설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화장실 변기 속에 쓰레기를 버린다.



활동 3

일상생활 속 문제를 발견해 봅시다.

(1) 우리 모둠이 선정한 문제의 현황을 정리해 봅시다.

▶ 문제의 현황 분석을 위해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면서 정리해 봅시다.

항목	내용
발생 장소	
발생 시간	
발생 빈도	
문제 발생으로 인한 불편함	

(2) 우리 모둠이 선정한 문제의 원인을 정리해 봅시다.

▶ 문제의 원인을 떠오르는 대로 포스트잇에 써 봅시다.

- ▶ 의식 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원인만을 골라 비슷한 상황끼리 묶어서 포스트잇을 정리해 봅시다.

문제 발생 상황	원인

- ▶ 문제 발생 상황에 따라 문제 발생의 결정적 원인을 한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문제 발생 상황	결정적 원인

2. 디자인으로 일상생활 속 문제 해결하기



활동 1

일상생활 속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을 구상해 봅시다.



〈거리의 하수구에 감성 불어넣기 “웃는 얼굴에 담배꽁초와 침을 뱉으시겠습니까?”〉

출처: 공공소통연구소 공식블로그. (거리) 비점오염원, 거리의 하수구에 감성 불어넣기. (인터넷 검색일: 2020. 2. 24.)
<http://blog.naver.com/loudproject/220680419829>.



〈부산시 야간시간대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픽토그램〉

출처: 데일리 환경(2016.8.16.). 부산시, 쓰레기 무단투기 잡는 양심 캠페인 진행. (인터넷 기사 검색일: 2020. 2. 28.).
<http://m.daily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17>

(1) 우리 모둠이 선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을 구상해 봅시다.

■ 디자인 구상 시 유의점

- ① 문구의 길이는 짧게, 디자인은 최대한 간단하게 할 것
- ② 하나의 디자인은 한 가지 행동의 변화 효과를 목적으로 할 것
- ③ 문제 발생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것
- ④ 저작권 없는 픽토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활용할 것

목표(디자인을 통해 변화된 행동의 모습) 화장실 변기에 휴지 외 쓰레기 버리지 않기(휴지만 버리기)

디자인 스케치



활동 2

디자인 활용 계획서를 작성해 봅시다.

(1) 우리 모둠이 선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 활용 계획서를 작성해 봅시다.

활용 방식	
활용 장소	
활용 시기	
제작 방식	
제작 수량	
효과 조사 시기	
효과 조사 방법	

(2) 디자인 활용 일정표를 작성해 봅시다.

해야 할 일	일정	담당자
도안 제작	4.20.~4.24.	
스티커 인쇄	4.27.~5.1.	
활용 준비	5.1. 방과 후	
활용 점검	5.4.~5.10.	
활용 완료	5.11. 방과 후	
효과 조사 준비	5.12. 방과 후	
효과 조사	5.12.~5.15.	
프로젝트 보고서 작성	5.15.~5.18.	



활동 3

모둠별 디자인과 활용 계획을 발표해 봅시다.

(1) 갤러리워크 방식으로 발표하고 피드백해 봅시다.

■ 발표 및 피드백 방식

- ① 4인 모둠에서 다시 2인씩 발표 역할과 갤러리 역할로 나눈다.(6인 모둠의 경우 3인씩으로 나눈다.)
- ② 2인은 옆 모둠으로 이동하여 모둠의 디자인과 활용 계획을 설명하고, 갤러리가 된 2인은 자신의 모둠을 방문한 다른 모둠원 2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포스트잇에 적어 피드백해 준다.
- ③ 몇 차례 순회 후 발표와 갤러리 역할을 바꾸어 실시한다.

(2) 갤러리워크 결과, 우리 모둠의 디자인과 활용 계획에 대한 피드백을 정리해 봅시다.

좋은 점	
아쉬운 점	

(3) 피드백을 반영하여 우리 모둠의 디자인과 활용 계획을 수정, 보완해 봅시다.

디자인 수정 사항	
활용계획 수정 사항	



활동 4

모둠별 디자인을 실제로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해 봅시다.

(1) 디자인 활용 계획서에 따른 활동을 실제로 해 봅시다.

(2) 디자인 적용 프로젝트를 끝낸 후 자신의 활동을 성찰하고, 발표해 봅시다.



생각 정리하기

(1) 학교 밖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을 본 경험이 있나요? 아래의 디자인을 같이 살펴봅시다.



〈어르신 복지시설의 안전 이용정보에 대한 디자인 개발 프로젝트〉

출처: 디자인 서울. 어르신 복지시설의 안전 이용정보에 대한 디자인 개발. (인터넷 검색일: 2020. 2. 24.).
<https://design.seoul.go.kr/sdg/project/222>.

(2) 위의 디자인은 사람의 행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3) 위의 디자인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4) 디자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교 밖 사회 문제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평가기준

우리 사회에서 개선해야 할 사회 문제를 정하여 토의·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행동 실천 방안을 결정하여 시민 참여를 실천하는 프로젝트를 행한다.

상	우리 사회에서 개선해야 할 사회 문제를 정하여 토의·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행동 실천 방안을 결정하여 시민 참여를 실천하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행한다.
중	우리 사회에서 개선해야 할 사회 문제를 정하여 토의·토론을 통해 적절한 해결 방안을 계획하고, 관련된 행동 실천 방안을 결정하여 시민 참여를 실천하는 프로젝트를 행한다.
하	우리 사회에서 개선해야 할 사회 문제를 정하여 토의·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계획하고, 행동 실천 방안을 결정한다.

참고 문헌

- 공공소통연구소 공식블로그. 우연히 만난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 in 서울. (인터넷 검색일: 2020. 2. 24.). <http://blog.naver.com/loudproject/221151799537>
- 공공소통연구소 공식블로그. (버스정류장) 기호 하나가 만들어내는 유쾌한 법질서 캠페인. (인터넷 검색일: 2020. 2. 24.). <http://blog.naver.com/loudproject/220321501769>.
- 공공소통연구소 유튜브 채널. (버스정류장) 기호 하나가 만들어내는 유쾌한 법질서 캠페인_괄호라인프로젝트. (인터넷 검색일: 2020. 2. 24.). <https://www.youtube.com/watch?v=7XFw2ggEKDM>.
- 공공소통연구소 공식블로그. (거리) 비점오염원, 거리의 하수구에 감성 불어넣기. (인터넷 검색일: 2020. 2. 24.). <http://blog.naver.com/loudproject/220680419829>.
- 디자인 서울. 어르신 복지시설의 안전 이용정보에 대한 디자인 개발. (인터넷 기사 검색일: 2020. 2. 28.). <https://design.seoul.go.kr/sdg/project/222>.

개발진 명단



집필 책임자

구정화 경인교육대학교

자문진

박재현 상명대학교

설규주 경인교육대학교

옥일남 서원대학교

정혜승 경인교육대학교

정은식 경기 안산강서고등학교

황재진 서울 신현고등학교

교수 · 학습 자료 집필진

강재호 서울 혜원여자고등학교

김양희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김연귀 서울 혜원여자고등학교

김영자 경기 청덕고등학교

박만용 경기 성서중학교

백지원 인천만수고등학교

윤이정 경기 안양예술고등학교

이영호 서울 방산고등학교

주우연 서울 광남고등학교

정미선 서울 개원중학교

정은식 경기 안산강서고등학교

황재진 서울 신현고등학교

민주시민과 토의·토론

발 행 일 2020년 9월
발 행 처 교육부 전국 시 · 도교육청
편집 · 디자인 아누바이오 054-331-6006
발간등록번호 경북교육 2020-27

※ 본 자료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함께 개발한 토의·토론교육 자료로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복제·배포할 수 없습니다.

민주시민과 토의·토론